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소설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2016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정 원 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동환

소설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Korean Culture Education
through Novel Tex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정 원 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동환

소설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Korean Culture Education
through Novel Tex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정 원 기

정원기의 문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소설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정 원 기

본 논문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다. 그동안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교육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교육의 도구이거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학습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교육함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외국인 학습자의 목적에 맞는 문화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한국어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교육과 차별성을 둔 한국 문화교육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성이란 일반목적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등급에 맞는 문화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에 따라 단계(이해, 적용, 생산, 평가)를 적용하여 문화교육을 위한 제재로 한국 현대 소설을 활용하여 문화를 교육하는 것이다.

현행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문화를 교육할 때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문화교육용 교재와 한국어교육용 통합 교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문화교육용 교재의 경우 문화의 범주가 체계적이지 않고, 문화 항목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한국어교육용 통합 교재의 경우 각 기관의 교재마다 교수요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의 명칭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고 또한 제시된 문화가 해당 단원의 주제, 기능과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제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를 학습할 때 문화를 인지하는 것이 아닌 제시된 기능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 자체만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목적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 적용, 생산, 평가의 단계를 거쳐 스스로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문화가 잘 드러난 소설 텍스트와 그에 따른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일반목적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를 올바르게 인지하여 의사소통 상황이나 담화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위의 교육 방안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사를 통해 Beacco(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문화 개념 중 ‘문화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문화 교육 목표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모든 등급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목표’와 외국인 학습자의 ‘등급별 세부 목표’ 두 가지로 나누었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문화 항목의 경우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를 참고하여 성취문화, 행동문화, 정보문화 세 가지로 문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세부 문화 항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과 관련된 연구사를 참고하여 선정된 문화 항목 교육의 제재로 사용할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선정 기준 역시 문화 교육의 목표와 동일하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모든 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등급별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위의 선정 기준에 맞게 각 등급에서 문화 교육의 제재로 활용할 소설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목적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화를 교육할 때 단계를 적용하여 문화 교육의 제재로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문화 교육 방안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을 반영한 문화 교육 방안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문화 교육 연구와 한국 문학 교육의 연계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문화교육의 제재, 단계별 교육(이해, 적용, 생산, 평가), 소설 텍스트, 교육적 가치, 재화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사 검토	3
3. 연구 방법	25
II.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양상 검토와 방향성 모색	28
1. 한국어교육용 교재의 문화교육 양상 검토	28
1) 초급, 중급, 고급 교재의 교수요목	29
2) 초급, 중급, 고급 교재 내 문화교육을 위한 텍스트	35
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접근 전략	50
1) 단계별 접근 전략	51
2) 소설을 통한 접근 전략	63
III. 문화 항목과 소설 텍스트의 등급별 설정	68
1. 문화 항목의 선정 기준과 등급별 문화 항목	68
1) 문화 항목 선정 기준의 이론적 근거	68
2) 문화 항목 선정 기준과 한국어 등급별 문화 항목	84
2. 문화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과 소설 텍스트 선정	87
1)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	87
2)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에 따른 등급별 소설 텍스트	96
IV.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단계별 문화교육 방안	103
1. 문화교육 방안 비교를 위한 등급별 교재 내 문화 항목	105

1) 초급 교재의 ‘성취 문화’	106
2) 중급 교재의 ‘정보 문화’	108
3) 고급 교재의 ‘행동 문화’	109
2. 등급별 문화 항목의 교육 방안	111
1) 초급	111
① 『요람기』를 통한 성취 문화	111
② 『혼불』을 통한 정보 문화	118
③ 『소나기』를 통한 행동 문화	123
2) 중급	129
① 『서편제』를 통한 성취 문화	129
② 『운수 좋은 날』을 통한 정보 문화	137
③ 『역마』를 통한 행동 문화	142
3) 고급	147
① 『수난이대』를 통한 성취 문화	147
② 『코끼리』를 통한 정보 문화	153
③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통한 행동 문화	157
V. 결론	163
참고문헌	166
부록	174
ABSTRACT	189

표 목 차

<표 1> Beacco(2000)의 문화 개념	6
<표 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의 개념	14
<표 3>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문화 교육 목표	17
<표 4> 한국어교육 급별 문화 영역 학습 목표	18
<표 5> 한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화교육의 목표	19
<표 6> 등급별 문화교육 세부 목표	20
<표 7> 본 논문에서 선정한 문화교육 목표	22
<표 8> A대학의 한국어 교재 『재미있는 한국어 1』의 교수요목	30
<표 9> B대학의 한국어 교재 『연세한국어 3』의 교수요목	31
<표 10> C대학의 한국어 교재 『이화한국어 4』의 교수요목	33
<표 11>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의 인지적 영역	52
<표 12> Anderson & Krathwohl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의 이차원 구조	53
<표 13> ‘교육목표분류학’과 ‘개정 교육목표분류학’의 비교	53
<표 14>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	54
<표 15>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의 단계별 내용	55
<표 16> Eisenberg & Berkwitz의 ‘Big 6 Skill’ 모형	57
<표 17> 한국 문화교육 시 단계별 위계 분류	58
<표 18> 본 논문에서 위계화 시킨 단계별 내용 제시	60
<표 19>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학습 경험과 요구’ 설문 결과	65
<표 20> 외국인 학습자 등급별 문화 항목 제시	69
<표 21> 등급별 문화 교육 내용	71
<표 22> 등급별 문화 영역의 목표 기술	73
<표 23> 등급별 문화 영역의 내용 기술	74
<표 24>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의 문화 범주	76
<표 25> 초급 2의 문화 세부 내용 표준모형	79
<표 26> 중급 3의 문화 세부 내용 표준모형	80
<표 27> 고급 6의 문화 세부 내용 표준모형	82
<표 28> 본 논문에서의 문화 항목 선정 기준	85
<표 29> 본 논문에서 선정한 학습자 등급별 문화 항목	85

<표 30> Chall 외(1996)의 텍스트 구분 기준	88
<표 31>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	93
<표 32> 윤여탁(2002), 김대행(2001)의 소설 작품 목록	94
<표 33>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	96
<표 34> 본 논문에서의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	98
<표 35> 선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의 현대 소설 목록	99
<표 36> 소설 텍스트 『소나기』 재구성	101



그 립 목 차

<그림 1> 의사소통 능력 중심 교육에서 문화 능력 중심 교육으로 전화	16
<그림 2> 단계별 위계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모형	59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논문은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교육은 최근 몇 년을 사이에 두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한류의 영향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수요가 늘고 있고 그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도 단순히 언어의 원리나 문법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 제도 등의 이해를 통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학습자들도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 한국어를 통해 좀 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논의와 교육적 핵심 논의들이 문법과 기능 중심에서 의사소통, 담화, 문화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반성에서 오는 전환적 자세라기보다는 한국어 문화 교육의 교수 학습 과정과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¹⁾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학습자와 재외 동포에게 한국적 사고방식과 한국 문화의 학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의 이해를 통한 한국어교육 방법이 강조되고, 한국 문화의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수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1) 김수진(2009),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언어문화교육 연구-맥락 활성화에 기반한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31-58.

러한 교육 과정과 교수 방안의 개발에서 좀 더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 제재로서 ‘문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은 ‘문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읽기 자료’의 한 제재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교육 과정이 체계적이지도 내용이 풍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 중 소설을 택하여 문화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습자들은 문법 중심인 ‘언어’를 배우고, 최종적으로 ‘문학’을 학습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문학’의 학습은 문학 작품 읽기와 병행하여 토론이나 글쓰기와 같은 언어활동을 하거나, 문학의 속성에 대한 학습 활동, 작품의 주제나 등장인물에 대한 비평 활동 및 학습자의 체험과 결부시키는 내면화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문학 활동을 언어로 학습하게 된다.²⁾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육의 대부분은 해당 문화와 관련된 설명적 텍스트가 제시된 교재를 활용하여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네 가지 기능의 활동으로 문화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교육을 위한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해당 단원의 주제 및 기능과 문화항목이 연계성이 없는 것들도 있고 교재의 교수요목에서 분류하고 있는 문화의 명칭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문화의 범주화 또한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³⁾ 이는 문화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재에 일관성과 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은 문화의 제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문학교육을 살펴보면 보통 문학이라는 것을 학습하는 단계는 중급 이상이다.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은 단지 문학 작품을 읽고, 작품에 대한 이해 활동으로 간단한 문제 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무시하고 단지 읽기 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이러한 문학 교육은 학습자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을 외국인 학습자들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읽고, 읽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만 풀다면 문학 작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휘와 표현들이 바로 학습자들에게 부담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외국인 학습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무의미한 활동을 하지 않고 문

2) I. C. Fountas & G. S. Pinnell(2001), 『Guiding Readers and Writers』, Heinemann. pp. 30-35.

3) II장에서 기관 교재의 교수요목과 문화 관련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밝히겠다.

학 작품 중 소설을 문화 교육의 제재로 사용할 것이다.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제재로 문학 작품 중 소설을 활용하여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 문화를 단계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읽고 소설 속의 줄거리 즉,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소설 텍스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장면(텍스트)을 본 논문에서 단계별로⁴⁾ 위계화 시킨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가 스스로 문화 항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실제 담화 상황이나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색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본 논문은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을 다루고자 하는 연구 논문이다. 한국어교육이 외국어 교육에서 교수·방법적인 이론을 참고하여 다양한 교수법들을 개발하고 연구도 진행되고 있기에 먼저 문화와 관련된 연구사로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어떻게 연구가 되어 있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개념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문화의 개념과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정립하거나 범주화하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문화는 원래 인류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린 ‘문화’에 대한 개념은 대략 300여 가지가 된다. 이러한 논의에서 최대 공약수로 등장하는, 즉 거의 모든 논자가 동의하는 개념은 ‘공동체’, ‘역사성’, ‘다른 공동체와의 차별성’, ‘생활양식’, ‘가치관 또는 관념’ 등이며 좀 더 넓혀갈 때에는 ‘법률’, ‘제도’, ‘문물’ 등이 포함된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개념에 대해 문화인류학자 Tylor(1981)는 문화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지식과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4) 여기서의 단계란 외국인 학습자의 등급(1~6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과정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해 - 적용 - 생산 - 평가'의 단계를 말한다.

에 대한 능력과 습관의 복합체이며, 인간의 유형화된 생활양식이라 하였으며, Geertz(1973)는 문화는 단지 상징적 형태로 표현되는 의미의 체계(System of meaning)라 하였다.⁵⁾ 또한 Durkheim은 문화의 개념에 대해 문화란 사회적 힘(force)이며 구체적인 사실로서, 구성원들의 행위를 강제하는 외적이고 구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개념을 정리하면 문화는 유형과 무형, 추상적, 구체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Raymond Williams는 문화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지적, 정신적, 심미적인 계발의 일반적 과정이라 하였고, 두 번째는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 생활 방식, 세 번째는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 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을 일컫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Brooks(1975)⁶⁾는 문화를 big C(culture)와 little c(culture)로 구분하였다. 먼저 big C(culture)란 고전 음악, 무용, 문학, 예술, 건축, 정치, 경제 제도 등의 문화적 관례를 일컫는 것이며, little c(culture)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 태도, 신념, 가치 체계 등 집단이 공유하는 인간 생활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Brown(2007)⁷⁾은 문화란 우리가 존재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안에 존재하며 서로를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며, 또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한집단의 관습이나 이념, 기술, 예술, 기구 등으로 정의된다고 보았다. 즉 문화는 인간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그 속에 녹아들어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화는 제2언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양자를 분리시키면 어느 하나의 중요성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Rivers(1981)⁸⁾도 문화란 그 사회집단에서 공유하는 모든 생활을 일컫는다고 하였는데, 즉 한 민족의 문화란 삶의 모든 면과 관련이 있어 성장하는 아이는 행동하는 법, 표현하는 법, 사물을 보는 법, 높이 평가해야 할 것, 무시해야

5)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15-20.

6) Brooks. N. H.(1975), The Analysis of Language and Familiar Cultures. in R. C. Lafayette. *The Culture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incolnwood: National Textbook Company. pp. 19-31.

7) Brown, H. Douglas(2007), - 『외국어 학습 · 교수의 원리』, Pearson Education Korea. p. 200.

8) Wilga M. Rivers.(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14-345

할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문명은 지리학, 역사, 예술적 문화적 업적, 정치, 종교, 교육제도, 과학의 업적, 철학적 개념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측면이며, 문화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일반 시민의 생활양식, 그들의 언어학, 동료들과 나누는 가치, 신념, 편견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언어 교육에서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명의 소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문화에 대한 관점으로 Patterson은 문화는 일반적 관점에서 또는 삶의 특정한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생활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방식에 관해 사회적으로 정해지고 계층 내부적으로 형성된 개념의 목록이라고 하였다.

또한 Daman(1987)⁹⁾는 문화는 학습되어 지고, 변화하며, 인간 삶의 보편적인 사실이며, 살아가는 데 독특하고 흥미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며,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Hall(1995)은 문화를 의사소통으로 보고 개별문화의 구성원이 몸동작, 눈짓, 시공간, 접촉, 상황을 다루는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여 음성언어와 비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Lusting & Koester(1999)는 문화는 다른 문화 사이의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으로 간주하며 타문화와의 구성원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과제를 수행하고 관계를 이루며 유지시켜 나가는 능력으로 문화의 개념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문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화를 타문화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하고 느끼면서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Beacco(2000)는 문화를 언어 교육의 문화적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개념화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문화를 전달하거나 습득하게 할 내용이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하여 인간 이해 태도를 발달시키면서 그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Beacco(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⁰⁾

9) Louise Daman.(1987), *Culture learning. 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Learning Classroom*.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pp. 211-216.

10) Beacco J. C.(2000), *Les dimensions culturelle des enseignements de langue*, col. F, Paris, Hachette. p. 192.

<표 1> Beacco(2000)의 문화 개념

문화의 개념	문화 해석
전통적 개념	사회, 역사 지리 등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것. 정보가 담긴 텍스트를 읽는 것에 중심을 둔 개념이다. 주로 표면적이라서 해석적인 면이 필요 없이 이해된다.
기능주의적/ 실제적 개념	잘 모르는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개념이다.(외국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즉 이동하기, 식사하기, 숙박하기 등)
언어인류학적 개념	정해진 공동체 안에서 말(parole)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 체계의 내적 규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법적으로도 맞는, 가능한 언술 중에서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에 알맞은 것을 결정하는 문화 타입의 용례에 따라 좌우된다.
사회학적/ 인류학적 개념	교양문화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 교양문화는 예술, 문학 등과 같이 대부분이 미학적인 산물이다. 즉 미학적인 산물 위주의 교양문화에 제한되지 않는 문화 개념이다.
문화적 개념	문화적 텍스트(문학 텍스트를 포함하여)를 통해 아이디어의 교류를 중시하고,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며, 또한 실제 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적 개념	상호문화교육을 겨냥하는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역사교육과 관련된 제안을 하는 정신에 더욱 가까운 개념이다.

이들 문화에 대한 개념과 관점을 정리해보면 문화란 인간 삶의 총체물이라는 주장과 인간생활의 양식, 상징화된 의미의 체계, 어떤 사회적 힘, 혹은 스스로 변화하는 힘을 가진 존재, 구체적 실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위

의 연구사들을 살펴보면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보통 문화를 언어와의 상관성 또는 효율성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문화를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화의 개념적 내용의 특수한 면을 강조하거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통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문화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획득한 지식, 즉 한 집단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 집단에 의해 습득 또는 학습된 행위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지식이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나 명제와 서로 유사한 것이라면 그것은 문화적인 것이다. 따라서 언어도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배워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문화적 지식이다. 또한 한 나라의 문화란 그 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으로 다른 공동체와 구별시켜주는 어떤 공동체의 특징이다. 이 속성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감에 따라 가속적으로 배우게 된다. 따라서 문화는 지도되고 학습될 수 있는 것이다.¹¹⁾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개념과 관점에 대해 연구사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

Patrick R. Moran은 문화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것을 적용하면서, 또 어떤 관계의 힘, 즉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사람들을 통해 그 문화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학습자들이 교실 문화 학습모형으로부터 삶의 다른 방식으로 이동할 때, 문화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다.¹²⁾ 문화 교육의 목표에 대해 Seelye(1984)¹³⁾는 서로 다른 문화간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틀을 제시하면서 7가지의 문화 교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Seelye(1984)의 문화 교수 목표

1.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행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11) Easthope, Antony(1994),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임상훈 역, 현대미학사.

12) Patrick R. Moran - 『Teaching Culture, 문화 교육』, 정동빈 외 역(2004), 경문사.

13) Seelye, H. Ned.(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II: National Textbook Company. p. 301.

2. 나이나 성, 사회 계급, 거주 지역과 같은 사회 변수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3. 목표 문화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습적인 행동에 대해 학생들이 좀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
4. 목표어의 단어나 구절이 갖고 있는 문화적 함축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
5.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 사례를 제공해 줌으로써 목표 문화에 관해 얻게 된 일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
6. 학생들이 목표 문화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고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
7. 목표 문화에 관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문화 사람들에게로의 감정 이입을 촉진하는 것.

위에 제시한 Seelye(1984)의 문화 교수의 목표 7가지를 다시 풀어서 의견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행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 문화 이외의 문화적 행동을 이상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생각지 않도록 지도함을 목표로 한다.
2. 나이나 성, 사회 계급, 거주 지역과 같은 사회 변수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 나이, 성별, 사회계층 등의 사회적 변인이 사람들의 화법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3. 목표 문화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습적인 행동에 대해 학생들이 좀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
→ 목표 원어민들이 혼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습적으로 행동하는 가를 이해시킨다.
4. 목표어의 단어나 구절이 갖고 있는 문화적 함축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

→ 영어 단어와 표현을 그저 언어적인 뜻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미 문화가 각 단어에 부여하는 내포적인 의미까지도 알게 한다.

5.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 사례를 제공해 줌으로써 목표 문화에 관해 얻게 된 일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

→ 목표 문화의 일반화된 명제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경험과 관찰을 통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6. 학생들이 목표 문화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고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

→ 학습자들이 스스로 목표 문화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7. 목표 문화에 관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문화 사람들에게로의 감정 이입을 촉진하는 것.

→ 학습자들이 목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과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Seelye(1984)의 문화 교육의 목표 7가지는 한국어교육의 문화 교육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어 큰 비중을 두고 있다. Seelye(1984)의 문화 교육의 목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자들이 목표 문화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스스로 올바른 평가와 공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에 문화 지도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Seelye(1984)는 7가지의 문화 교수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원리를 5가지 제시하고 있었다.¹⁴⁾

1. 가르치는 언어를 통하여 문화에 접근하라.

2. 문화적인 행동에 관한 학습을 매 단원의 통합요소로 삼으라.

3.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회-경제적 능력을 성취하게 하는

14) Seelye, H. Ned.(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II: National Textbook Company. p. 301.

것을 목표로 하라.

4.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목표어 문화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화도 인식하게 하여 서로 다른 문화 간 이해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
5. 문화에 관한 모든 교수에서 행동 변화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작용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관용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다시 말해 문화 교육은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논의의 범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도 외국어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규정짓는 행동 양식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¹⁵⁾ 문화 교육과 관련된 외국어 교육에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는 문화의 보편성을 고려하여 한국 문화를 교육하려고 한다.

3)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내용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을 제재로 활용하여 언어와 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해 왔는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는 ‘과연 문학 텍스트가 언어와 문화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가’였다. 물론 언어와 문화 교육에서 문학 텍스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으나 반대론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문학 텍스트의 단점은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많은 이론적 연구가 증명하듯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¹⁶⁾

Lazar(1993)는 언어와 문화 교육에서 문학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⁷⁾

－ 문학은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 문학은 실제적이다.
- 문학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문학은 많은 실러버스의 토대가 된다.

15) II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16) 본 논문 3장에서 자세하게 제시할 것임.

17) 신윤경(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문학 텍스트 선정기준과 교수 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재인용.

- 문학은 다른 나라 문화 이해를 돕는다.¹⁸⁾
- 문학은 언어 습득에 효과적이다.
- 문학은 학습자들의 해석 능력 발전시킨다.

- 문학은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면서

- 문학은 고급의 자료와 품격을 가지고 있다.
- 문학은 학습자들의 언어적 인지를 확장시킨다.
- 문학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고무시킨다.

위에 제시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보면 문학은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데 일단 실제적인 자료이며, 학습자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품질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미있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또한 Wellek & Warren(1982)¹⁹⁾는 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다.

모든 예술은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감미로움’과 ‘유익한’ 것이다. 어떤 문학 작품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성공할 때에는 쾌락과 효용이라는 이 두 가지의 ‘특색’은 공존할 뿐만 아니라 합쳐져 있어야 할 것이다. 문학이 주는 쾌락은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쾌락 중의 그 하나가 아니라, 한층 더 고상한 종류의 활동의 쾌락, 즉 이해관계를 떠난 명상이기 때문에 ‘한층 더 고상한 쾌락’이라고 우리들은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학이 가진 효용—그 엄숙성과 교훈적인 점은 쾌락을 줄 수 있는 엄숙성, 즉 수행해야 할 의무의 엄숙성, 혹은 배워야 할 교훈의 엄숙성이 아니라, 미적인 엄숙성, 지각을 주는 엄숙성인 것이다.

또한 Wellek & Warren(1982)은 문학의 이론에서 돌이나 청동은 조각의 재료가 되고, 페인트는 그림의 재료가 되고, 음은 음악의 재료가 되는 것처럼 언어는 문학의 재료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어야말로 돌

18) Gillian Lazar(1993)에서 언어 교실에서 문학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 중 문화적 배경에의 접근으로 문학 작품은 학습자에게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통로는 문학작품은 그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회, 정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갖게 해 주고, 특정한 상황에서 목표 언어 문화권의 화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통로라고 하였다.

19) Rene Wellk & Austin Warren(1982), 『문학의 이론』, 김병길 역(1988), 을유문화사.

처럼 다만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 낸 창조물이며, 따라서 어떤 언어군의 문화적 유산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것 뿐 아니라, 그 언어에 담겨 있는 문화적 유산 또한 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학을 가르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Collie & Slater(2002)는 문학이 왜 언어 학습 과정에 유용한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첫 번째, 문학은 가치 있는 믿을 만한 자료로서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의 함양에 도움을 준다. 초급 단계의 학습이 끝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문장을 보아야 하는데 묘사하기, 서사하기, 풍자하기, 비유하기 등의 언어 능력을 익히려면 신문, 광고문 등에서 보충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문장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익히게 된다.

두 번째, 문학은 언어적 다양성과 풍성함을 제공한다. 문학 텍스트는 낱말개의 어휘나 통사적인 항목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풍부한 문맥을 제공한다. 실제적이고 문맥화된 작품의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학습자들은 문어의 많은 자질에 친숙해진다.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서 언어학적 단서들로부터 추론하는 능력과 문맥으로부터 추론하는 독해 능력을 발전시킨다.

세 번째, 문학은 문화적 풍성함을 제공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학 텍스트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사상, 감정, 관습, 소유물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감 있게 묘사된 사상적 세계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실제의 사회를 구성하는 규범과 선입견에 대한 느낌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네 번째, 문학은 독자의 인간적 참여를 촉진시킨다. 문학은 독자의 인간적 참여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언어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문학에 참여한다면, 문학은 학생들의 관심을 외국어 체계의 기계적인 측면들을 넘어서게 할 수 있다. 즉, 독자는 문학 텍스트의 독서과정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여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²⁰⁾

Adeyanju(1978)²¹⁾는 문학을 가르치는 목적을 크게 ‘장기적인 목적’과 ‘단기적인 목적’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먼저 ‘장기적인 목적’이란 다른 비문학적인 산문이나 글을 읽는 것과는 달리 문학작품을 통하여 즐거움과 만족을

20) J. Collie & S. Slater, Stephen, 조일제 역(2002), 『영어교사를 위한 영문학 작품 지도법』, 한국 문화사.

21) Thomas K. Adeyanju(1978), *Teaching Literature and Human Value In ESL : Object and Select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32.

언기 위한 것이며, 소위 문학적 체험(Literary Experience)이라고 일컫는 과정을 통하여 문학에 대한 감상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또한 문학을 통해 보다 고양된 인격을 형성하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지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숙한 사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문학을 통한 간접적이고 대리적인 문학적 체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 단기 목적은 문학을 통하여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문학 교육의 연구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문학 교육의 연구 양상

본 항에서는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문학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 양상을 검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한국어교육 전반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교수법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문화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의 의미,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 교육과 관련된 이론과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의 개념을 최준식(1997)은 문화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담은 총체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문화를 정의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다룰 수 없다고 하면서, 논의의 편의상 문화는 대체로 유형적인 것(물질문화)과 무형적인 것(비물질 문화)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²⁾

한상복 외(1997)에서는 문화를 한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로 해석하는 총체론적 관점과 실제적인 행동으로서의 말과 행위,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 또는 원리로 구별하여 문화를 후자로 한정하는 관념론적인 관점의 두 범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관념론적 관점에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곳이나 점을 보는 행위를 하거나 이사를 할 때, 택일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화라기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한 관념 체계 및 규칙 체계가 곧 문화라고 하였다.²³⁾

22) 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23) 한상복 외(1997),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출판부.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의 범주는 크게 ‘언어문화’와 ‘일반 문화(문화 일반)’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²⁴⁾

<표 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의 개념

	언어문화	일반 문화(문화 일반)
박갑수(1999)	언어에 의해 형성된 문화	언어의 배경으로서의 문화
민현식(2003)	모든 문화 중에 언어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문화 현상만을 가리키는 제한적 정의 방식	모든 문화 영역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가리키는 포괄적 정의 방식
김대행(2003)	언어가 현현되는 형식의 단위 에 따른 분류	언어에 현현되는 내용에 따른 구분
조항록(2004)	언어가 투영된 문화적 함의	언어를 통해 산출되는 문화적 양상
김종철(2005)	언어로 이루어지는 문화	언어가 다루는 문화
권오경(2009)	언어 자체에 내재된 삶의 방 식으로서의 문화	언어활동에 필요한 배경지식으 로서의 문화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방향에 대해서 김정숙(1997)은 문화 교육이 정보 전달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언어 학습은 언어와 문화의 상호 교육과정이므로, 언어 교육도 언어와 문화를 통합해 실시되어야 하며, 초기 교육 단계에서부터 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²⁵⁾ 김정숙(1997)의 경우 초급 단계에서부터 문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만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실재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연구의 아쉬움이 남았다.

조항록(2000)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문화 교육 자체도 중시하였다. 그는 초급에서의 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외국어 학습 동기가 특정 영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다면, 그것에 필요한 언어적 능력의 발달 단계와는 무관하게 문화적 숙달도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였다.²⁶⁾

최정순(2004)은 언어와 문화가 양립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문화라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학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항목을 정해 놓고 백과사전적으로 교수-학습되

24)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5)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 한글』 10, 한글학회. p 317-325.

26) 조항록(2003),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이중언어학』 제21호. p 153-173.

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⁷⁾ 최정순(2004)의 연구는 본 논문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를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닌 인지 차원의 습득이라는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배현숙(2002)은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는 수단이 아닌 궁극적 목표 설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식주 항목에 치우친 언어문화 교육을 지양하고, 점차적으로 거기에 내재된 객관화된 가치와 사고 체계를 선정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⁸⁾

김수현(2006)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방향에 대해 문화 내용의 제시, 학습자의 요구, 교사의 역할 세 가지 측면으로 논하였다.²⁹⁾

권오경(2006)은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방향을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신장 중심에서 (광의의) ‘문화 능력(culture competence)’ 신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 능력을 협의의 문화 능력과 광의의 문화 능력으로 나누고, 언어문화는 협의의 문화 능력에 해당하며, 협의의 문화 능력에 일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을 광의의 문화 능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화 능력의 향상을 위한 학습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동반한다. 그래서 한국 문화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교육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³⁰⁾ 다음은 권오경(2006)이 주장한 ‘의사소통 능력 중심

27) 최정순(2004),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의 등가적 통합」, 『언어와 문화』, 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6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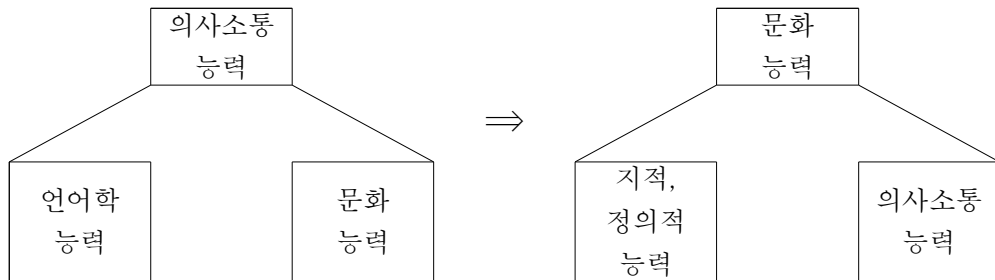
28) 배현숙(200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p 178-198.

29)

문화 내용 제시의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급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문화 내용을 제시하며 급이 올라갈수록 깊이 있는 내용으로 확대한다. 2. 문화 내용을 언어 교육과 상관없이 쉬어 가는 과정이나 흥밋거리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 문화 내용은 학습 동기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다.
학습자 요구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문화 항목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교육 과정은 학습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다양하고 실제적인 문화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교사의 역할 측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타문화에도 관심을 가져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사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 세미나 및 학회 등을 통해 교수 학습 경험을 공유한다. 3. 교사는 다양한 학습자료 개발 및 제시를 통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화에 관해 흥미를 갖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서 문화 능력 중심으로 전환’을 시각화 한 것이다.

<그림 1> 의사소통 능력 중심 교육에서 문화 능력 중심 교육으로 전환³¹⁾



이와 비슷한 문화교육 방안으로 임경순(2006)을 들 수 있는데 임경순(2006)은 언어문화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이념(목적)을 ‘문화 능력’ 신장으로 보고, 바람직한 문화 능력을 갖춘 인간상을 지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³²⁾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는 한국어 능력, 다시 말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을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에 국한시키느냐 문화 능력으로 보느냐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문화의 개념 범주를 세 층위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층위는 좁은 의미의 한국어 문화이고 두 번째 층위는 넓은 의미의 한국어 문화이며, 세 번째 층위는 한국 문화 일반이다.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국어 문화 능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 영역은 한국에 대한 문화지식으로서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언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세 번째 영역은 한국에 대한 문화 지식으로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어문화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 일반 영역을 다루게 되더라도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자료나 언어활동을 위한 기능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³³⁾

외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의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30) 권오경(2006),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p 389-431.

31) 위의 시각화한 것을 정리하여 보면 문화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적, 정의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의사소통 능력이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2) 임경순(2006), 「문화중심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pp 293-320.

33)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로 본 논문에서는 Beacco(2000)에서 제시한 문화의 개념 중 ‘문화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적 텍스트(문학 텍스트를 포함하여)’를 통해 아이디어의 교류를 중시하고,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며, 또한 실제 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로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연구로는 황인교(2008)가 있다. 황인교(2008)는 국내 대학 부설 기관 한국어학당의 문화 교육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황인교(2008)의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문화 교육 목표³⁴⁾

급	목표	정리
1급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회활동에 적응력을 갖는다.	기본 생활 적응 및 문화 이해
2급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지만 아직 이해의 정도가 충분하지는 못하고 학생의 모국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급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한국의 예절과 풍습)에 대해 정보를 구하고 소개할 수 있다.	문화 수용
4급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한국의 풍습, 미신, 속담 등)를 이해한다.	
5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일부 방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향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적 소개 및 설명 문화 소통
6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준비된 내용으로 한국의 역사 및 전통 문화, 지역별 특성의 소개 및 안내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문화 교육의 목표를 외국인 학습자 등급에 따라 초급에서는 기본적인 한국 생활의 적응 및 간단한 한국 문화의 이해, 중급에서는 한국 문화의 수용, 고급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전문적 소개와 설명,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소통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등급별로 제시한 한국 문화 교육 목표에 대한 세부 항목 및 그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여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를 교육할 때 해당 단계의 목표로는 참고할 수 있으나 문화 항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곽지영 외(2007)³⁵⁾에서는 황인교(2008)에서 제시한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34) 황인교(2008), 「외국인을 위한 문화 교육의 실제」,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비교문화 연구소 가을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 20.

35) 곽지영 외 (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교육기관의 문화 교육 목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급별 교수요목 설계의 예를 제시하였다. 급별 교수요목에서 항목 설정을 자모 체계, 발음, 어휘·문법, 의사소통 능력, 사회 문화적 능력 등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문화 영역과 관련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4> 광지영 외(2007)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 급별 문화 영역 학습 목표

급	사회 문화적 능력
1 급	한국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회활동에 적응력을 갖는다. 1) 인사말 중에 ‘어디 가요?’, ‘결혼했습니까?’ 등과 같은 개인적 질문을 친숙함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가족관계 어휘 구별 3) 화자와 청자의 관계: 상대 높임, 자기 낮춤 4) 관계에 따른 호칭 5) 의식주 6) 상황에 따른 표현: 공식적 표현, 문어체 등.
2 급	1)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지만 아직 이해의 정도가 충분하지는 못하다. 2) 학생의 모국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화적인 내용을 언어 학습의 주제와 연결해서 배운다. 예) 식사습관, 교통 문화, 물건 사기 등.
3 급	1)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를 구하고 소개할 수 있다. ①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간단히 소개할 수 있다. ② 일상생활에서 한국의 예절과 풍습 등을 소개할 수 있다. ③ 한국 풍습, 예절 등에 대한 지식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적인 일을 어렵게 처리할 수 있다. ① 외국인에게 필요한 공적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②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공공장소에 문의할 수 있다.
4 급	1) 전문적인 것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직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한다. 3) 전화 대화나 방송의 알림, 방송 보도 등을 이해할 수 있다. 4) 직설적이고 개인적 흥미 또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텍스트라면 이를 이해하고 그 텍스트로부터 다음 단계의 진술이나

	주제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5) 일상적 사건에 대한 글뿐만 아니라 실용문, 일상적 주제에 대한 간단한 글쓰기를 할 수 있다. 6) 자신의 학력, 경력 등 자신의 신상 자료의 요약을 쓸 수 있다.
5 급	1) 교양적인 내용의 담화가 가능하고 매우 전문적 주제가 아니라면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교환 등이 가능하다. 2) 한국에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수행할 수 있다. 3)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4)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공공 기관에 자신의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 등을 호소할 수 있다. 5) 일부 방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향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6 급	1)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텍스트 생산이 가능하다. 2) 한국 대학생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내용에 대한 집단적인 토론 및 사회자 역할을 할 수 있다. 3) 한국에서 조직체 및 기업의 운영이 가능하고 조직 운영과 관련된 지시 및 비판, 토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재판, 소송과 같은 공적 업무의 이해와 참여가 가능하다. 6) 준비된 내용으로 한국의 역사 및 전통 문화, 지역별 특성에 대한 소개 및 안내가 가능하다.

성기철(2001)도 한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표 5> 성기철(2001)의 한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화 교육의 목표

상위 목표	문화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기여한다.
하위 목표	1. 문화 다원성 이해: 다른 문화의 존재와 가치를 이해하게 한다. 2. 일상적 생활 방식 이해: 대다수의 보편적 일상 생활 및 활동 방식을 이해하게 한다. 3. 보편적 사고방식 이해: 대다수의 일상 생활에서 구현되는 생각의 방식을 이해하게 한다. 4. 보편적 문화 지식 이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식적 문화 지식을 이해하게 함. 5. 언어와 문화의 관계 이해: 언어와 문화가 상호 반영되는 현상을

	이해하게 한다.
	6. 인위적, 자연적 산물 이해: 인간의 활동 결과물, 그리고 자연적 산물을 이해하게 한다.
	7. 문화 이해와 실천 태도: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해 보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를 갖게 한다.
	8. 일상생활 적응력: 문화 이해를 통해 일상생활에의 적응력을 길러준다.

성기철(2001)은 한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화 교육의 목표는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상위 목표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모든 등급에 해당하는 공통적 목표라고 한다면, 하위 목표가 등급별 세부 목표가 될 것이다. 다만 하위 목표를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한재영 외(2004)에서는 성기철(2001)의 문화 교육의 목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등급에 맞게 문화 교육의 목표를 세분화 하고 있었다.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한재영 외(2004)³⁶⁾ 등급별 문화 교육 세부 목표

등급	문화 교육 목표 내용
초급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 일상생활에 관한 말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다. · 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이해한다. · 문화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한국 문화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중급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한다. ·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과 의사소통 요령을 터득하여 일반적인 화제에 대하여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한다. · 한국어의 언어 표현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한다. · 한국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한다. · 한국의 사회 제도와 풍습을 이해한다.

36) 한재영 외(2004),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p 515~519.

고급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로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한다. · 일반적 주제 및 추상적 내용의 말이나 글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해한다. · 문화 현상의 심층적 의미를 이해한다. ·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적 특성을 바르게 소개한다. · 상호문화적인 이해를 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다.
--------	--

외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문화 교육의 목표를 공통적인 목표와 등급별 목표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먼저, 공통적인 목표라는 것은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하는데 모든 급에서 통용될 수 있는 문화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면서 의사소통 상황과 담화 상황에서 문화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의 설정은 문화교육의 본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는 한국 생활과 더 나아가 한국 사회까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데 공통 목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등급별 목표라는 것은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의 등급에 맞는 문화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초급의 목표는 ‘외국인 학습자가 문화 충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중급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직접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고급의 목표는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 비교를 넘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까지 이해할 수 있다’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목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본 논문에서 선정한 문화 교육의 목표

분류	문화 교육의 목표	
공통적인 목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면서 의사소통 상황과 담화 상황에서 문화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등급별 세부 목표	초급	외국인 학습자가 문화 충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중급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직접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고급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 비교를 넘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까지 이해할 수 있다.

초급에서의 목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 차이로 인한 기본적인 문제(실생활에서 문화 차이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급에서는 초급에서보다 문화목표의 범위가 넓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의 이해를 넘어 문화 비교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고급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은 초급과 중급에서 한국 문화의 이해와 자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 비교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을 것이다. 고급에서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까지 한국 문화 이해의 폭을 넓혀 한국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내용별로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문학 교육의 위상이나 목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과 두 번째, 문학 텍스트 선정과 문학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문학 텍스트를 이용에 관한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³⁷⁾

문학 교육의 위상이나 문학 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로는 황인교(2001)가 있다. 황인교(2001)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문학 자료의 교수 및 활용에 대한 논의 없이도 상당량의 문학 자료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자료가 일

37) 신윤경(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상성과 실제성이 부족하므로 비중을 낮추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저조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문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교수 현장에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문학 교수를 도모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³⁸⁾

황인교(2001)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로서의 문학의 위상을 구축하고 그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윤여탁(2003)은 문학 작품은 언어활동의 구체적인 실현이자 살아 있는 언어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교육은 곧 언어 교육 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어와 문화 교육에 있어 문학 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문학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주은정(2002)이 있다. 주은정(2002)은 단편 소설과 전래 동화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이라는 방법으로 수업 단계와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은정(2002)의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교육 방안을 제시만 하여 문학 교육에 있어 다양한 텍스트의 선정과 그에 따른 교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적 측면의 연구는 문학이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문학이 '문화 교육' 수행에 있어서 하나의 제재로서 중요한 지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권오경(2006)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를 교육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한국 문화의 특징이나 정체성, 그리고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내용 설정이나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행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문화 교육이 단순히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만 간주되고 있어 문화 교육이 결국 언어의 표현과 이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한국어교육의 궁극적 교육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둘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의 이해를 통한 공동체적 삶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⁹⁾

38) 황인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 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

39) 권오경(2006)은 부연설명으로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결국 그 언어를 이용하여 개인과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 문화의 이해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현재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 이성희(1999)는 설화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정우(2001), 김지연(2001), 이선이(2003), 오세인(2003)은 시를 활용한 문화 교육을, 홍혜준(2004)은 고전문학을 통해 문화 교육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설화, 시, 수필, 전래동화 등의 다양한 문학 장르가 문화 교육의 제재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문학 작품 중 소설을 활용한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는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재에 교육적 의도로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도 이해하지 못하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어휘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한국 현대 소설을 이해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어휘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수영(2003)은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을 위한 시(詩) 텍스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텍스트 선정한 후, 문화 교육 모형에 맞춘 시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안미영(2005)은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수 방안으로 이청준의 단편 소설 눈길을 문화 교수의 제재로 사용하여 그 교수방안에 대해 수업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이재석(2007)은 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문화, 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교육 방안을 이범선의 <오발탄>과 권정생의 <강아지똥>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

문보경(2009)은 고급 수준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활용하여 언어능력, 문학능력, 문화능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두 연구들은 언어, 문화, 문학 통합적 한국어 교수 학습의 가능성과 방안을 소설 텍스트를 통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시사적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소설 텍스트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교육 내용 역시 소설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윤여탁(2013)은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에 맞게 초급부터 고급까지 문학 작품을 제시하여 성취 문화, 행동문화, 관념문화의 교수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그 교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의 실재를 보여주고 있었다. 초급에서는 기행문 ‘자이푸르 여행기’를 제재로 사용하였고 중급에서는 문학 작품 중 현대 시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재로 사용하였고 고급에서는 현대 소설인 신경숙의 ‘엄마

실천적 교육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문화 교육의 제재로 사용하였다.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는 예전에 비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에게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수 방안 역시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한국의 문학 작품 중 소설을 활용한 한국 문화에 관한 연구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에게 소설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연구 역시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 중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현대 소설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그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본 연구과 관련된 연구사를 밝힐 것이다. 연구사에서는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의 개념에 대한 연구사들과 문화 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볼 것이고, 다음으로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의 비판적 검토와 방향 제시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어떠한 방법론을 택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어교육에서 연구사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며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을 밝힐 것이다. 또한 외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와 관련된 연구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화의 개념 및 문화 교육의 목표를 선정할 것이다.

II장에서는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용 교재에서 문화 항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분석 방법은 현재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와 전권이 발행된 교재(초급부터 고급)를 선정하여 교재에 제시된 문화 항목이 해당과의 주제와 기능에 맞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 문화를 교육할 때 기존의 한국 문화 교육 방안과의 차별성으로 한국의 소설을 문화 교육의 제재로 활용하는 그 적합성에 대해서 밝힐 것이다.

본론에서는 서론에서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본 논문에서 다룰 문화 항목을 선정할 것이다. 문화 항목의 선정은 문화의 개념이 다양한 만큼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에서 등급별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 항목을 인용하여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보편적인 문화 항목을 선정할 것이다. 문화 항목의 선정 이후에는 선정한 문화 항목을 교육할 제재인 소설 텍스트를 선정할 것이다. 신윤경(2008)은 문학 교육을 위한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검증되었다는 것과 검증된 가치를 지닌 텍스트가 과연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텍스트의 새로운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⁴⁰⁾

본 논문에서의 소설 텍스트의 선정 기준은 공통 기준과 등급별 기준으로 나누었다. 공통 기준이란 것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이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교육할 때 모든 등급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등급별 기준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등급에 따른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설 텍스트 공통 선정 기준으로 설정한 첫 번째 기준은 ‘짧지만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는 텍스트’, 두 번째 기준은 ‘문화 교육의 제재가 되는 텍스트’, 세 번째 기준은 ‘문화 항목의 배경 지식이 되는 텍스트’, 네 번째 기준은 ‘문화 항목의 공유 텍스트’ 다섯 번째 기준으로는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한 텍스트’ 여섯 번째 기준으로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텍스트’로 여섯 가지의 텍스트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고, 등급별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으로 초급에서의 선정 기준은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고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3~4 문장 이내의 텍스트’, 중급에서의 선정 기준은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문화어가 제시된 1~2 문단 이내의 텍스트’, 고급에서의 선정 기준은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화어가 제시된 1~2 단락 이내의 텍스트’로 한국 문화 교육 시 제재로 활용할 소설 텍스트 선정기준을 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이론적 배경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소설 텍스트 선정 이후에는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교육 방안의 실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반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본 논문에서 선정한 한국 문화 항목과 텍스트 선정 기준에 적합한 소설 텍스트를 문화 항목 교육의 제재로 활용하여 해당 문화 항목을 교육할 것이다.

문화 항목에 대한 교육은 기존의 교육과는 차별성을 두고 단계를 위계화 시켜 문화 항목을 소설 텍스트에 적용해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

40) 신윤경(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 말하는 ‘단계’란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화 항목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학습자 자신이 이해한 한국 문화에 대한 적용, 생산을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하여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학습자가 직접 평가를 하는 자가 평가 통하여 해당 한국 문화 항목을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평가를 하겠다.



II.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양상 검토와 방향성 모색

본 장에서는 현행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교육에 대한 양상을 비판적 검토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화 교육 연구는 본 논문 I 장 서론의 연구사 검토 부분에서 밝혔기 때문에 본 장에서의 양상에 대한 검토는 한국어교육용 교재(한국어 통합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용 교재(한국어 통합 교재) 교수요목을 등급별로 분석을 하고 다음으로는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와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본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도 제시할 것이다.

1. 한국어교육용 교재의 문화교육 양상 검토

현행 한국어교육기관은 예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재의 종류와 양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교육용 교재라고 하면 흔히들 말하는 것이 어휘, 문법, 표현과 한국어의 여러 영역에 대한 기능별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 통합교재와 기능 영역별로 따로 분리된 교재를 말한다.

김수현(2006)은 현재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러 기관에서 수업 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용 통합교재에서 문화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교재마다 문화 교육에 관한 인식이 다르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어교재를 살펴보면 이전은 문화를 소개하는 측면이었다면 이후는 문화를 별도로 제시하여 부각하고 있다. 두 번째, 중급 이후의 교재부터 문화 항목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초급에는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문화 항목을 제시하는 반면 외국인 학습자의 해당 수준이 올라갈수록 문화는 더 심화되어 제시되어 있다. 세 번째, 교재의 구성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교육용 통합교재를 살펴보면 교재의 교수요목에 문화를 제시할 때 각양각색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교재마다 문화 항목의 비중이 차이가 난다. 각 교재별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의 수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수준별 문화 항목이 통일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림, 사진 등 시각적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재를

보면 문화 항목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 부분을 보면 주로 텍스트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낯선 한국 문화 항목을 가르칠 때 낯선 언어 표현보다는 시각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어려운 텍스트보다는 시각 자료가 더 낫다는 이야기다.

한국어교육용 교재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문법 중심의 교재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재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재에서는 문화 항목을 따로 교수요목에 제시하여 교재를 구성한 것이 있고 본문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교재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A, B, C 대학의 기관 교재를 선택하였는데 그 근거는 세 기관의 한국어교육용 교재가 모두 의사소통 중심의 통합 교재라는 점이고, 또한 교수요목에 ‘문화’라는 항목이 따로 분류되어 있고, 초급부터 고급까지 전권이 편찬되어 있어 선정하였다. 비판적 검토를 통한 교재 분석은 동일한 기준을 세우고 분석을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기준을 세우고 분석을 하도록 할 것이다.

첫 번째 분석 기준은 ‘한국어교육용 교재에서 교수요목에 제시되어 있는 해당 단원의 주제 및 기능이 제시된 문화 항목과 연계성이 있는 가’, 두 번째 기준은 ‘문화의 유형 분류가 명확한 가’, 세 번째 기준은 ‘한국어교육용 교재에서 문화 항목으로 제시된 텍스트와 관련된 활동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가’를 기준으로 세우고 교재 분석을 할 것이다. 첫 번째 기준의 경우 해당 단원의 주제와 기능, 문화 항목이 연계되어야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이해도가 더 증가할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의 경우 해당 교재의 교수요목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문화의 범주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기준인 것이다. 분석의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용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에서 문화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성취 문화, 행동 문화, 정보 문화 중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의 경우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제시된 텍스트와 활동이 얼마만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단지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 초급, 중급, 고급 교재의 교수요목

교재 분석 시 각 기관 교재의 교수요목은 초급, 중급, 고급 모두 제시하지

않고 A대학의 경우 초급 (1), B대학의 경우 중급 (3), C대학의 경우 중급 (4)의 교수요목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관 교재의 교수요목은 해당 등급과 관계없이 일정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한 것은 A대학 초급(1권)의 교수요목에 제시된 각 단원의 주제와 기능, 문화 항목이다.

<표 8> A대학의 한국어 교재 『재미있는 한국어 1』의 교수요목⁴¹⁾

해당 급	해당과	주제	기능	문화
1급	1과	자기소개	· 인사교환 · 자기소개	인사
	2과	일상생활	· 일상 활동 표현	인사 2
	3과	물건사기	· 가게에서 물건 사기 · 물건 가격 물어보기	돈
	4과	일상생활 2	· 과거의 일과 규칙적인 일 상에 대해 말하기	시간과 주소 (쓰는 방법-순서)
	5과	위치	· 장소의 위치를 묻거나 가 르쳐 주기	감사(gratitude)와 사과(apology)
	6과	음식	· 음식 주문하기 · 음식 제안하기	한국의 상차림
	7과	약속	· 약속하기 · 제안하기	의례적인 표현 <‘생각해 보겠습니다’의 의미>
	8과	날씨	· 날씨와 계절 묘사하기 · 이유 설명하기	계절과 날씨
	9과	주말활동	· 주말 활동과 계획 표현하기	한국인의 주말 활동
	10과	교통	· 교통수단 알아보기 · 교통수단 말하기	서울의 대중교통
	11과	전화	· 전화 걸기	한국의 통신 문화
	12과	취미	· 경험과 취미 말하기	한국인의 취미 생활
	13과	가족	· 가족 소개 및 가족 구성원 묻고 답하기	가족 호칭
	14과	우체국 은행	· 우체국에서 편지 및 소포 보내기 · 은행에서 환전하기	한국의 신분 확인 수단
	15과	약국	· 증상 말하기 · 약 처방받기	약국

41) 문법 및 표현, 어휘 등은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화적 측면과 거리가 있어 배제하였다.

위에 제시한 A대학 한국어교재는 총 10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재의 중간에 문화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A대학의 한국어교재의 교수요목을 살펴보면 각 과에 주제와 기능, 문화 항목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주제와 기능과 문화의 연계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문화 항목을 주제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과에 제시 한 것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시는 교재에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 항목을 빼거나 부록으로 문화 항목을 따로 제시하거나 다음 과에서 학습할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것은 B대학 중급(3권)의 교수요목에 제시된 각 단원의 주제와 기능, 문화 항목이다.

<표 9> B대학의 한국어 교재 『연세한국어3』의 교수요목

해당 급	해당과	주제	기능	문화
3급	1과	취미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에 대해 말하기 · 취미 활동 설명하기 · 취미 동아리 소개하기 · 여가 생활 조사하기 	한국인의 여가 활동
	2과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기 · 편의 시설 이용하기 · 아르바이트 구하기 · 수리 요청하기 	이사 떡
	3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에 대한 관심 이야기하기 · 건강을 위한 운동소개하기 · 건강식 조사하기 ·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조사하기 	한국인의 건강식
	4과	공연과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안내하기 · 공연 예매하기 · 관람 소감 이야기하기 · 공연 추천하기 	사물놀이
	5과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소개하기 · 한국인의 특성 이야기하기 · 미담 소개하기 · 인터뷰하기 	세종대왕
	6과	모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행사 참여하기 · 안부 전하기 · 환영 모임에 초대하기 · 회식 모임에 참석하기 	모임문화

	7과	실수와 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 문화 충격 경험 이야기하기 · 사과하기 · 사과 경험 이야기하기 	문화 충격과 실수
	8과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유회 계획하기 · 언어 교환 일정 짜기 · 고민 말하기 · 상담하기 	한국의 학교
	9과	부탁과 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탁하기 I · 부탁하기 II · 거절하기 I · 거절하기 II 	언어 예절
	10과	어제와 오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회상하기 · 현재와 과거 비교하기 · 가정 표현하기 · 미래 예측하기 	한강의 과거와 현재

위에 제시한 B대학의 한국어교재는 총 10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단원에 큰 제목과 네 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한 기능은 네 개의 소제목에 해당된 기능항목이고 문화의 경우 한 단원을 통합할 수 있는 문화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위에 제시한 교수요목을 살펴보면 A대학의 교재와 동일하게 해당과의 주제와 기능은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화’라고 분류한 곳의 경우 제시하고 있는 문화 항목들이 해당과의 주제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제시 역시 교재의 마지막에 부록으로 ‘한국의 문화’라는 항목으로 따로 빼서 제시하거나 아니면 해당 단원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기능을 익히기 위한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것은 C대학 중급(4권)의 교수요목에 제시된 각 단원의 주제와 기능, 문화 항목이다.

<표 10> C대학의 한국어 교재 『이화한국어4』의 교수요목

해당 급	해당과	주제	기능	문화와 생활
4급	1과	만남과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과 각오 말하기 · 좋은 인관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 원만한 인관관계 유지 방법에 대한 강연 듣기 · 특별한 만남에 대한 서술의 글 읽고, 쓰기 	한국인의 정
	2과	문제와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건 전화로 반품 요청하기 · 공동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 이웃 간 소음 문제에 대한 캠페인 듣기 · 생활의 불편한 점에 대한 투고의 글 읽고 쓰기 	신문고
	3과	TV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같이 볼 TV프로그램 정하기 · TV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 TV 안 보기 운동에 대한 인터뷰 듣기 · TV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의 글 읽고 쓰기 	한국인과 TV
	4과	진로와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에게 조언하기 · 후회 없는 진로 선택을 위한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과의 인터뷰 듣기 · 직업 유형에 대한 분류의 글 읽고 쓰기 	시대별 인기 학과
	5과	여행과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조건에 맞는 여행지와 숙소 추천하기 · 성공적인 축제를 만드는 	한국인과 여행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 안동 탈춤 축제에 대한 광고 듣기 · 한국 전통 테마 여행에 대한 기고의 글 읽고 쓰기	
	6과	음식과 건강	·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 추천하기 ·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토의하기 · 바른 먹을거리 확인 방법에 대한 강연 듣기 · 맛 집 탐방 글 읽고 쓰기	음식 궁합
	7과	명절과 기념일	· 새해맞이 행사 소개하고 자신의 새해맞이 계획 말하기 · 새로운 기념일 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 기념일 문화에 대한 시민 인터뷰 듣기 · 명절의 유래와 풍습에 대한 소개의 읽고 쓰기	내 더위 사 가시오
	8과	결혼	·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식에 대해 말하기 · 결혼관에 대해 토의하기 · 신세대들의 결혼관에 대한 뉴스 듣기 · 결혼에 대한 설문 조사 보고의 글 읽고 설문지 작성 및 설문 결과 정리의 글 쓰기	함 사세요
	9과	이웃과 공동체	· 이웃돕기 행사 계획하기 ·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토의하기 ·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한 시민의 인터뷰 듣기 · 이웃 관계에 대한 칼럼 읽고 쓰기	상부상조의 정신, 품앗이

	10과	현대 사회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습관에 대해 말하기 · 현대 사회의 경쟁에 대해 토의하기 · 경쟁 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답 듣기 ·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주장의 글 읽고 사회 문제에 대한 주장의 글 쓰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	-----	-----------------	---	---------------

위에 제시한 C대학의 한국어교재는 총 10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단원에 영역별로 다양한 기능이 제시되어 있고 기능에 맞는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C대학의 한국어교재 교수요목을 보면 주제와 기능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그 과에서 배울 내용과 기능을 연계하여 담고 있지만 문화와 생활이라고 제시한 항목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한국 생활에서의 정보와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 또한 C대학의 한국어교재 교수요목에 제시한 ‘문화와 생활’이라는 용어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 문화와 생활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 두 용어를 묶어 하나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어 문화 항목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한국 생활에서의 정보도 아닌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 기관 한국어교육용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와 관련 활동이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초급, 중급, 고급 교재 내 문화교육을 위한 텍스트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는 성취 문화, 정보 문화, 행동 문화로 나누어 분석을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교재 분석 기준 중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는 기관별 교재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각 급당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로 분류하여 제시할 것이다. 다음은 A대학의 초급(1)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이다.

· A대학 초급(1)의 문화 항목 관련 텍스트 예

해당 단원: 4과
주제: 일상생활
등급: 초급
문화 항목 분류: 행동 문화
기능: 과거의 일과 규칙적인 일상에 대해 말하기
교수요목 분류: 문화

<문화>

시간, 주소 쓰는 방법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시간을 중복해서 쓰거나, 날짜를 쓰거나, 주소를 쓸 때, 어떤 순서로 씁니까?

How do you put together different time expressions or address when there are more than one expression in a sentence?

When you use more than one time expression, put the larger unit of time before the smaller one in Korean. Therefore when you make a phrase with 오늘, 오전, and 아홉 시, you have to say 오늘 오전 아홉 시. In terms of date of birth, the order should be like 1984년 3월 30일. The address is written in a same order as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내일 오전에 뭐해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morning?)

오늘 오후 세 시쯤 시간 있어요? (Do you have time at about 3 o'clock this afternoon?)

7월 12일에 만났어요. (I met him/her on the 12th of July)

저는 일본 도쿄에서 왔어요. (I came from Tokyo, Japan.)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해 제시한 텍스트의 내용을 보면 주제는 ‘일상생활’이고 문화 항목의 분류는 행동 문화에 속한다. 제시된 텍스트를 보면 영어로 기술되어 있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A대학의 한국어교재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문화 항목에 대한 텍스트 기술이 다 영어로 되어 있다.

교수요목에서 해당 단원의 기능은 ‘과거의 일 말하기와 규칙적인 일상에 대해 말하기’이다. 하지만 문화 항목은 ‘시간, 주소 쓰는 방법’이다. 여기서 해당 과의 주제와 기능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지만 문화 항목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해당 단원에서 제시한 문화 항목은 시간과 주소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화라는 항목으로 한국의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텍스트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생

활을 하면서 필요한 단순 정보 전달 또는 한국어 쓰기에서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방법을 전달해주는 텍스트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당 단원의 다음에 학습할 과의 주제가 ‘시간과 주소 쓰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제시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문화 항목을 교수하기 위한 텍스트가 아닌 한국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정보 제시로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B대학의 초급(2)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이다.

· B대학 초급(2)의 문화 항목 관련 텍스트 예

해당 단원: 3과

주제: 시장

등급: 초급

문화 항목 분류: 정보 문화

기능: 백화점 · 시장 · 슈퍼마켓에서 물건사기, 물건 주문하기

교수요목 분류: 문화

<한국의 시장>

여러분은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 어디로 가세요?

저는 값이 싸고 물건이 많은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에 자주 가요.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에는 물건을 직접 만드는 가게가 많아요. 가게들은 보통 밤 10시 30분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요. 새벽 3시쯤이 되면 손님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런 특별한 광경을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시장은 백화점보다 주차장과 쉴 곳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시장은 3일이나 5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신선한 식품을 싸게 살 수 있고 주인과 이야기해서 물건 값을 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장의 물건 값이 비쌀 때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저씨(아줌마), 너무 비싸요. 좀 깎아 주세요.”

한국에는 특별한 시장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시장은 한약을 많이 파는 경동시장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강남 꽃시장, 종로 보석상가, 그리고 악기로 유명한 낙원상가, 용산 전자상가 등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같은 물건들이 모여 있어서 다른 시장에서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경동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종로 보석상가

1.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에는 왜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2. 저는 신선한 채소를 싸게 사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3. 여러분 나라에도 특별한 시장이 있습니까?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을 보면 해당 단원은 3과이고 대상 등급은 초급이다. 주제는 시장이고 기능은 백화점 · 시장 ·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기, 물건 주문하기로 되어있다. 문화 항목은 ‘한국의 시장’으로 정보 문화에 속한다. 주제와 기능과 문화가 알맞게 제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내용을 보면 초급 외국인 학습자를 고려하여 설명문보다는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텍스트 중간에 사진을 제시하여 초급 외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도왔다. 다만 여러 종류의 시장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이 텍스트에서 한국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기 힘들 것이다. 또한 텍스트와 관련된 질문을 보면 텍스트를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의 질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 이 텍스트를 문화라는 항목으로 따로 빼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본 수업에서 활용하면 더 교육 효과가 높을 것이다. 다음은 C대학의 초급(2)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이다.

· C대학 초급(2)의 문화 항목 관련 텍스트 예

해당 단위: 2과

주제: 한국 생활

등급: 초급

문화 항목 분류: 성취 문화

기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정보 알려주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대화 듣기,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기, 이메일 읽고 답장 쓰기

교수요목 분류: 문화 알아보기

<독특한 호칭 ‘언니, 오빠’>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를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선배’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한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배를 ‘언니’, ‘오빠’ 또는 ‘형’, ‘누나’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로 친한 선배를 부를 때 언니, 오빠 또는 형, 누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처음 만났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상급생을 부를 때는 선배로 부르지만, 친해지면서 언니, 오빠 등으로 바꿔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관계의 호칭을 사용해서 친근함을 표현하는 한국인의 사고가 반영된 것입니다.

1. 한국 사람들은 왜 선배를 언니, 오빠, 형, 누나라고 부릅니까?
2. 여러분 나라에서는 선배를 어떻게 부릅니까? 혹시 특별히 사용하는 호칭이 있습니까?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을 보면 해당 단원은 2과이고 대상 등급은 초급이다. 주제는 한국 생활이고 기능은 한국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정보 알려주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대화 듣기,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기, 이메일 읽고 답장 쓰기로 되어있다. 문화 항목은 ‘독특한 호칭 ‘언니, 오빠’로 성취 문화에 속한다. 주제와 기능은 연관이 있지만 해당 문화 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독특한 호칭 ‘언니, 오빠’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접하는 것 중에 한국인들의 독특한 호칭 때문에 많은 문화 충격을 받기도 한다. 위의 텍스트는 그러한 문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인의 독특한 호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텍스트는 초급 학습자에 맞게 길이도 적당하고 사용 어휘 역시 어려운 어휘는 많이 없다. 다만 특정한 것을 일반화 시켜 외국인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내용에서 친하면 ‘언니, 오빠’라고 사용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한국인의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 시킨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활동을 보면 텍스트 자체의

내용 이해와 관련된 활동이 제시되어 있고 문화 항목을 이해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음은 각 기관 중급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다. 먼저 A대학 중급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대학 중급(4)의 문화 항목 관련 텍스트 예

해당 단위: 10과

주제: 결혼

등급: 중급

문화 항목 분류: 성취 문화

기능: 결혼에 대한 생각 이야기하기, 결혼 과정 설명하기, 결혼 관련 통계 자료 설명하기.

교수요목 분류: 읽기 활동

1. 다음은 한국의 전통 혼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 그림을 보고 전통 혼례가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을지 추측해 보세요.



- 한국의 전통 혼례를 설명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예측해 보세요.
-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예상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한국의 전통 혼례는 신부의 집에서 치러졌다.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이때, 함진아비가 신랑의 사주단자와 신부에게 줄 예물이 들어 있는 함을 지고 그 뒤를 따랐다. 혼례는 저녁에 치러졌는데, 혼인이 여자 중심의 의식이어서 달이 떠오르는 저녁에 신부가 달의 기운을 한껏 받기를 기원했기 때문이다. 신부 집에 도착한 신랑은 신부 어머니에게 신랑을 상징하는 나무 기러기 한 마리를 진한다. 그 후 신부가 초례청으로 나오면 신랑, 신부는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혼례를 치른다. 혼례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한다는 의미에서 손을 씻는 순서로부터 시작되어 신랑 신부 맞절, 둘로 나뉜 표주박으로 술 마시고 잔 합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혼례가 끝나면 신랑 신부는 신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신랑 집으로 가, 신랑의 부모님과 일가친척에게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인사를 드리는데 이를 폐백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 ‘장가가다’와 ‘시집가다’라는 말이 ‘결혼하다’의 의미로 쓰이는데, 한국의 전통 혼례 풍습을 알면 왜 그런 의미를 갖는지 알 것이다. 신랑이 장인 장모의 집에 가는 행위나 신부가 시집에 가는 행위가 모두 결혼 절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전통 혼례는 어디서 치러졌습니까?
- 2) 함진아버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 3) 전통 혼례는 어느 시간에 치러졌으며, 그 시간에 치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전통 혼례에 쓰이는 새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 5) 전통 혼례에서 표주박은 어떻게 사용되며, 어떤 의미입니까?
- 6) 폐백은 무엇입니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그림을 보면서 전통 혼례의 절차를 설명해 보세요.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을 보면 해당 단원은 10과이고 대상 등급은 중급이다. 주제는 결혼이고 기능은 결혼에 대한 생각 이야기하기, 결혼 과정 설명하기, 결혼 관련 통계 자료 설명하기로 되어있다. 문화 항목은 전통 혼례로 성취 문화에 속한다. 주제와 기능과 문화가 알맞게 제시가 되었다.

텍스트의 내용을 보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먼저 그림을 통해 해당 문화에 대해 접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림을 통해 완벽히 문화 항목을 알지는 못 할 것이고 제시된 텍스트를 읽고 문화 항목을 이해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본 텍스트의 내용은 ‘한국의 전통 혼례’에 대한 텍스트이다. 텍스트를 보면 여러 곳에 문화어가 등장한다. 아무리 중급이라고 해도 외국인 학습자라면 이해하기 힘든 어휘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재의 옆에 새로 나온 어휘로 영어 번역이 제시되었지만 문화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해를 잘 못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활동으로 문화어와 관련된 활동이 나오는데 이 활동들을 보면 텍스트를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의 활동만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의 전통 혼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텍스트가 훌륭한데도 언어 기능인 읽기 활동에만 목적을 두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에만 집중하여 활동을 구상하여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제시였다. 세부

내용 파악하기 활동 대신에 매체 영상을 활용하여 해당 텍스트와 비교를 해 보고 직접 외국인 학습자들의 눈에 문화어와 관련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다음은 B대학의 중급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B대학 중급(3)의 문화 항목 관련 텍스트 예

해당 단원: 5과

주제: 사람

등급: 중급

문화 항목 분류: 정보 문화

기능: 친구 소개하기, 한국인의 특성 이야기하기, 미담 소개하기, 인터뷰하기

교수요목 분류: 문화

<문화>

세종은 조선시대(1392~1910)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젊고 능력 있는 학자들을 기용하여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세종은 1446년 9월에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한글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때까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때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한글입니다. 세종은 또한 과학 기술 방면에도 관심이 많아 비가 온 양을 재는 측우기나 해시계, 물시계 등 과학 기구도 발명하였습니다. 세종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현대에도 한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1. 여러분 나라의 위인을 한 명 소개해 봅시다.
2. 왜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지 친구들에게 설명해 봅시다.

위에 제시한 텍스트는 B대학에서 제시한 문화항목을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이다. 텍스트 내용만 보면 한국의 역사적 인물 소개로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글로 충분히 한국 문화를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소개 또는 교육할 수 있는 텍스트로 충분하다. 하지만 해당 단원의 주제는 ‘사람’이다. 그리고 해당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친구의 외양 묘사 또는 한국인의 특성 묘사하기 등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성격이나 외양을 묘사하는 표현이나 어휘 등을 학습하여 다양한 기능을 익히는 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원에서 제시한 ‘세종대왕’이라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는 기능과 주제와 맞지 않는 오히려 ‘세종대왕’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텍스트로 더 어울린다. 이러한 제시는 해당 단원의 기능과 주제를 고려하지 않은 제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텍스트를 보면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표현들과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외국인 학습자의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된 텍스트로 한국의 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운 어휘와 표현, 한국의 역사’라는 새로운 짐을 더 할 것이다.

오히려 위의 텍스트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단원을 선정하여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문화 항목에 대한 텍스트 마지막에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이해를 묻기 위한 질문을 보면 인물 소개를 묻고 있다. 이는 문화 항목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본 텍스트를 읽은 후 외국인 학습자에게 기능별 활동을 진행하는 일반 한국어 수업 같은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다음은 C대학의 중급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대학 중급(4)의 문화 항목 관련 텍스트 예

해당 단원: 3과
주제: TV와 생활
등급: 중급
문화 항목 분류: 행동 문화
기능: 친구와 같이 볼 TV프로그램 정하기, TV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TV 안 보기 운동에 대한 인터뷰 듣기, TV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의 글 읽고 쓰기
교수요목 분류: 문화와 생활

<문화와 생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주말 여가 활동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요일 시청률이 가장 높았으며 금요일이 가장 낮았는데 주 5일제 근무 등 생활 방식의 변화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교적 야외에서 여가를 많이 보내고 일요일에는 집에서 TV를 시청하며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시청 시간은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이며 소득이 적을수록 TV를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많은 시간을 TV와 함께 보내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시청 시간이 길었다.

TV의 시청 목적으로는 ‘습관적으로’ 시청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흥미·오락’을 위해 시청한다는 응답이 31.6%로 나타났다. TV 프로그램별 선호도는 드라마가 1위를 차지했고, 뉴스·보도가 2위, 예능이 3위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20대는 예능을, 30~40대는 드라마를, 50대는 뉴스보도를 주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2. 여러분 나라에서 이와 똑같은 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위에 제시한 텍스트는 C대학의 한국어교재 교수요목에 문화와 생활로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이다. 한국인의 여가와 관련된 문화를 설명한 텍스트로 행동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단원의 주제는 ‘TV와 생활’이라는 주제이다. 해당과의 마지막에 문화와 생활이라는 곳에 위와 같은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텍스트를 잘 보면 교수요목에 ‘문화와 생활’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화인지 어떤 부분이 생활인지 아니면 문화와 생활을 모두 담고 있는 텍스트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텍스트의 경우 그래프를 읽고 한국의 여가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서술문 형식으로 쓴 것이다. 이 텍스트의 경우 해당과의 읽기 자료로는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것을 ‘문화와 생활’이라는 범주 안에 넣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C대학 교수요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와 생활’이라는 용어 자체를 더욱더 애매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와 생활’이라는 관련 텍스트 마지막에 질문(활동)을 살펴보면 해당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질문 역시 ‘문화와 생활’이라는 항목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고 일반 한국어 수업

에서의 읽기 텍스트를 읽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얼마나 이 글을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오히려 외국인 학습자가 얼마나 ‘문화와 생활’에 대해 많이 이해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단지 해당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각 기관 고급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다. 먼저 A대학 고급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대학 고급(6)의 문화 항목 관련 텍스트 예

해당 단원: 2과

주제: 한국인의 의식구조

등급: 고급

문화 항목 분류: 성취 문화

기능: 의식의 형성 배경 설명하기, 의식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이야기하기, 예시하여 주장하기

교수요목 분류: 문화

‘눈치’로 알아보는 한국인

●여러분은 ‘눈치를 보다’라는 표현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여러분 나라의 언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음 글을 읽으며 ‘눈치를 보다’라는 표현 속에 담긴 한국인의 의식을 이해해 보자. 한국어에는 ‘눈치’라는 단어가 쓰인 관용어가 여럿 있다. ‘눈치가 빠르다’, ‘눈치를 보다’, ‘눈치가 없다’, ‘눈치를 채다’, ‘눈치 9단’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그 뜻을 이해하고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건 그리 쉽지 않다.

눈치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을 때에 맞게 미루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 의미 외에도 눈치에는 한국인만이 알고 있는 함축적 의미, 즉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눈치’는 뚝뚝함의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의 기분이 어떠한지 살핀 후 부탁을 한다거나 사무실 내에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피며 퇴근 시간을 결정한다거나 하는 행동이 바로 ‘눈치 있는’ 행동이다.

그렇다면 눈치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여럿이 함께 떡을 먹고 있다가 마지막 떡 한 점이 접시에 남게 되면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떡에 손을 대지 않는다. 누가 그 떡을 먹으면 좋을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떡이 남겨진 채로 자리를 뜨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 하나를 먹지 말자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하나를 먹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마지막 남은 한 개를 기피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한국인의 의식이 반영되어 그런 것이다. 즉 마지막 한 개를 먹으면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집단의 이익을 배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덕목이며 바로 이러한 생각이 ‘눈치’라는 표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의 눈치는 몇 단인가?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을 보면 해당 단원은 2과이고 대상 등급은 고급이다. 주제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이고 기능은 의식의 형성 배경 설명하기, 의식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이야기하기, 예시하여 주장하기로 되어있다. 문화 항목은 한국인의 의식구조 중 ‘눈치’로 성취 문화에 속한다. 주제와 기능과 문화가 알맞게 제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내용을 보면 먼저 ‘눈치’와 관련된 관용표현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한다. ‘눈치를 보다’라는 관용표현을 통해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파악해 보는 내용의 텍스트이다. 하지만 텍스트를 보면 마지막에 예를 들어 설명한 부분에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일반화의 오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시는 오히려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해 다른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B대학 고급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B대학 고급(6)의 문화 항목 관련 텍스트 예

해당 단원: 4과
주제: 바른 선택
등급: 고급
문화 항목 분류: 행동 문화
기능: 선거와 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기, 설득하기
교수요목 분류: 문화

<한국의 정치제도>

한국은 정치체도로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제란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되며, 대통령은 국가 수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다. 그리고 의회 의원과 행정부 각료의 겸직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행정부 각료의 의회 출석, 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억제와 균형을 위해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고위 공무원 임명에 동의권, 국정 감사권, 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가진다.

한국은 1948년 7월 20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국가대표 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어 제2공화국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잠깐 도입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이 무너지고, 7개월의 군정 이후 1962년 제3공화국 때에는 대통령제로 환원되었다. 그 후부터는 지금까지 줄곧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로 세분된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 최고 지휘권자와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1. 한국의 대통령제는 어떤 변화과정을 겪었습니까?
2. 여러분 나라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3. 여러분 나라의 정치제도와 한국의 정치제도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을 보면 해당 단원은 4과이고 대상 등급은 고급이다. 주제는 바른 선택이고 기능은 선거와 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기, 설득하기로 되어있다. 문화 항목은 ‘한국의 정치제도’로 행동 문화에 속한다. 주제와 기능은 연관이 있지만 해당 문화 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의 정치 제도’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한국어 고급 학습자라면 대학 또는 학부 과정의 외국인 학습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한국의 정치 제도는 중요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를 보면 전문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것을 일선 교사가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외국인 학습자 역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부담감이

생길 것이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연습 활동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텍스트와 관련된 연습 활동의 경우 해당 텍스트를 읽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도의 질문만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교재에서 문화라는 항목으로 따로 분류를 한 의미가 없는 활동인 것이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의 모문화와 문화간 상호 비교를 하는 활동이 나오는데 대통령제와 정치 제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활동이고 심하면 외국인 학습자간 언쟁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C대학 고급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대학 고급(5)의 문화 항목 관련 텍스트 예

해당 단원: 6과
주제: 소식과 정보
등급: 고급
문화 항목 분류: 정보 문화
기능: 친구에게 소식 전달하기, 회사 공고 보고 정보 전달하기, 여행지 소개 글 읽고 쓰기
교수요목 분류: 문화와 문학 - 언어와 생활

<통신 생활과 이모티콘>

여러분은 인터넷 채팅이나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자주 이용합니까? 인터넷 채팅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위의 그림에서 본 기호들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컴퓨터나 휴대 전화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모아서 만든 그림 문자를 이모티콘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인데 ‘그림말’이라고도 합니다.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전달하는 내용에 감정을 넣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문자와 함께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모티콘은 친구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재미있는 의사 전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문서나 이메일에서는 이모티콘을 주의해야 합니다. 글이 진지해 보이지 않고 잘못하면 장난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은 상황에 맞게 가려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채팅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2.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이모티콘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을 보면 해당 단원은 6과이고 대상 등급은 고급이다. 주제는 소식과 정보이고 기능은 친구에게 소식 전달하기, 회사 공고 보고 정보 전달하기, 여행지 소개 글 읽고 쓰기로 되어있다. 문화 항목은 ‘통신 생활과 이모티콘’로 정보 문화에 속한다. 주제와 기능은 연관이 있지만 해당 문화 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통신 생활과 이모티콘’으로 주제와 기능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텍스트의 내용을 보면 휴대 전화나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모티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텍스트에 제시된 어휘와 표현의 경우 고급 외국인 학습자라면 충분히 이해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내용을 보고 사적인 상황에서는 이모티콘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 것이고 공적인 상황에서는 이모티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이다. 하지만 텍스트의 내용은 문화와 문학이라는 파트에서 제시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국제통용 한국어표준모형 2단계에서 통신언어가 정보 문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모티콘을 사용하기’와 관련된 텍스트를 문화 항목을 가르치는 곳에 포함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한 단원을 학습하고 ‘쉬어가기’라든가 ‘유용한 정보’ 같은 곳에서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오히려 과거와 현재의 통신언어 발달 같은 것이 텍스트로 제시되었다면 더 적절할 것이다. 제시된 연습 활동 역시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교재의 교수요목을 분석하여 교수요목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 기능, 문화 항목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A, B, C대학의 한국어교재 모두 주제와 기능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문화’라고 교수요목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은 앞의 주제와 기능과의 연관성은 없었다. 또한 교재마다 문화를 교수요목에 제시할 때 용어가 달라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재의 중요성은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교재를 부르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교재, 부교재’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한국어교재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명칭인 것이다. 이렇듯 한국어교재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중요한데 한국어교재에서 다루는 문화 항목이 해당 단원의 주제와 기능과 연관성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재에 문화 항목을 제시할 것이라면 명확한 근거와 그에 맞는 텍스트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재에 모든 것을 제시하려고 문화 항목을 넣는 것은 해당 주제와 기능과도 연관성이 없어 오히려 외국인 학습자에

게 더 많은 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접근 전략

본 절에서는 위 연구사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와 문학 교육과 관련된 연구 양상의 비판적 검토와 한국어교육용 교재 중 통합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 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 성기철(2001)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었다.⁴²⁾ 제시한 개선 방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학술적 측면’에 대해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자와 현장 교사간의 긴밀한 협동을 통해 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좀 더 학술적인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되어, 현장 교육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 이해 측면’에 대해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문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인력의 저변 확대가 요구되고 여기에는 교육 정책 입안자, 연구자, 교육과정 입안자, 교재 제작자, 교사 모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는 ‘교과과정과 교재 측면’에 대해 제시하면서 문화 교육을 포함하는 정밀한 교과과정의 제작이 필요하고, 이 교과과정에는 학습 내용이 되는 문화 요소와 지도순서 등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체계화되어야 하며, 지도 방법이나 평가 방법 및 기타 지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이에 근거한 교재가 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는 ‘문화 요소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화 요소는 일정한 기준 또는 원리에서 정선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해당 문화 요소가 가진 여러 내용 중에서 다시 학습 내용이 명시화되어야 한다. 제시된 문화 요소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실제 교육 내용은 교사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고, 교육의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는 ‘문화 반영 언어 측면’에 대해 제시하면서 문화 요소는 읽기에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지만, 듣기, 말하기, 쓰기에 모두 반영하도록 해야 하고 또 실제 학습 지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문화 요소가 반영되는 언어 자료의 구성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로 제시한 것은 ‘문화 요소 반영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는 언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42) 성기철(2001),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 130-131.

완전 통합되는 방법이 이상적이다. 다만 부분적 통합 방법이나, 언어와 관련한 문화 노출 또는 체험의 방법 등이 함께 원용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이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문화 요소 반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일곱 번째는 ‘문화 교재 측면’에 대해 제시하면서 최근 한국어교재의 교수요목에서 문화 요소 소개 고정란은 생활의 길잡이 정도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대체하고, 문화는 언어에 완전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에서 문화 요소에 대한 소개 및 제시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교사의 지식 측면’을 제시하고 있었다. 해당 문화 요소를 가르치는 교사는 우선 자국 문화에 대한 정밀한 통찰이 필요하지만,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교육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문화 전반 또는 언어가 작용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때, 수요자의 요구를 더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홉 번째는 ‘교육 기관 측면’에 대해 제시하면서 한국어교육 기관 사이의 협력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관별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과정, 교재 편찬, 교수 방법, 평가 등에 축적된 총역량을 함께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열 번째는 ‘현실적 측면’으로 문화 교육 자체가 자리를 잡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문화 교육 평가의 문제는 별로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적절한 평가 방법 개발에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성기철(2001)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개선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제 제시가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위 연구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본 절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할 것이다. 먼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를 교육할 때, 위계화 시킨 단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본 논문에서의 위계화 시킨 단계와 그에 따른 내용을 제시할 것이고, 또한 한국 문화 교육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 문화를 교육할 때 문학 작품 중 소설을 선택한 이유와 문화 교육의 제재로 소설 텍스트가 왜 적합, 타당한지 근거를 통해 밝힐 것이다.

1) 단계별 접근 전략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현대 소설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위계화 시킨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해, 적용, 평가, 생산의 4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의 위계화를 시켰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단계의 이론적 배경으로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과 Anderson & Krathwohl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과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의 틀을 인용하여 단계별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중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은 Anderson & Krathwohl, Marzano의 교육목표분류학연구의 기본적인 틀로 인용이 되었지만 이후 여러 연구에서 한계점과 문제점 등⁴³⁾이 지적되었고 교육 관련 학자들에게 각 유목의 난이도 위계에 대한 여러 지적을 받았다.⁴⁴⁾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점들은 보완하여 수정한 모형이 Anderson & Krathwohl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과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이라고 할 수 있다.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은 학습의 인지 과정을 6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⁵⁾

<표 11>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의 인지적 영역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	
단계	내용
지식(Knowledge)	이미 배운 내용을 기억하여 재생하는 능력
이해(Comprehension)	내용의 의미를 파악, 해석, 추론하는 능력
적용(Application)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
분석(Analysis)	정보를 분해하고, 부분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종합(Synthesis)	자료를 정리, 조직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능력
평가(Evaluation)	주어진 내용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준거와 기준을 활용하는 능력

Anderson & Krathwohl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은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의 1차원적 구조를 2차원 구조로 인지적 차원과 지식적 차원을 고려하여 그 구조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식 차원과 인지 과정 차원을 독립 시켜서 대상으로서의 지식에 인지과정(기억, 이해, 적용 등)이 작용하여 인간의 사고나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에서 인지적 영역을 6개의 범주로 명사화 시키고 있지만 Anderson & Krathwohl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에서는 ‘이해한다, 적용한다’ 등 행위 동사

43) 원리의 교육적 문제, 원리의 중립성 문제, 지식영역 구분의 모호성, 유목의 위계와 타당성.

44) 김진희(2013), 「Marzano의 신 교육분류학을 적용한 문법 영역의 수업목표 진술 및 평가 문항의 설계」,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7집 2호, p. 135-140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45) 강현석(2012), 『새로운 교육목표 분류학』, 도서출판 원미사. pp. 26-31.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로 제시하고 있다.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Anderson & Krathwohl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의 이차원 구조⁴⁶⁾

인지과정 지식	기억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창안하다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 지식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과 Anderson & Krathwohl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⁷⁾

<표 13> ‘교육목표분류학’과 ‘개정 교육목표분류학’의 비교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	Anderson & Krathwohl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		
	인지과정 차원	지식과정 차원	
지식(Knowledge)	기억한다(Remembering)	지식(Knowledge) 을 따로 분류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적 지식
이해(Comprehension)	이해한다(Understanding)		
적용(Application)	적용한다(Applying)		
분석(Analysis)	분석한다(Analyzing)		
종합(Synthesis)	평가한다(Evaluating)		
평가(Evaluation)	창조한다(Creating)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은 사고와 사고의 대상인 지식으로 나누고 사고가 이루어지는 체계와 과정을 3가지 수준(자기체계, 인지체계, 메타인지 체계)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가 이루어지며, 지식을 처리하는 과정 즉, 자기체계와 메타인지체계, 인지체계를 동원하여 학습이나 사고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인지의 대상으로 지식은 크게 정보, 정신적 절차, 물리적 절차로 구분하고 있다. 표로 정리하여 제

46) Anderson, L. W. et al.(2001),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 Bloom 교육목표분류학의 개정』 강현식 외 역, 아카데미 프레스, pp.32.

47) 이병기(2010), 「교육목표분류학에 의한 정보활용과정모형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1권 제2호, p.116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시하면 다음과 같다.⁴⁸⁾

<표 14>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

내용		
자기체계(Self System)	중요성 점검	
	효능감 점검	
	정서적 반응 점검	
	동기 점검	
메타 인지 체계(Meta-cognitive System)	목표 명세화	
	지식 처리 과정 점검	
	명료성 점검	
	정확성 점검	
인지 체계(Cognitive System)	지식 인출 (Knowledge Retrieval)	재생(Recall)
		실행(Execution)
	이해 (Comprehension)	종합(Synthesis)
		표현(Representation)
	분석 (Analysis)	매칭(Matching)
		분류(Classifying)
		오류 분석 (Error Analysis)
		일반화 (Generalizing)
		명세화 (Specifying)
	지식 활용 (Knowledge Utilization)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문제해결 (Problem Solving)
		실험탐구 (Experimental Inquiry)
		조사연구 (Investigation)
지식 영역(Knowledge Domain)	정보(Information)	
	정신적 절차(Mental Procedures)	
	물리적 절차(Physical Procedures)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

48) 강현석 외 역(2005), 『신 교육목표분류학의 설계』, 아카데미프레스.

할 수 있다.

<표 15>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의 단계별 내용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 ⁴⁹⁾	
단계	내용
인출(수준1)	<p>재인: 학생들은 정보의 특징을 인지하지만, 지식의 구조를 필수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부터 중요한 것을 구별한다.</p> <p>재생: 학생들은 정보의 특징을 제시하지만, 지식의 구조를 필수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부터 중요한 것을 구별한다.</p> <p>실행: 학생들은 중요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절차를 이행하나,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지 필수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p>
이해(수준2)	<p>통합: 학생들은 지식의 기본적 구조를 규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특성과 반대되는 중요한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p> <p>표상: 학생들은 지식에 대한 정확한 표상 형식(representation)을 구성하고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와 중요한 구성 요소를 구별한다.</p>
분석(수준3)	<p>조화: 학생들은 지식 구성요소 간의 의미 있는 유사성과 차이성을 규명한다.</p> <p>분류하기: 학생들은 지식과 관련된 상위 및 하위 유목을 규명한다.</p> <p>오류분석: 학생들은 지식의 표상이나 활용에서의 오류를 규명한다.</p> <p>일반화하기: 학생들은 새로운 일반화를 구조화하거나 지식에 근거한 원칙을 구성한다.</p> <p>명세화하기: 학생들은 지식의 구체적인 적용 또는 논리적 결과를 규정한다.</p>
지식활용(수준4)	<p>의사결정: 학생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을 활용하거나 지식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p> <p>문제해결: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을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지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p> <p>실험탐구: 학생들은 가설을 생성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거나 지식에 대한 가설을 생성하고 시험한다.</p> <p>조사보고: 학생들은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거나 지식에 대한 조사를 한다.</p>

메타인지(수준5)	<p>목표 명세화: 학생들은 지식과 관련하여 목표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p> <p>과정 점검: 학생들은 지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의 실행을 점검한다.</p> <p>명료성 점검: 학생들은 그들이 지식에 관해 가진 명료성의 정도를 결정한다.</p> <p>정확성 점검: 학생들은 그들이 지식에 관해 가진 정확성의 정도를 결정한다.</p>
자기 체계 사고(수준6)	<p>중요성 검사: 학생들은 지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고 이러한 인식의 기저가 되는 추론을 규명한다.</p> <p>효능감 검사: 학생들은 지식과 관련된 능력이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과 이러한 인식의 기저가 되는 추론을 규명할 수 있다.</p> <p>정서적 반응 검사: 학생들은 지식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이러한 반응에 대한 이유를 규명한다.</p> <p>동기 검사: 학생들은 지식과 관련하여 능력이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동기의 수준을 규명하고 이러한 수준별 동기의 원인을 규명한다.</p>

위에 제시한 ‘교육목표분류학’의 틀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단계별 접근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을 수정 보완한 Anderson & Krathwohl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과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의 틀에 추가적으로 정보활용과정으로 널리 알려진 Eisenberg & Berkwitz의 ‘Big6 Skills’ 모형을 추가 적용하여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의 단계별 접근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Eisenberg & Berkwitz의 ‘Big6 Skills’ 모형 역시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을 기본 틀로 만든 것이다. ‘Big6 Skills’ 모형은 정보활용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동원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Big6 Skills’ 모형의 특징은 단순하고 과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쉬어 모든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보과제 해결 모형이다. ‘Big6 Skills’ 모형은 외형적으로 ‘과제 정의’에서 ‘정보 평가’에 이르기까지 6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피드백, 점프 등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Big6 Skills’ 모형을 표

49) 강현석(2012), 『새로운 교육목표 분류학』, 도서출판 원미사. p. 119~121.

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⁰⁾

<표 16> Eisenberg & Berkwitz의 ‘Big6 Skills’ 모형

‘Big6 Skills’ 모형		
6단계(Big6)		하위요소
과제 정의	피드백과 점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과업 혹은 정보과제의 확인
		정보 요구 확인
정보탐색전략		가능한 정보원의 범위 결정
		정보원 평가와 우선순위 확인
정보소재확인 및 접근		지적, 물리적인 정보 탐색
		정보원내의 정보 탐색
정보 이용		정보와의 상호작용(읽기, 보기, 듣기 등)
		정보원으로부터 정보 추출
정보 종합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정보 조직
		정보 표현
정보 평가		결과물 평가(효과)
		정보과제 해결 과정 평가(효율성)

본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Big6 Skills’ 모형은 Anderson & Krathwohl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과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의적 영역을 다루고 있지 않다. 정의적 영역은 과제 혹은 문제 해결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위에 제시한 세 가지 틀을 인용하여 인지적 영역을 이해단계, 적용단계, 생산단계로 보고 평가단계를 정의적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50) 이병기(2013), 『정보활용교육론』, 조은글터, 서울, pp. 115~118. 재인용.

<표 17> 본 논문에서 한국 문화 교육 시 위계화 시킨 단계

‘Big6 Skills’		‘개정 교육목표분류학’		‘신 교육목표분류학’		본 논문에서의 단계	
과제 정 의	인지적 영역	기억한다 (Remembering)	인지적 영역	지식 인출 (Knowledge Retrieval)	인지적 영역	이해	인지적 영역
정보탐 색전략		이해한다 (Understanding)		이해 (Comprehension)			
정보소 재확인 및 접근		적용한다 (Applying)		분석 (Analysis)		적용	
정보 이용		분석한다 (Analyzing)		지식 활용 (Knowledge Utilization)		생산	
정보 종합		평가한다 (Evaluating)		메타 인지 체계 (Meta-cognitive System)		평가	정의적 영역
정보 평가	창조한다 (Creating)	자기체계 (Self System)	정의적 영역				
정의적 영역 고려하지 않음		정의적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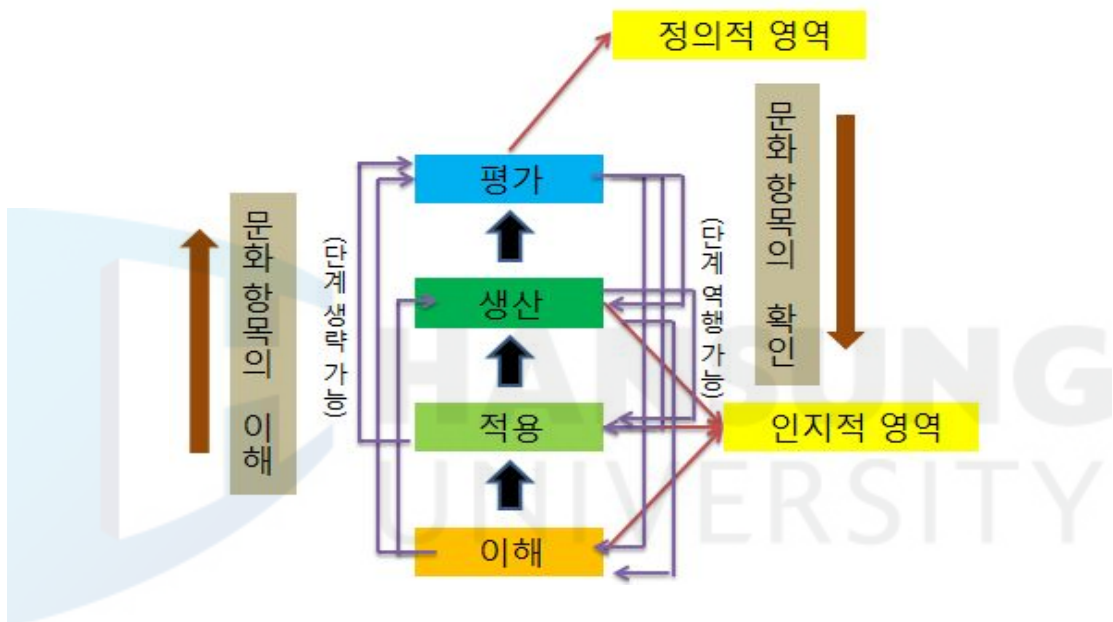
위에 제시한 표는 본 논문에서 위계화 시킨 단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틀로 Anderson & Krathwohl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과 Marzano의 ‘신 교육목표분류학’과 Eisenberg & Berkowitz의 ‘Big6 Skills’ 모형을 인용하여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고려하여 ‘이해, 적용, 생산, 평가’라는 4단계로 위계화를 시킨 것이다. 인지적 영역으로 ‘이해, 적용, 생산’의 단계별 위계화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화 항목을 스스로 인지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정의적 영역의 ‘평가’ 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을 각 단계에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개인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적 영역에서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해 단계’에서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하였다면 바로 ‘생산 단계’나 ‘평가 단계’로 단계를 생략하여 진행 할 수 있고, 정의적 영역의 ‘평가 단계’까지 진행한 학습자는 각 단계에서 수용한 문화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면서 각 단계에서 학습한 문화 항목에 대해 개

개인의 태도를 반영하여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다시 단계를 역행하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Eisenberg & Berkwitz의 'Big6 Skills' 모형에서 학습자들이 단계를 진행하면서 생략과 피드백, 점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여 단계별 위계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 본 논문에서 위계화 시킨 단계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모형



위의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위계화 시킨 단계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표 18> 본 논문에서 위계화 시킨 단계별 내용 제시

단계		내용
인지적 영역	이해	본 단계는 소설 텍스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 항목을 인지하기 전 단계로 제시된 사진자료나 그림 자료를 통해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탐색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초급의 경우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지만 중, 고급에서는 바로 소설 텍스트를 제시할 수 있다.
	적용	본 단계는 이해단계에서 탐색한 문화 항목을 좀 더 심화된 활동을 통해 탐색한 문화 항목을 제시된 소설 텍스트나 실제 담화 상황 또는 매체 등에 적용하여 해당 문화 항목을 정교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생산	전 단계에서 소설 텍스트 속에 내재 되어 있는 문화 항목과 그와 관련된 지식을 정교화 하였다면, 본 단계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아 생산함으로써 해당 문화 항목을 자신의 기억 속으로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	평가	지금까지 단계별로 제시된 활동을 통해 인지한 문화 항목에 대한 명료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단계에서는 인지한 문화 항목에 대해 ‘왜?’라는 의문을 던지며 다시 한 번 문화 항목을 완벽히 인지하는 단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사용한 단계라는 용어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른 단계가 아닌 문화 항목을 학습하기 위한 단계로 그 용어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 적용, 생산, 평가’의 4단계로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위에 정리하여 제시한 표는 위계화 시킨 단계별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이에 더해 위계화 시킨 단계별 문화 항목 교육 내용과 단계별 교사와 외국인 학습자의 역할을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① 이해 단계

본 단계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모문화와 한국 문화의 일차적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본 단계에서 제시한

시각 자료를 통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배경 지식의 활용으로 제시된 시각 자료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해당 문화 항목에 일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문화 항목의 탐색단계라고 할 수 있다. 초급의 경우는 그림 자료만을 제시하여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할 수 있지만 중, 고급에서는 소설 텍스트를 바로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배경 지식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당 문화와 관련된 명확한 시각 자료와 소설 텍스트를 제시하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문화와 관련된 질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위계화 시킨 단계를 생략하여 바로 생산 단계 또는 평가 단계로 건너뛸 수 있다. 이는 본 논문 II장에서 제시한 단계별 위계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모형에 해당 되는 내용이다.

② 적용 단계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단계에서 일차적인 접근으로 시각 자료와 그와 관련된 활동으로 제시된 문화 항목을 탐색했다면 적용단계에서는 탐색한 문화 항목을 제시된 소설 텍스트에 적용해보거나 실제 담화 상황이나 다양한 매체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문화 항목의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는 본 단계에서 제시된 소설 텍스트를 읽고 모르는 어휘 및 표현을 찾게 될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찾은 어휘와 표현이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어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담화 상황이나 매체 등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소설 텍스트에 해당 문화 항목이 잘 드러난 장면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활동 역시 외국인 학습자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담화 상황이나 매체 자료도 실제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단계 역시 이해 단계와 마찬가지로 위계화 시킨 단계를 생략하여 바로 평가 단계로 건너뛸 수 있고,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하지 못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다시 이해 단계로 역행이 가능하다.

③ 생산 단계

적용 단계에서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에서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면, 생산 단계에서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새로운 것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문화 항목의 확장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당 문화 항목을 이해단계와 적용단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하였다면 생산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기능 영역별 중심의 활동(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으로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 항목의 확장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단계는 해당 문화 항목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는 제시된 매체자료 또는 시각 자료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적용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한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문화 항목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가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 항목을 확장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사가 주의할 점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새로운 문화 항목을 인지하는 것이 아닌 해당 문화 항목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단계 역시 적용 단계와 동일하게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하지 못 하였을 경우 적용 단계로 또는 이해 단계로 역행이 가능하다.

④ 평가 단계

본 논문에서 위계화 시킨 단계별 문화 항목 교수 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이해-적용-생산 단계를 거쳐 해당 문화 항목을 올바르게 인지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와 외국인 학습자 단계별 수행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문화 항목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는 단계마다 진행되는 평가의 항목에 체크를 하면서 각 단계에서 문화 항목과 관련된 수행이나 문화 항목의 올바른 인지도를 평가하고 교사는 각 단계에서 문화 항목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할 때의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단계는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단계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개개인의 태도에

따라 문화 항목을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따라 해당 문화 항목을 수용할 경우 평가 단계가 끝이 될 것이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계를 역행하여 생산, 적용, 이해 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

위에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소설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본 논문에서 설정한 단계를 적용하여 IV장에서 자세하게 밝힐 것이다.

2) 소설을 통한 접근 전략

임경순(2003)은 문학 작품의 여러 장르들 가운데 왜 현대 소설을 교육해야 하는지 제시하면서 현대 소설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언어적, 문화적, 문학적 측면 나누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적 측면에서 현대 소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를 문자 텍스트로 옮겨 놓았고, 여러 계층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갈등과 화합을 반복하는 가운데 언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르다. 현대 소설의 언어는 서술자만의 독특한 사각이 개입되고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화법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않은 부분도 있으나 등장인물 사이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상 언어나 소설의 언어가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을 통해서 일상 언어와 더불어 고차원적인 언어의 학습이 가능한 이유는 풍부한 어휘와 다양한 문법, 의사소통을 더욱 유창하게 만들어 주는 속담이나 관용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낯선 비유적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 속담이나, 관용표현은 문학 작품에서 나타난 표현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소설의 언어는 작품 내에서 전개되는 맥락 가운데 수행되는 언어로서 어휘나 표현이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보다 그것이 사용되는 실제 맥락의 의미로 더욱 많이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어휘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대소설이 맥락적 활용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목표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의 언어사용 습관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문학적 측면에서 현대 소설은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인간에 대한 탐구는 인간에게 끊임 없는 과제로 남겨졌는데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는 장르가 바로 소설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현대 소설은 작품의 배경과 등장인물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은 물론 생활양식, 관습, 역사,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집대성한 자료다. 등장인물들의 행동 양식은 여러 상황 맥락 가운데 일정한 유형을 띠고 학습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소설을 이해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담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곧 현대 소설은 그 사회의 시대 문화적 배경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 담겨진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⁵¹⁾

김동환(2010)은 소설이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과 인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제적 상황에 놓인 문제적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과 모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서 언어활동을 하려는 주체로서의 한국어학습자의 이야기는 서로 상통하는 맥락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 속에 구현된 문화적 양상은 학습자에게 매우 유의미한 간접 경험체가 될 것이다. ‘실감을 주는 상황’의 재현을 기반으로 삼는 소설적 상황은 수용자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본다고 하였다.

Collie & Slater(1987)는 문학 작품은 가치 있고 실제적인 자료, 문화적 풍요화, 언어적 풍요화, 개인적 연관이라는 특성을 들면서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학습할 때 문학 작품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⁵²⁾ 이는 소설을 포함한 문학 작품의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제재로 문학 작품이 갖는 실제성과 그 효용성에 대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 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갖는 실제성에 대한 연구로는 김수진(2009)이 있다. 김수진(2009)은 문학 작품은 언어 맥락과 문화 맥락을 종합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언어 산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언어를 도구로 인간 삶의 정신적 물질적 국면을 재현 또는 창작해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맥락과 문화 맥락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문학 작품 안에는 언어 사용이 만들어 내는 언어 맥락과 그 언어 맥락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서 문화 맥락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은 언어 맥락과 문화 맥락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교수-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문학 작품 전체에

51) 임경순(2003), 『문학의 해석과 문학교육』, 역락, pp.161.

52) Collie J. and Slater S.(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해당하는 내용으로 소설을 포함하여 문학 작품이 문화를 교육할 때 의도적으로 제작된 텍스트보다는 교육적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여탁(2013)은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한국 문화 교육의 방법과 의의에 대해 3가지로 정리를 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첫 번째 자국어교육에서 한국의 속담이나 문화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채택하여 학습 제재로 제시하거나 교수-학습 시간을 따로 설정하여 가르치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자료나 문학 작품을 통하여 습득하도록 하고 있고 넓은 의미의 문화를 일상의 언어생활이나 문학 또는 예술 창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문학 작품이 창작되었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보고(寶庫)로서 문학 작품의 가치를 들 수 있고 또한 문학 작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읽히거나 학습한 목표 언어의 문학 작품은 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문화 교육은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언어의 사회·문화적 이해를 넘어 고급스러운 언어 사용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화적 언어 능력(비유 표현이나 관용 표현 등)의 학습은 교육적 의도로 재구성한 교재에서의 텍스트보다는 문학 작품에 사용되고 있는 실제적인 표현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⁵³⁾

김순자(2009)는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소설 수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 180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체적으로 한국어 등급이 4~5급 정도의 외국인 학습자들이다. 설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할 수 있다.

<표 19> ‘외국인 학습자의 문학 학습 경험과 요구’ 설문 결과⁵⁴⁾

문항	외국인 학습자 응답 내용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	‘있다’가 60%, ‘없다’가 39.4%, 무응답이 0.6%
한국어 수업에서 많이 다루어진 문학 작품의 장르에 대한 질문	‘현대 시> 현대 소설> 현대 수필> 설화> 동시> 고전 소설> 현대 희곡’

53) 윤여탁(2013)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149-176.

54) 김순자(2009), 「한국어교육에서 소설 텍스트 교육 연구」, 부산외국어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p.22~23.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흥미도와 관련된 질문	‘현대 소설> 현대 시> 설화> 현대 수필> 동시> 고전 소설> 현대 희곡> 고전 시가’
문학 작품의 난이도와 관련된 질문	‘현대 시> 고전 시가> 고전 소설> 현대 소설> 설화> 현대 수필> 현대 희곡> 동시’
한국 문화 이해에 문학 작품의 도움 정도 묻는 질문	‘조금 도움> 매우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학습자 모국의 문학 작품이 한국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데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	‘조금 도움=보통> 매우 도움> 별로 도움 안 됨’
실제 수업에서 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음’
실제 수업에서 문학 수업의 충분도에 대한 질문	‘적당> 조금 부족> 조금 많다> 매우 부족> 너무 많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장르 필요성에 대한 질문	‘현대 소설> 현대 수필> 현대 시=설화> 현대 희곡> 동시> 고전 소설> 고전 시가’
한국 문학 작품을 배우는 시기에 대한 질문	‘중급> 고급> 관계없음>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	‘한국어 이해와 사용 능력>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능력=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는 능력> 내면적인 자아성장> 기타’

위 설문 결과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변인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한국어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문학 작품을 접해 볼 기회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한국어 학습에서 현대 시와 함께 현대 소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현대 시보다는 현대 소설이 학습자들에게 더 흥미가 있고, 난이도에 있어서도 역시 현대 소설이 현대 시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째 외국인 학습자들은 실제 교실 수업 현장에서 한국 문학 작품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현재 교실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 문학 수업에 대한 충분성은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선호하는 장르는 현대 소설이라는 것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국어 사용 능력이 주이고 이와 함께 한국 문화의 이해 능력 신장이라는 것이다. 김순자(2009)의 설문 조사 결과는 본 논문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현대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 항목을 교육하는데 적합성과 관련된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문학 작품 중에서 현대 소설 텍스트가 한국 문화 항목을 교육하는데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의 현대 소설 텍스트는 문학 작품 중에 실제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문학 작품 중 현대 소설 텍스트가 언어 맥락과 문화 맥락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의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장르가 한국의 현대 소설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의 현대 소설 텍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국어 이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 능력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 시 단계별로 위계화 시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과 한국 문화 항목을 교육하는데 한국의 현대 소설 텍스트를 제재로 활용할 때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HANSUNG
UNIVERSITY

III. 문화 항목과 소설 텍스트의 등급별 설정

본 장에서는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한국 문화 항목 선정과 선정된 한국 문화 항목을 교육할 때 제재로 사용할 소설 텍스트 선정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다.

1. 문화 항목의 선정 기준과 등급별 문화 항목

1) 문화 항목 선정 기준의 이론적 근거

한국 문화 항목의 선정 기준은 서론 부분에서 제시하였다시피 본 논문에서 다룰 문화의 개념과 문화 교육의 목적에 맞는 것인가가 그 선정 기준이 될 것이다. 문화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 범위와 분류가 다양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2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항목을 범위로 설정하고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문화 항목을 선정할 것이다.

김수현(2006)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범위를 전통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제도문화로 분류하였다.⁵⁵⁾ 또한 범위를 분류한 후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등급에 맞게 제시해야 할 문화 항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55) 김수현(2006)에서 분류한 문화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전통문화는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우리의 문화가 점차 서구화되어 가는 것에 반하여 한국적 특징을 알릴 수 있는 분야이다. 생활문화는 한국에서 생활과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절 및 의식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언어문화는 언어 교육의 기본 목표이기도 한 것으로 한글의 제자 원리, 경어법, 관용구, 속담, 문학 작품 등이 설명을 통하여 한국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예술문화는 한국인의 정서를 표출한 음악, 미술, 무용, 건축물 등의 창작물로 한국인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분야다. 제도문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를 유지하여 오는 데 기반이 되는 정치, 경제, 교육 등을 다루는 분야로 한국인의 가치관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표 20> 김수현(2006)에서 제시한 외국인 학습자 등급별 제시 문화 항목

등급	내용	문화 항목별 예시
초급	학습 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이해하여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전통문화의 경우는 한국의 명절을 소개하고 명절 음식, 명절놀이 등을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문화의 경우 식생활과 관련하여 한국 음식의 종류와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다. 주생활의 경우 온돌 사용과 관련하여 신을 벗고 생활하고, 청소할 때 방을 쓸고 닦는 행동이 필요하며, 이불과 요를 사용하는 등의 생활 방식에 관하여 설명한다.
		언어문화의 경우는 다른 문화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휘를 제시한다. 가령 의생활 설명에 필요한 한국 옷의 명칭, 식생활 설명에 필요한 맛의 종류, 조리 용어 등을 소개한다. 또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여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호칭이나 경어법의 체계도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술문화는 주변의 유적지나 명소를 소개하고 그와 함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제도문화의 경우는 가령 경제제도와 관련하여 한국 돈의 종류를 설명하고, 은행예금 방법, 현금입출금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급	중급 단계에서는 점차 한국과 한국인의 가치관 및 정서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문화 항목을 제시하도록 한다.	전통문화의 경우 세시풍속이나 한국의 역사적 인물에 관해 일화, 삽화 등을 통해 제시한다.

		생활문화의 경우 경로사상을 토대로 하여 웃어른을 대할 때의 예절, 가령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자리 양보, 음식이나 술을 함께 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며, 문화권에 따라 다른 비언어적 행위 표현 등을 설명한다.
		언어문화의 경우 어휘 차원에서 단어가 지닌 중심적 의미 이외에 주변 의미를 제시하여 다양한 언어 표현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한 속담 안에는 한국인의 삶의 모습, 지혜와 가치관이 담겨져 있으므로 속담의 설명은 학습자가 자국 문화와의 공통적인 면이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술문화의 경우는 지방의 축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놀이문화를 생성 배경과 함께 설명한다.
		제도문화의 경우는 학습 단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가령 교육이 주제라면 입시제도, 조기유학 현상 등 교육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언급하고, 교통이 주제라면 버스전용차선, 승용차 요일제 등의 교통제도를 설명한다.
	고급	전통문화의 경우 관혼상제, 민간요법 등 한국인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을 소개한다.
		생활문화의 경우 한국인의 현재 관심사를 위주로 자연스럽게 한국에 동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가령 주5일제와 관련한 여가 생활, 유행, 외식문화 등 한국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소개한다.
		언어문화의 경우 유행어나 비유적 표현, 다양한 종류의 글,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방언 표현 등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한국의 사회 현상 및 각 지방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문화의 경우 판소리를 다룬 영화를 제시하거나 처용무와 같이 문학 작품과 관련이 있는 한국 무용을 설명하는 등 한국의 예술을 쉽고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도문화의 경우 드라마나 소설 등의 구체적 자료를 통하여 한국의 사회와 역사를 소개하거나 뉴스 기사를 활용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와 관련한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한다.

위에서 제시한 김수현(2006)의 연구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학습자의 단계별 문화 항목에 대한 분류와 분류에 맞는 내용과 관련 예만 제시하고 있고 분류한 문화 항목에 대한 교육적인 고려가 없어서 제시한 항목을 어떠한 방법으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교육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재영 외(2004)는 본인들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 교육의 목표에 맞게 문화 교육 내용도 등급별로 제시하고 있었다.

<표 21> 한재영 외(2004)에서 제시한 등급별 문화 교육 내용

등급	문화 교육 내용
초급	① 한글의 제자 원리 ② 한국의 인사법 ③ 한국식 이름 쓰기 ④ 신체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⑤ 가족관계(호칭) ⑥ 언어 예절 ⑦ 한국의 음식과 식사예절 ⑧ 식당에서의 예절 ⑨ 한국의 명절, 공휴일 ⑩ 전화 예절 ⑪ 초대하기

	⑫ 수도 서울의 교통 체제, 계절 ⑬ 화폐 단위 ⑭ 한국의 지리
중급	① 문화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② 예의 범절 ③ 속담, 관용어 ④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작품 소개 ⑤ 한국 도시들의 특징 ⑥ 한국의 대표적 유적지 소개 ⑦ 한국의 대표적 영화 ⑧ 만화 ⑨ 신문, 잡지, 광고 ⑩ 한국의 명절 풍습 ⑪ 여가생활, 오락문화 ⑫ 세대별 갈등 ⑬ 생일문화
고급	① 전통예술 ② 문화유산 ③ 관혼상제 ④ 풍자 ⑤ 속담 ⑥ 광고 ⑦ 한국어의 변화 ⑧ 방언의 차이 ⑨ 한국의 음식 문화 ⑩ 한국의 가정 ⑪ 충효사상 ⑫ 가치관의 변화 ⑬ 한국의 종교 ⑭ 한국 현대사 ⑮ 한국의 역사와 위인 ⑯ 한국의 대표적 희곡 작품 ⑰ 한국의 대표적인 시 ⑱ 단군신화와 그리스신화의 비교

한재영 외(2004)에서는 위의 문화 교육 내용을 제시하면서 초급 단계는 학

습자가 낮은 한국 문화를 접함으로써 문화충격을 경험하는 단계지만 낮은 문화의 신비로움으로 인해 강한 호기심이 작용하는 단계라고 하면서 이 단계에서는 문화 차이로 인해 오는 문화 거부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목표 문화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고, 놀이와 그림, 사진, 영상물 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중급 단계는 문화 이질감에서 오는 문화 충격을 경험하면서 문화 차이에서 오는 많은 의문을 갖는 단계라고 하면서 문화 비교를 통해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집단별, 개인별 갈등 약식을 통해 감정이입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고급 단계는 문화 충격에서 회복되어 목표 문화에 적응하여 새 문화를 자신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라고 하면서 이 단계의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의 까다로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 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를 통해 그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였다.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에서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⁶⁾

<표 22>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 등급별 문화 영역의 목표 기술

등급	내용
1급	1.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나이가 많고 적음에 의한 기본적인 위계가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급	1. 한국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3급	1.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바탕이 되는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한국인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나이, 성,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 사회적 변수를 이해할 수 있다.
4급	1. 공적이고 격식적인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바탕이 되는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5급	1.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2. 공적이고 격식적인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 한국 문화와 자국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4.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56)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2011), 국립국어원.

6급	1.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2. 미술, 음악, 문학 등의 성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 스스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다. 4. 한국 사회의 정치, 행정, 교육, 군사, 종교, 경제 등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7급	1. 한국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와 성취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들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2단계(2011)에서는 등급별 문화 영역의 목표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등급별 문화 영역의 내용도 기술하고 있었다.

<표 23>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2단계 등급별 문화 영역의 내용 기술

등급	내용
1급	1.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한다.
2급	1. 한국인의 행동 양식(인사법, 손짓, 몸짓 등)을 이해한다. 2. 한국인의 주생활(주거, 건축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3. 한국인의 식생활(음식, 음주, 식사 예절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4. 한국의 교통 문화(교통, 운송, 길 찾기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5. 한국인의 경제 활동(화폐, 구매 등)을 이해한다. 6. 한국인의 예절(예법에 맞는 의례적 행동)을 이해한다. 7. 한국의 기후(날씨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8. 한국인의 의생활(한국인의 옷차림, 한복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3급	1. 한국인의 여가 문화(여행, 취미 생활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2. 한국인의 가족 관계, 친족 호칭 등을 이해한다. 3. 한국인의 개인적 활동(동아리, 친목 모임 등)을 이해한다. 4. 한국인의 사회적 활동(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을 이해한다. 5. 한국의 지리적 특징을 이해한다. 6. 한국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안다. 7. 한국의 문화유산(무형 문화: 노래, 춤 등)을 이해한다. 8. 한국인의 가족 제도(대가족, 핵가족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4급	1. 한국인의 세시 풍속을 이해한다. 2. 비언어 행위(가슴을 치다 등)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3. 기본적인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관습(제도, 관습, 의식, 의례 등)을 이해한다. 4. 한국의 문화유산(유형 문화: 도자기, 사찰 등)을 이해한다. 5. 한국의 교육 제도를 이해한다. 6. 한국의 대중문화(가요, 영화 등)을 이해한다. 7. 한국의 국가 상징물(태극기, 애국가 등)을 이해한다.

5급	1. 대략적인 한국의 역사를 이해한다. 2.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역사적 인물, 현대 유명 인사 등)을 이해한다. 3. 한국의 교육 문화의 특징(입시, 학원, 교육열 등)을 이해한다.
6급	1. 한국의 특징적인 역사(식민 지배, 한국전쟁, 분단 상황 등)를 이해한다.
7급	1. 한국인의 종교, 철학, 윤리, 민간신앙에 반영된 가치관을 이해한다.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에서는 위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 교수해야할 문화 영역에 대해 그 목표와 내용을 등급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 모형의 문화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문화는 총 7개의 대분류 항목(한국인의 생활, 한국 사회, 한국의 예술과 문학,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유산, 외국인의 한국생활), 23개의 중분류 항목(일상생활, 여가생활, 공동체생활, 언어생활, 세시풍속, 관혼상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지리, 교통, 통신, 다문화사회, 예술, 문학, 가치관, 사고방식, 시대별 역사, 역사적 인물, 문화재, 상징물, 사회생활), 55개의 소분류 항목(의생활, 주생활, 식생활, 계절활동, 경제활동, 여행, 친목모임/동호회, 스포츠,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이름과 호칭, 인사, 한글과 한국어, 몸짓언어, 명절, 주요 절기, 관례/혼례, 장례/제례, 남북관계, 국제관계, 정치제도, 경제제도, 경제정책, 교육열, 교육제도, 교육문제, 복지정책, 사회제도, 공휴일, 사회문제, 한국의 지리/지형, 대표 지역과 축제, 교통수단, 교통체계, 과학 기술의 발전, 다문화 현상, 전통/현대 음악, 전통/현대 미술, 전통/현대 공연, 문학작품, 가족주의, 건강, 성역할, 가치관의 변화, 빨리빨리 행동, 민간신앙, 종교, 시대, 유명 인물,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상징, 공공기관 이용)으로 세분화 하였고, 소분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로 구성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24>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의 문화 범주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의생활	현대 의생활, 전통의상(한복, 고무신, 짚신), 유행 등
		주생활	현대의 주거 형태(아파트, 기숙사, 원룸 등), 전월세, 하숙·자취 등
		식생활	대표적 음식: 김치, 특별한 날 먹는 음식: 생일-미역국, 합격/이사-떡 등, 계절 음식: 삼계탕, 팔빙수, 냉면, 팔죽, 상차림, 식기(숟가락, 젓가락), 식사예절, 음주예절 등
		계절활동	벚꽃놀이, 단풍놀이 등
		경제활동	소비문화(쇼핑), 재래시장, 흥정과 덤, 재테크, 근검&절약(자린고비), 기부 등
	여가생활	여행	숙박 종류와 시설, 유명한 여행지, 여행의 종류(수학여행, 신혼여행 등) 등
		친목모임/동호회	인터넷 동호회, 찜질방,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조기축구회, 등산모임 등
		스포츠	등산, 야구, 축구, 응원(붉은 악마) 등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가족형태(맞벌이, 1인 가족 등), 출산, 육아, 경조사(동, 환갑 등), 공공기관 이용(세금 납부 등), 식사예절 등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 아르바이트, 축제, 동아리 등
		직장생활	위계질서, 회식문화(뒷풀이, 음주 등), 야유회, 직장 내 예절(약속하기, 직책 부르기 등)
	언어생활	이름과 호칭	친족 호칭, 호칭 확대, 사회적 호칭(○○ 씨, 선후배 호칭), 별명,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 등
		인사	인사말(인사예절 포함), 빈말(의례적) 표현(어디 가세요? 밥 먹었어요?) 등
		한글과 한국어	한글 창제와 원리, 한국어의 특징(속담, 색채어 등)
		몸짓 언어	비언어적 행위(가슴을 치다 등) 등
한국사회	세시풍속	명절	설, 추석
		주요 절기	한식, 단오, 삼복, 대보름, 칠석 등
	관혼상제	관례/혼례	성인식, 결혼문화(상견례, 결혼식, 결혼준비, 축의금 등), 결혼정보회사 등
		장례/제례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등
	정치	남북관계	38선, 비무장지대(DMZ), 햇볕정책, 통일, 남북교류(남북회담,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등) 등
		국제관계	원조 주는 나라, 친일/반일 감정, 친미/반미 감정 등

		정치제도	선거, 투표 등
	경제	경제제도	화폐단위, 은행(ATM 등),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등
		경제정책	한국 경제의 성장, 물가안정정책, 고용정책, IMF, 자유무역협정(FTA) 등
	교육	교육열	조기 교육 및 유학, 사교육 열풍, 대안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제도	초중등, 대학(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문제	교권 추락, 체벌 금지 등
	사회	복지정책	주 5일,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제도	쓰레기 종량제, 자차 요일제, 신분증명제도, 출산장려정책 등
		공휴일	국경일(한글날,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등), 기념일(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성년의 날 등)
		사회문제	고령화, 저출산, 이혼율, 청년 실업, 자살, 인터넷 중독,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역차, 지역감정, 환경문제 등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기후, 계절, 날씨 등
		대표 지역과 축제	부산, 강릉 단오제, 경주 신라문화제, 남원 춘향제, 여주 도자기 축제, 보령 머드축제, 태백산 해돋이 축제 등
	교통	교통수단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배, 비행기 등)
		교통체계	버스전용차선, 지하철 노선, 버스 종류, 환승, 교통카드, 교통예절 등
	통신	과학 기술의 발전	IT 강국, 통신예절, 통신언어(문자 보내기, 이모티콘 사용하기), 인터넷에서의 연락망(소셜 네트워크) 등
	다문화 사회	다문화 현상	다문화, 국제결혼, 이주근로자 등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 음악	아리랑, 판소리, 민요, K-POP, 전래동요 등
		전통/현대 미술	김홍도, 신윤복 등의 그림,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등
		전통/현대 공연	마당놀이, 탈춤, 부채춤, B-boy, 난타 등
	문학	문학작품	고대, 근-현대 소설, 시, 수필, 전래동화, 건

			국신화, 설화, 전설, 민담 등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가족주의	‘우리’의 사용, 정(情), 한(恨), 신명 등
		건강	웰빙, 민간요법, 보약, 한의원, 찜, 목욕(대중탕) 등
		성역할	남존여비의 변화(직업의 변화) 등
		가치관의 변화	미(美)의 기준 변화, 세대 차이 등
	사고방식	빨리 빨리 행동	퀵 서비스, 음식배달, 경제발전의 원동력 등
		민간신앙	점, 미신, 금기 등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고대, 근대, 현대 등
	역사적 인물	유명 인물	화폐의 인물, 대통령, 스포츠 스타, 한류 스타, 역사적 위인 등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전통놀이(윷놀이, 널뛰기, 그네타기, 공기놀이, 닭싸움, 제기차기 등), 유적지(경복궁, 송례문 등), 한옥(기와, 초가, 온돌 등)
		무형 문화재	한복, 강강술래, 전통혼례, 농악 등
		세계 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 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상징물	한국의 상징	국가(애국가), 국기(태극기), 도자기, 인삼, 무궁화 등
외국인의 한국생활	사회생활	공공기관 이용	출입국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등

또한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에서는 위에 제시한 문화의 범주를 1급부터 7급까지 세분화 하여 등급에 맞게 성취문화, 행동문화, 정보문화로 유형을 나누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 등급에서 2급과 3급과 6급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 실제 수업 방안으로 제시할 문화 항목이 해당되는 등급이기 때문이다.⁵⁷⁾

57) 국제통용 한국어표준모형 2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별 문화의 세부 내용 나머지는 부록에 따로 제시를 하겠다.

<표 25>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2단계 초급 2의 문화 세부 내용

유형	교수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유적지(승례문,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무형 문화재	·한복, 강강술래, 연날리기 등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 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이름과 호칭	·한국의 흔한 성씨, 별명 ·호칭의 확대현상(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호칭을 사용하는 것: 언니, 오빠 이모 등)	
			한글과 한국어	·언어예절(존댓말과 반말)	
			몸짓 언어	·비언어적 행위(사람을 부를 때의 손동작, 답답할 때 가슴을 치는 동작 등)	
		일상 생활	식생활	·특별한 날 먹는 음식(생일-미역국, 합격/이사-떡, 결혼-잔치국수) ·식사예절(어른 먼저 수저 들기, 먼저 자리 뜨지 않기, 식사할 때 소리 내지 않고 먹기) ·음주예절(고개 줄리고 마시기, 술 권하기, 술 따르기)	
				계절 활동	·봄-벚꽃놀이, 가을-단풍놀이
				한국 사회	교통
		교통 체계	·교통예절(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앉은 사람이 서있는 사람 가방 받아주기)		
		지리	한국의 지리와 지형		·계절에 따른 날씨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의생활
주생활	·한국의 주거형태(한옥,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기숙사 등) ·전/월세, 하숙/자취				

				·온돌생활, 좌식생활
			식생활	·계절 음식(삼계탕, 팔빙수, 냉면, 팔죽)
			경제 활동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야시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공동체 생활	·공공기관이용(은행, 우체국, 동사무소 등) ·경조사(돌, 환갑 등)
	한국 사회	교육	교육 제도	·6-3-3-4 학제, 학기 시작 시기, 정규교육과정의 진학 나이, 의무교육제도
		교통	교통 체계	·버스 종류, 버스 전용차선, 지하철 노선 ·환승, 교통카드
		관혼 상제	관례 혼례	·성인식, 결혼문화(상견례, 결혼식, 결혼준비, 축의금 등), 결혼정보회사 등
			장례 제례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등
		세시 풍속	명절	·설(세뱃돈, 설빔, 차례, 성묘, 떡국, 만두) ·추석(달맞이, 차례, 성묘, 송편)
	외국인의 한국생활	사회 생활	공공기관 이용	·출입국 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등

<표 26>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2단계 중급 3의 문화 세부 내용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문화 유산	문화재	무형 문화재	·전통혼례, 농악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음악	·사물놀이, 탈춤, 부채춤, 판소리, 민요
			전통/현대공연	·탈춤, 부채춤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이름과 호칭	·친가친척관계, 외가친척관계 ·친족호칭(친가와 외가의 가족호칭)
			한글과 한국어	·사물레 비유한 표현(긍정적 표현:마음이 바다처럼 넓다, 천사 같다, 개미처럼 일하다 등 부정적 표현:호박처럼 생겼다, 곡같이 우둔하다, 돼지같이 먹다 등)
		공동체	가정	·방문예절(집들이 선물)

정보		생활	생활	
			학교 생활	·동아리, 소개팅,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대학 축제
			직장 생활	·회식문화, 뒤풀이 문화, 직장 야유회와 체육대회, 직장내 예절 등(약속하기, 직책 부르기 등)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건강	·웰빙 현상, 다이어트, 건강식품
	한국 사회	통신	과학 기술의 발전	·통신언어(문자 보내기, 이모티콘 사용하기) ·인터넷에서의 연락망(소셜네트워크-SNS) ·통신예절(댓글 문화, 인터넷 예절, 인터넷 실명제)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경제 활동	·재래시장(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경동시장, 가락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등) ·홍정과 덤
		여가 생활	친목 모임/동호회	·조기축구회, 등산모임, 인터넷의 여러 가지 동호회
		공동체 생활	가정 생활	·가족형태(대가족, 핵가족/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덩크족 등)
	한국인의 가치관	사고 방식	빨리 빨리 행동	·음식 배달, 퀵 서비스 ·경제발전의 원동력(인터넷, 건설, 정보통신의 발달)
	한국 사회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한국의 위치 및 지리적 특징
			대표지역과 축제	·서울, 부산, 경주, 제주도 등에 대한 소개(위치, 기후, 지역적 특징) ·행정구역(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도, 8도)
		사회	공휴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 개천절 등)

<표 27>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2단계 고급 6의 문화 세부 내용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식민지배, 한국전쟁, 남북분단, 민주화, 경제발전
	한국의 예술과 문학	문학	문학 작품	·전래동화(권선징악의 동화-콩쥐와 팥쥐, 흥부와 놀부 등) ·시대를 반영한 고전시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아리랑(각 지역 아리랑의 특징) ·전래동요(까치, 두껍아 두껍아 등) ·동요(고향의 봄, 엄마야 누나야, 웅달샘 등)
		예술	전통/현대음악	·전통미술(동양화: 김홍도, 신윤복 작품 등) ·현대미술(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한글과 한국어	·관용표현, 비유표현
정보	한국 사회	다문화 사회	다문화 현상	·다문화, 국제결혼, 여성결혼이민자, 한민족 등
		사회	사회 제도	·쓰레기 종량제, 자동차 요일제, 신분증명제도, 출산 장려정책 등
			사회 문제	·인터넷 중독, 자살, 청년실업, 이혼률 급등 ·고령화, 저출산, 싱글맘, 가족형태 변화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성역할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 가부장적 사고방식 ·맞벌이 부부, 남성의 가사참여, 육아분담 ·남성의 군복무의 의무
			가치관의 변화	·직업관의 변화(선호기업, 평생직장, 직업선택 기준) ·세대차이
			가족 주의	·학연과 지연, 혈연, 계, 이웃사촌 ·‘우리’의 사용(우리나라, 우리집)
		사고 방식	종교	·주요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 종교의 신도분포
	한국 사회	지리	대표 지역과 축제	·강릉의 단오제, 경주의 신라문화제, 남원의 춘향제, 여주의 도자기축제, 보령의 머드 축제, 태백산의 해돋이축제 등
			정치 제도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선거(직접선출), 대통령의 임기
		정치	남북	·정부조직(대통령-국무총리-장관, 국회, 의원) ·38선, 비무장지대(DMZ), 햇볕 정책, 통일,

			관계	남북교류(남북회담,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경제	경제 제도	·세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회	복지 정책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문화의 범주와 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강현화(2006)는 문화 교재 개발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 항목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 조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설문 조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적인 영역(한국의 역사, 경제, 정치, 종교, 미술, 음악, 문화, 예술 등)과 다른 하나는, 가치적인 영역(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사고방식, 한국 현대문화트렌드 등)으로 구분하여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생활문화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높은 요구도를 가진 분야는 정보문화로 나타났고, 교통문화에 대해서는 일상 대중교통이 가장 많은 요구도를 보였고, 예절문화에서는 경조사 예절이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문화 항목이었다. 호칭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사회관계의 호칭에 대해 가장 많은 요구도를 보였고, 전통음악에서는 아리랑에, 대중매체에서는 영화, 드라마에, 미술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상황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고 경제에서는 물가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사회현상에서는 지역감정이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음식문화는 전통과 현대 음식 모두 요구도가 높게 나왔다. 종교문화의 경우 인지도 보다는 요구도가 적게 나와 외국인 학습자들이 알고 있지만 관심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문화의 경우 인지도에 비해 요구도가 높게 나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문화의 경우 의복 정보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관광지와 레저문화에 대해서도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재의 경우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관심이 높았다. 역사와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현대인의 가치 문화에 대해서는 영상문화와 빨리빨리 문화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 문화 차이에 대한 요구 조사에서는 반미/친미 감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왔으며, 마지막으로 놀이문화에 대해서는 쇼핑 문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⁵⁸⁾

58) 강현화(2006),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 조사-문화 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99-128.

강현화(2006)의 요구 조사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학습자들의 변인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 대학에서 진행된 요구 조사라는 점에서 학습자 변인이 크게 발생했을 것이다. 또한 설문 문항에서 제시한 문화 항목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의 문화 항목에 대한 요구 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위 요구조사를 결과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심이 있는 한국의 문화 항목은 자신들(외국인 학습자)이 한국 생활에서 모르면 불편한 항목들에 대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문화 항목 선정 기준과 한국어 등급별 문화 항목

본 논문에서의 문화 항목 유형 분류는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에서 제시한 문화 항목 분류표에 따라 유형을 ‘성취 문화, 행동 문화, 정보 문화’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문화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첫 번째 ‘한국어교육용 교재 교수요목에서 해당 단원의 주제와 기능과 연관성이 없는 문화 항목’, 두 번째 ‘외국인 학습자들이 일상생활 또는 실제 경험과 관련된 친숙한 문화 항목’, 세 번째 ‘문화 학습으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치가 있는 문화 항목’, 네 번째 ‘문화 항목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잘 나타나 외국인 학습자들이 토론이 가능한 문화 항목’, 다섯 번째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이 용이한 문화 항목’ 마지막 여섯 번째 ‘현재에도 계속 향유할 수 있는 전통 문화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의 근거로는 첫 번째 선정 기준의 경우 본 논문 II장에서 밝힌 한국어교육용 교재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선정 기준의 경우 문화를 학습하는 대상과 관련된 선정 기준으로 아무리 문화 항목이 쉽고 흥미가 있더라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문화 항목이 교육 목적상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선정 기준도 두 번째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문화 학습하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기준이다. 네 번째 선정 기준은 문화 항목을 선정한 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가와 관련된 것이고 다섯 번째 선정 기준도 네 번째 선정 기준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선정 기준의 근거는 문화 항목의 지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문화 항목의 선정 기준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8> 본 논문에서의 문화 항목 선정 기준

선정 기준	근거
한국어교육용 교재 교수요목에서 해당 단원의 주제와 기능과 연관성이 없는 문화 항목	교육적 가치가 있는 문화 항목
외국인 학습자들이 일상생활 또는 실제 경험과 관련된 친숙한 문화 항목	실제적 가치가 있는 문화 항목
문화 학습으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치가 있는 문화 항목	교육적 가치가 있는 문화 항목
문화 항목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잘 나타나 외국인 학습자들이 토론이 가능한 문화 항목	교육적 가치가 있는 문화 항목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이 용이한 문화 항목	매체와 연계할 수 있는 가치의 문화 항목
현재에도 계속 향유할 수 있는 전통 문화 항목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 항목

위에 제시한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에서 문화 항목을 선정 하였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문화의 개념과 문화 교육의 목표와 위에서 제시한 기준의 연구사를 바탕으로 소설을 활용한 단계별 한국 문화 항목에 대한 교수의 실제로 선정한 문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9> 본 논문에서 선정한 학습자 등급별 문화 항목

외국인 학습자의 수준	해당 문화 항목
초급	한국 문화 항목: 유형-성취문화 대분류-한국의 문화유산 중분류-문화재 소분류-무형문화재 문화 항목 내용-한복, 강강술래, 연날리기
	한국 문화 항목: 유형-정보문화 대분류-한국사회 중분류-관혼상제 소분류-관례/혼례 문화 항목 내용-결혼문화

중급	한국 문화 항목: 유형-행동문화 대분류-한국사회 중분류-교통 소분류-한국의 지리와 지형 문화 항목 내용-계절에 따른 날씨
	한국 문화 항목: 유형-성취문화 대분류-한국의 예술과 문학 중분류-예술 소분류-전통/현대음악 문화 항목 내용-판소리, 민요
	한국 문화 항목: 유형-정보문화 대분류-한국인의 생활 중분류-일상생활 소분류-경제활동 문화 항목 내용-홍정과 덤
	한국 문화 항목: 유형-행동문화 대분류-한국인의 가치관 중분류-사고방식 소분류-민간신앙 문화 항목 내용-사주보기, 굿하기
고급	한국 문화 항목: 유형-성취문화 대분류-한국의 역사 중분류-시대별 역사 소분류-시대 문화 항목 내용-한국 전쟁
	한국 문화 항목: 유형-정보문화 대분류-한국 사회 중분류-다문화 사회 소분류-다문화 현상 문화 항목 내용-다문화, 국제결혼 등
	한국 문화 항목: 유형-행동문화 대분류-한국 사회 중분류-사회 소분류-사회문제 문화 항목 내용-빈부격차, 도농 격차, 등

위의 표에서 선정한 문화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선정 기준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본 논문에서 교재 분석으로 선정한 A, B, C대학의 한국어교육용

교재 교수요목에서 해당 단원의 주제와 기능과 연관성이 없는 문화 항목들이다.

초급에서 선정한 문화 항목 중 성취 문화의 ‘한복, 강강술래, 연날리기’의 경우 선정 기준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문화 항목으로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는 지속적인 문화 항목이다. 또한 정보 문화의 ‘결혼 문화’의 경우 선정 기준 두 번째와 네 번째 선정 기준에 속하는 문화 항목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고 보편적인 문화 항목이다. 행동 문화의 ‘계절에 따른 날씨’의 경우 선정 기준 두 번째에 속하는 문화 항목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친숙한 문화 항목이다.

중급에서 선정한 문화 항목 중 성취 문화의 ‘판소리, 민요’의 경우 선정 기준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문화 항목으로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는 지속적인 문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 정보 문화의 ‘흥정과 덤’의 경우 네 번째 선정 기준에 해당 하는 문화 항목으로 문화 항목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항목이다. 행동 문화의 ‘사주보기, 굿하기’의 경우 위 정보 문화와 동일하게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문화 항목으로 네 번째 기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고급에서 선정한 문화 항목 중 성취 문화의 ‘한국 전쟁’의 경우 선정 기준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문화 항목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항목이지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용이한 문화 항목이다. 정보 문화의 ‘다문화, 국제결혼’의 경우 선정 기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 하는 문화 항목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문화 항목이고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에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 항목이고 또한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토론이 용이하고 여러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 항목인 것이다. 행동 문화의 ‘빈부 격차, 도농 격차’의 경우 선정 기준 네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면서 특수한 문화 항목으로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외국인 학습자들의 토론이 용이한 문화 항목이다.

2. 문화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과 소설 텍스트 선정

1)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

소설 텍스트의 선정은 위에서 제시한 문화 항목이 잘 드러나 있는 한국의 현대 소설 텍스트를 외국인 학습자 등급별로 선정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텍스트 선정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Chall 외(1996)에서는 자국어 서사 텍스트를 다음의 1에서 12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그 구분 기준을 크게 ‘낱말 지식, 장르 지식, 배경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0> Chall 외(1996)에서 제시한 텍스트 구분 기준

수준	1-2수준	3-4수준	5-6, 7-8, 9-10, 11-12 수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적으로 단순함 ·하나의 주요 인물에 집중함 ·연대기적으로 엮여진 구성 ·사건을 묘사함으로써 이야기를 따라가게 하는 삽화 ·적은 수의 낱말(50단어) ·단어, 문장, 행동의 반복 ·언어와 사건에 대해 예측 가능한 친근한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좀 더 긴 문장 ·다중적으로 엮힌 구성과 연대기적 구성에서 벗어난 사건 ·여러 명의 복잡하고 포착이 어려운 인물들 ·1, 2수준보다 많은 단어, 복잡한 문장 구조, 문학적·비유적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이 올라갈수록 다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이 경험한 것 혹은 다른 이의 경험을 반영한 경험적 이해 요구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드러나고 중요한 문제는 명확히 탐구됨 ·수준이 올라가면서 언어적, 경험적 요구는 선조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독자는 상징 의미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경험적, 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한다. ·작품으로부터 더 많은 것이 추론되어야 한다.

위 표 속의 내용들을 ‘낱말 지식, 장르 지식, 배경 지식’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낱말의 개수: 낱말 지식

언어의 특성(문학적, 비유적, 상징적, 함축적 언어): 낱말 지식

이야기 구조(단순에서 복잡으로): 장르 지식

연대기적 혹은 역행적 구성: 장르 지식

언어와 사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배경 지식

경험적, 추론적 이해의 요청 정도: 배경 지식
배경 지식 활용 필요성의 정도: 배경 지식⁵⁹⁾

William F. Marquardt(1975)은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언어 기준(language criteria)’과 나머지 하나는 ‘문화 기준(culture criteria)’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⁰⁾

· William F. Marquardt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

언어 기준

- 1) 학생들이 처음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학 형식은 이야기식의 산문으로서, 문장 길이는 약 10단어 정도인 작품.
- 2) 언어적 난이도는 위의 것보다 약간 어렵고, 학생들의 상상력에 호응할 수 있는 에세이.
- 3) 학생들의 oral communication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숙어적 표현들이 담긴 짧은 드라마.
- 4) 구문이나 어휘가 지나치게 표준규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시.

문화 기준

- 1) 미국이 아닌 상황을 배경으로 일반적인 주제를 그리고 있는 미국의 작품들.
- 2) 미국의 상황에서 미국인과 외국인의 상호작용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 그리고 학습자들이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작품들.
- 3) 미국인이 번역한 외국 시나 미국 작가의 시가 아닌, 상황에서 미국인과 외국인의 상호작용을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나 희곡, 다른 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 가치, 믿음, 시각 등을 제공하는 작품들.
- 4) 외국 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경험과 반응들을 그리고 비 허구적인 작품들.
- 5) 미국 문화의 가치를 명확하게 반영해서 가치 있는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59) 김혜영(2012), 「한국어교육에서 수준별 소설 텍스트 선정을 위한 연구 : 텍스트 위계화를 위한 변인에 대한 고찰」,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27. p. 183 인용.

60) 신윤경(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재인용.

수 있는 작품들. 단 교사의 설명이 필요한 작품들.

- 6)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조정하는 미국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미국 작가의 시나 외국 작품을 번역한 시.
- 7) 문화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미국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나 희곡.
- 8) 미국인의 삶에서 기본적인 화두가 되는 주제(자유 대 권위, 소수민족의 권리, 신앙의 자유 등)에 대해 미국인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에세이, 시, 소설, 희곡.
- 9) 외국인이 미국 생활에서 겪으면서 이해한 내용을 서술한 작문.

Lazar(1993)는 학습자의 흥미 뿐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작품인지, 교수요목과 조화는 어떤지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텍스트 선정 기준 3가지를 제시하고 있었다.

· Lazar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

- 1) 수업 유형에서는 학습자의 수준, 학습자가 해당 언어를 학습하는 이유, 수업에서 요구되는 언어의 종류, 수업의 길이와 시수, 교수요목에 문학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2) 학습자의 유형에서는 나이, 지적 성숙도, 정서적 이해도, 흥미와 문화적 배경, 문학에 대한 지식, 언어 숙달도.
- 3) 기타 관련 요소들로 어떤 종류의 텍스트를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의 유용성과 텍스트 활용을 위해 어떠한 과제와 활동을 고안할 것인가 하는 활용 가능성, 학습 시간 및 텍스트 이해를 위한 배경 정보 양 등에 영향을 주는 텍스트의 길이, 교수요목과의 조화.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 텍스트의 선정 기준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 번째, 학습자의 언어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작품성이 뛰어나고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능력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일단 텍스트로 선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여 학습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능력보다 지나치게 쉽고 단순한 텍스트도 같은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현대 작품이 좋다. 이는 고전 작품일 경우, 한자나 고어 등 어휘를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야기 또한 학습자가 접하는 현실적인 맥

락에서 동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인간의 보편적 주제를 다룬 것이 좋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보편적인 정서인 사랑, 미움, 질투, 오만 등의 감정이나 부모, 형제, 자식, 친구 등의 사회적 인간관계, 이외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가치들의 중요성을 다룬 것을 선정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생활이나 경험과 연관된 것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네 번째, 소설 텍스트의 길이는 짧고 비교적 간결한 것이 좋다. 소설의 경우 장편 소설은 구조가 복잡하고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단편소설이 우선은 적당하다고 본다. 부득이 장편 소설을 수업의 제재로 활용할 때는 작품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가능한 한국인의 삶과 문화가 잘 드러난 작품이면 더 좋다. 이는 한국어교육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정이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의 양상을 분류하여 이에 맞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가 잘 소설 속에서 잘 반영된 텍스트를 선정하거나 역사적인 흐름을 소재로 한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어 교육에서 선정한 기준을 좀 더 보완하여 한국어교육 현장에 맞게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대분이다. 윤영(1999)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흥미와 언어능력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국어 교육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과 조금 다른 점은 주제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윤영(1999)에서 제시한 텍스트 선정 기준이다.⁶¹⁾

· 윤영(1999)의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

- 1)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우선 흥미가 있는 작품을 읽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흥미와 재미를 가진 작품이더라도 문학적으로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문학수업에서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 3) 외국어를 배우는 언어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문학 텍스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 4)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을 담은 작품, 즉 한국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야 한다.
- 5)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고려해서 문학작품을 선별해야 한다.

61) 윤영(1999), 「외국인을 위한 소설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6) 가능한 현대 작품이 좋다.
- 7) 주어진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 8) 현대 사회의 한 특징인 매체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안미영(2005)도 여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의 실정에 맞게 다음과 같이 8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 안미영(2005)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

- 1) 외국인 학습자가 그 나라 최근의 문화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현대 작품이 좋다.
- 2) 외국인 학습자에게 흥미가 있는 작품을 선택한다.
- 3)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작품이어야 한다.
- 4) 학습하기에 길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 5) 학습자의 읽기 수준에 맞는 작품으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 6)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 즉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상황을 담고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 7)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을 담은 작품이어야 한다.
- 8)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문학교육이 될 수 있다.

안미영(2005)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바로 위에서 제시한 윤영(1999)의 선정 기준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서만 다르게 제시를 하였고 전제적인 선정기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윤경(2008)⁶²⁾은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고 그것을 점수화시켜, 실제 수업에 응용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적절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제안하였다.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었다.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2) 신윤경(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문학 텍스트 선정기준과 교수 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표 31> 신윤경(2008)에서 제안한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

선정 기준	내용
1. 교육 과정과 수업 목표의 고려	한국어를 학습하려고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목표는 다양하다.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부터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외국인 학습자 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따라 텍스트도 다양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를 배우는 목표에 따라서도 목표에 맞는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텍스트 자체에 대한 고려	텍스트 자체에 대한 고려는 문학사적 가치, 문체적 측면, 그리고 텍스트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사적 가치는 텍스트의 작품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문체적 측면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텍스트의 길이는 수업에서 효용성과 관련된 문제로 텍스트의 길이가 너무 길면 수업에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3. 주제 및 활용성	텍스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주제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용성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위에 제시한 신윤경(2008)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은 한국의 중·고등학교 국어 및 문학 교과서로 범위를 설정하고 그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은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정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을 구체화 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윤경(2008)은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대상으로 위에 제시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한국어교육에서 적합한 문학 텍스트를 수필과 소설로 나누어 제시하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여 ‘제목과 작가’, ‘주제 및 내용’, ‘수업에서의 활용성’으로 나누어 단편 소설을 선정하였는데, 정전 위주의 소설을 범위로 설정하여 최근에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소설을 배제하

고 있다는 것에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⁶³⁾

윤여탁(2002)⁶⁴⁾은 한국어교재에서 문학 정전의 목록을 설정한다는 목적으로, 각 기관의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텍스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한 작품들의 기준이 주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할 만한 난이도의 작품이거나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품임을 밝히고 있는데 각각의 텍스트들을 수준별로 나누지 않고 나열한 것에만 그쳐 해당 소설의 등급의 위계가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는 연구다.

김대행(2001)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주요 텍스트들의 목록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것들을 목록화 하고 있었는데 선정한 목록을 살펴보면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텍스트들이 있다. 또한 고전 소설이나 장편 소설의 경우 한국의 중·고등학생들도 부담이 있는 소설인데 위 연구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고전 소설이나 장편 소설을 제시하여 교육할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아 연구에 아쉬움이 있다. 윤여탁(2002)와 김대행(2001)에서 선정한 소설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32> 윤여탁(2002), 김대행(2001)에서 선정한 소설 작품 목록

윤여탁(2002)	소나기(황순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주요섭),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동백꽃(김유정), 날개(이상) ⁶⁵⁾
김대행(200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주요섭), 운수 좋은 날(현진건), 상록수(심훈),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동백꽃(김유정), 태평천하(채만식), 소나기(황순원), 등신불(김동리), 오발탄(이범선), 광장(최인훈), 토지(박경리), 나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무진기행(김승옥), 선학동 나그네(이청준),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토끼전, 홍길동전, 허생전, 구운몽, 양반전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외국인 학습자들의 목적에 맞는 문학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

63) 신윤경(2008) 소설 텍스트 선정 작품 목록은 부록에 따로 제시하겠다.

64) 윤여탁(2002), 「한국어교육에서 현대 문학 정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65) 나열 기준은 응답자 추천이 많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습한다. 목적에 맞게 학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그에 맞는 학문적으로 유용한 텍스트를 선정해야 할 것이고, 일반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교실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해야 할 것이고 그 외 특수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의 문학 텍스트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텍스트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문학 작품은 고전부터 현대 문학 작품까지 수많은 텍스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텍스트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는 대부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 및 문학 교과서에 실린 정전을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정전 외에도 최근에 발표된 문학 텍스트도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최근 각종 문예지에서 발표된 작품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충분한 검토와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꼭 정전에서만 문학적 가치가 있는 문학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외국인 학습자들의 등급을 고려한 텍스트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텍스트라고 해도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교육적 활용도는 저조할 것이다. 네 번째는 문학 작품 텍스트의 길이이다. 세 번째와 같은 맥락으로 외국인 학습자의 등급에 맞게 텍스트의 길이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교육적 활용이다. 문학 텍스트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때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문학 텍스트를 교실 현장에서 교육할 때 그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의 언어교육에서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선정 기준 대부분이 문학 작품 전체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문학 텍스트 중 소설 텍스트를 선정한 이유는 II장에서 밝혔다시피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 중 소설을 가장 많이 접할 기회가 있고 또한 한국 문화를 교육할 때 소설 텍스트만큼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문학 텍스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 문화를 교육할 때 제재로 활용할 소설 텍스트에 대해 다음 절에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을 제시하겠다.

2)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에 따른 등급별 소설 텍스트

문학 작품 중 소설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제시하고 가르칠 것인가’일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설 텍스트 중에서 어떤 것을 선정하여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문화를 교육할 때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 그 자체를 이해하여 문화 항목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시된 텍스트만을 이해하는데 그치면 소설을 활용한 문화 교육이 아닌 소설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어휘 및 표현을 학습하는 것에 그치게 되고 말 것이다.

장정숙(2010)은 기존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과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작품 외적인 기준과 작품 내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 장정숙(2010)의 소설 텍스트 선정기준⁶⁶⁾

작품 외적인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일반, 학문 또는 특수 목적)과 수업 목표 고려 - 외국인 학습자의 어휘 수준 - 외국인 학습자의 흥미 고려 	
작품 내적인 부분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의 구성 - 문장의 길이 - 문법 및 어휘의 실제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적 가치 - 주제의 보편성 - 한국인의 생활 모습

김동환(2010)은 특히 문제해결로서의 문화교육을 고려한 다면 소설에 구현된 문화현상의 의미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문화교육을 위한 소설 텍스트 선정 시 소설의 양식적 속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 작품과 관련된 텍스트 선정 기준을 통해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제재로 활용할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공통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등급별 세부

66) 장정숙(2010), 「한국어교육을 위한 현대 단편소설 선정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22-26.

기준이다. 공통 기준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모든 등급에서 통용되는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이고, 등급별 세부 기준은 말 그대로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등급에 맞는 초급, 중급, 고급에서의 선정 기준이다.

공통 기준으로는 여섯 가지의 기준을 세웠다. 첫 번째는 ‘짧지만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는 텍스트’, 두 번째는 ‘문화 교육의 제재가 되는 텍스트’, 세 번째는 ‘문화 항목의 배경 지식이 되는 텍스트’, 네 번째는 ‘문화 항목의 공유 텍스트’, 다섯 번째는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한 텍스트’, 마지막 여섯 번째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텍스트’로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의 경우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 논문 II장에서 인용한 임경순(2003)의 문화적 측면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세 번째 기준과 네 번째 기준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를 접하였을 때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장면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해당 문화 항목을 공유할 수 있는 소설 텍스트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설정한 것이다. 다섯 번째 기준과 여섯 번째의 기준은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 논문 III장에서 인용한 신윤경(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용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 등급별 세부 기준은 초급의 경우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고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3~4 문장 이내의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는 문화를 학습하는 해당 등급의 외국인 학습자를 고려한 선정 기준이다. ‘관심과 흥미의 고려’의 경우 외국인 초급 학습자는 한국 학습한 기간이 길어야 6개월일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텍스트가 얼마만큼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포함 시킨 것이고, ‘문화 교육으로 가치’는 공통 선정 기준과 본 논문의 목적이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문화 교육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포함 시킨 것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 3~4 문장 이내’는 해당 등급의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에 포함 시킨 것이다.

중급의 경우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문화어가 제시된 1~2 문단 이내의 텍스트’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중급 단계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텍스트를 읽을 때 내용 중심이 아닌 어휘 중심으로 텍스트를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모르는 어휘가 문화어가 될 수 있게 텍스트를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문화 항목에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화어가 제시된’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이다. ‘문화 교육으로 가치’

는 초급과 동일한 이유로 기준에 제시한 것이고, ‘1~2 문단 이내’의 경우는 중급 외국인 학습자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텍스트의 분량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넣은 것이다.

고급의 경우는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화어가 제시된 1~2 단락 이내의 텍스트’로 선정 하였다. ‘문화 교육으로 가치’의 경우 초급, 중급과 동일한 이유로 문화 항목을 가르치기 위한 텍스트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포함 시킨 것이고, ‘난이도가 있는 문화어’의 경우 중급보다는 인지하고 있는 어휘의 양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라는 명칭을 선정 기준에 포함 시킨 것이고. 마지막으로 ‘1~2 단락 이내’의 경우 역시 중급과 동일하게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분량이라서 선정 기준에 포함 시킨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교육할 때 제재로 활용할 소설 텍스트의 선정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본 논문에서의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

분류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의 내용	
공통 기준	1) 짧지만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는 텍스트 2) 문화 교육의 제재가 되는 텍스트 3) 문화 항목의 배경 지식이 되는 텍스트 4) 문화 항목의 공유 텍스트 5)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한 텍스트 6) 외국인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텍스트	
등급별 세부 기준	초급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고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3~4 문장 이내의 텍스트
	중급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문화어가 제시된 1~2 문단 이내의 텍스트
	고급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화어가 제시된 1~2 단락 이내의 텍스트

위에서 제시한 소설 텍스트 선정기준에 따라 한국의 문화를 교육하기에 적합한 한국의 현대 소설 텍스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35> 선정 기준에 따른 소설 텍스트 작품 목록

등급	한국의 현대 소설 목록
초급	성취문화-요람기 <오영수> <연날리기 부분>
	행동문화-소나기 <황순원> <한국의 계절에 따른 날씨>
	정보문화-혼불 <최명희> <전통혼례>
	성취문화-서편제 <이청준> <판소리>
중급	행동문화-역마 <김동리> <사주 팔자>
	정보문화-운수 좋은 날 <현진건> <홍정과 덩>
	성취문화-수난 이대 <하근찬> <한국 전쟁>
고급	행동문화-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빈부격차>
	정보문화-코끼리 <김재영> <다문화 사회>

본 논문에서 선정한 소설 텍스트의 목록을 보면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등급과 관련하여 어휘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난이도가 있는 작품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설의 내용을 모두 제재로 활용하지 않고 소설 속에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의 난이도 및 내용의 난이도는 소설 텍스트의 장면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retelling)를 하여 교육적 제재로 활용하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이다.

보통 문학 작품을 교육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접근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언어적인 접근이고, 두 번째가 문학적 접근, 마지막 세 번째가 문화적 접근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학 작품 중 소설을 문학적 가치(literary merit)로 접근하지 않고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교육적 가치(educational value)로 접근을 하였다. 위의 표에 제시한 소설 텍스트를 문학적 가치(literary merit)로 접근하여 외국인 학습자에게 교육을 한다면 본 논문에서 선정한 작품 자체가 외국인 학습자들의 등급에 맞는 텍스트는 아닐 것이다. 이는 소설 텍스트를 문학적 가치(literary merit)로 접근하는 것과 교

육적 가치(educational value)로 접근하는 것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고도 할 수 있다.⁶⁷⁾

한국어교육용 교재에서도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교육할 때 텍스트를 재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문학 텍스트 자체를 문학적 가치(literary merit)로 접근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닌 문학 텍스트를 교육적 가치(educational value)로 접근하여 제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재화(retelling)’라는 용어는 김동환(2010)⁶⁸⁾의 연구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김명권(2015)⁶⁹⁾은 한국어 초급, 중급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설 텍스트 재구성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서 등급별로 제시하고 있는 어휘와 표현을 가지고 교육적 제재로 활용할 소설 텍스트의 말뭉치를 분석하여 소설 텍스트의 어휘와 표현을 해당 급에 맞는 어휘와 표현으로 재구성한다면 그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하면서 현행 한국어교육에서 읽기 텍스트의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김명권(2015)은 소설 텍스트를 해당 외국인 학습자의 등급에 맞는 어휘로 교체하는 작업을 ‘재구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다. ‘재구성’이란 용어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재화(retelling)’라는 용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텍스트는 김명권(2015)에서 한국어 초급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나기’라는 소설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초급 외국인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 한 것이다.

67) 본 논문에서 문학적 가치(literary merit)와 교육적 가치(educational value)에 대한 개념은 ‘가치(merit, value)’라는 용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학적 가치(literary merit)는 선정한 문학이 문학적적으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교육적 가치(educational value)는 선정한 문학 작품을 다양한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68) 김동환(2010)은 한국어교육에서 소설을 제재로 활용할 때 재화(retelling)의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문화교육을 상정하는 입장에서 재화(retelling)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한다. 작품 전체를 다 보여 주어야 할 필연성은 없으며 학습자를 고려하여 어휘나 표현, 사건 전개 양상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작가의 통찰력에 기반한 감각적 명징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단순한 교열이 아닌 재화(retelling) 차원에까지 수정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일은 필수적이겠지만 교육적 목적을 위한 수정에는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학습자에 맞게 재화할 수 있다면 한국어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지리라 본다.

69) 김명권(201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소설 텍스트 재구성 방안 연구-초급, 중급을 위한 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0호, 영주어문학회. p. 195-197.

<표 36> 김명권(2015)에서 제시한 소설 텍스트 『소나기』 재구성⁷⁰⁾

원문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뻥히 들여다 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재구성
오랫동안 세수하고 나서, 이번에는 물속만 계속 들여다본다.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 같다.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라도 지나가는 것 같다.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빨리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계속/할 때마다 못 잡는다. 그대로 재미있는지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키려고 하는 것 같다.

김명권(2015)에서 소설 텍스트 ‘소나기’를 재구성 한 것을 보면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어휘들(문화어)은 따로 각주로 영어 번역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개울둑의 경우 (bank)’로 처리하였다. 다만 위 연구는 읽기 자료로써 텍스트의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 소설 텍스트를 분석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등급에 맞는 어휘로 재구성을 하였지만 재구성된 소설 텍스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읽기 텍스트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연구였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소설 텍스트의 경우 역시 재화(retelling)를 거쳐 교육적 제재로 활용한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의 장면을 보고 문화 항목을 인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재화(retelling)를 거친 소설 텍스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된 텍스트보다는 실제성 면에서 교육적으로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설 텍스트의 경우 그 목적이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 문화의 교육적 자료로써 소설 텍스트를 활용을 한다면 외국인 학습자에게 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작품에 대해 문학적 가치(literary merit)를 논한다면 선정한 작품들은 모두 국어교육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거나 정전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들이다. ‘다문화’라는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한 작품 김재영의 ‘코

70) 위 논문 김명권(2015) p. 195의 내용을 인용.

끼리’는 전국의 대학에서 현대소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주축이 된 <한국현대소설학회>에서, 매년 문예지에 발표된 소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엮은 『올해의 문제소설』⁷¹⁾이라는 작품집에 수록이 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김재영의 ‘코끼리’는 문학적 가치(literary merit)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소설 텍스트의 장면들을 외국인 학습자들의 등급에 맞게 재화(retelling)를 통해 해당 문화 항목을 교육한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 항목을 인지하는데 실제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적 가치(educational value)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선정한 소설 텍스트의 선정 기준과 그에 적합한 소설 텍스트 목록을 제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선정한 소설 텍스트 목록으로 위계화 시킨 단계를 적용하여 한국 문화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겠다.



71) 『올해의 문제소설』의 선정 경위는 월간지, 계간지, 무크지 등의 문예지를 통해 발표된 중·단편 소설로 우리 소설 문학의 오늘과 내일을 가늠할 수 있는 문학과 문제성을 지닌 작품을 선정 기준으로 세우고 있었다.

IV. 소설 텍스트를 통한 단계별 문화교육 방안

본장에서는 선정한 문화 항목에 대해 위계화 시킨 단계를 적용하여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기존의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의 연구들과 본 논문의 차별성은 문화를 교육할 때 단계를 적용하여 가르친다는 것이다.

김수진(2009)⁷²⁾은 기존의 한국 언어문화교육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문학작품이 갖는 맥락 관점에서의 의의를 전제로 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실제 문학을 활용한 교수-학습은 맥락의 활성화보다는 개별 언어문화 요소를 고립시켜 맥락을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 언어문화 요소를 고립시킨다는 말은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를 교수할 때 문학 작품의 일차적인 접근만⁷³⁾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수업의 실제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관련된 문제 확인 차원에서만 머무르거나 또는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문법과 어휘, 표현 등의 수업 제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 문화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어휘, 문법 등의 수업 시간이 모자라 해당 문화를 생략하거나 하는 등의 것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임경순(2006)은 문화 중심의 교육에서는 언어 능력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문화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업 형태, 목표, 내용, 자료, 방법, 수업 언어 등에 따른 교수·학습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 수업 형태의 다양성 원리: 교수·학습은 언어와 문화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학습과 교실 밖의 체험 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수업과 체험의 유기성 원리: 교실 학습과 현장 체험 학습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 능력 신장 원리: 교수·학습의 목표는 언어 능력 신장에서 문화 능력

72) 김수진(2009)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언어문화교육 연구-맥락 활성화에 기반한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31-58.

73) 일차적인 접근이란 작품(텍스트)을 읽고 해당 작품(텍스트)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심리, 성격 등과 관련된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신장을 강화라는 방향으로 한다.

－ **문화 비중 점증의 원리**: 언어와 문화가 통합적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 비중이 점차 언어에서 문화로 증가되도록 한다.

－ **주제(내용) 개별화의 원리**: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내용)는 보편적인 주제(내용)에서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나타내는 주제(내용)를 선정한다.

－ **자료 복잡화의 원리**: 언어 자료는 어휘나 문장이 단순한 것에서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사용한다.

－ **지식, 수행, 태도, 경험 통합의 원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 수행, 태도, 경험이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한다.

－ **과제 수행의 책임 이양의 원리**: 수업 과제 수행의 책임이 점차 교사로부터 학습자로 이양되도록 한다.

－ **대화적 상호 작용 원리**: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의 대화적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목표어 증가의 원리**: 수업 언어는 학습의 모어나 목표어(한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점차 목표어를 증가시켜나가도록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를 교육할 때는 명확한 교수·학습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환(2010)은 소설을 활용한 문화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 문화의 수행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라 보고 있는데 그를 위해 학습자의 ‘사고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 7단계의 학습활동 모형을 구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단계들은 “도입 1 [상호텍스트성] - 도입2 [비교문화적 접근] - 전개 1 [문화의 일차적 성격] - 전개 2 [문화의 세부적 요소들] - 전개 3 [문화의 전승] - 전개 4 [의식의 양상] - 정리 [문화적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논의들을 참조하여 소설을 활용한 문화 항목을 교수할 때 위에서 제시한 위계화 시킨 단계를 적용하여 문화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은 본 논문 III장에서 선정한 등급별 문화 항목에 대해 한국어교육용 교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⁷⁴⁾ 위에서 위계화 시킨 단계에 맞추어 한국의 현대 소설 텍스트를 제재로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실제 교육 방안을 외국인 학습자 등급별로 제시를 하겠다. 소설 텍스트의 제시는 원문과 함께 재화(retelling)⁷⁵⁾가 된 텍스트까지 함께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

74) 본 논문 II장 교재 분석에서 자세히 제시를 하였기에 본 장에서는 항목 당 1개의 예를 들었다.

화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⁷⁵⁾

실제 교육 방안 제시는 외국인 학습자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제시를 하고, 초급에서는 이해 단계에 중점을 두고, 중급은 적용 단계에 중점을, 고급은 생산 단계에 중점을 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 단계의 경우는 모든 급이 동일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는 초급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은 언어적인 문제로 적용 단계와 생산 단계에서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탐색하는 수준의 이해 단계에 중점을 둔 것이다. 중급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도 언어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화의 탐색 차원에서 한 단계 심화된 적용 단계에 중점을 두었다. 고급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은 언어적인 문제보다는 문화 수용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해당 문화 항목을 재생산하는 단계인 생산 단계에 중점을 두었다. 평가 단계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 등급과 상관없이 자신이 각 단계별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등급이 동일한 항목으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먼저 한국교육용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문화, 정보 문화, 행동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문화교육 방안 비교를 위한 등급별 교재 내 문화 항목

II장의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II장에서는 ‘성취 문화, 정보 문화, 행동 문화’의 문화 유형 분류에 따른 교재 분석을 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단계별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한국어교육용 교재에서는 본 논문에서 선정한 문화 유형의 세부 문화 항목을 어떠한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단계별 한국 문화 교육 방안 내용과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는 각 급당 문화 항목의 예를 하나씩만 들고자 한다.

75) 김동환(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재화(retelling)’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76) 본 논문에서 제시한 소설 텍스트의 재화(retelling)의 경우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에서 외국인 학습자 등급별로 선정한 어휘 목록을 인용하여 재화(retelling)를 한 것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휘 목록의 등급별 어휘 수에 대해 제시하고 있었다. 어휘 목록의 경우 그 수가 너무 많아 따로 제시하지 않겠다.

숙달도	어휘수	누적 어휘수	비고
초급	1,681	1,683	
중급	3,007	4,690	
고급	6,428	11,118	고급 어휘는 개방 목록임

1) 초급 교재의 ‘성취 문화’

① C대학 초급 2 한국어교재 (3과)에 제시된 문화 항목

- 0 대상: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 0 단원: 3과
- 0 주제: 음식과 생활
- 0 기능: 전화로 음식 배달 주문하는 대화 듣기/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기 / 요리법 설명하기 / 요리법에 대한 글 읽고 쓰기
-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성취 문화
 - 대분류-한국인의 생활
 - 중분류-세시 풍속
 - 소분류-명절
 - 문화 항목 내용-명절과 음식.

<명절과 음식>



한국의 대표

적인 명절에는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설날은 새해가 시작하는 날이고, 추석은 가을에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수확한 것을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에는 가적, 친척들이 함께 모여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설날과 추석에 먹는 음식이 좀 다릅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끓여 먹습니다. 떡국은 쇠고기 국물에 가래떡을 썰어 넣고 끓인 국물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 먹습니다. 송편은 보통 가을에 거둔 햅쌀에 콩, 깨를 넣어 찐 떡입니다. 추석 전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보름달을 보면서 송편을 빚는데 반달 모양의 송편이 보름달처럼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편을 잘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합니다.

1. 설날과 추석에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까?
2.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명절에 무엇을 먹습니까?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위에 제시한 것은 C대학의 초급(2-1) 한국어교재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텍스트와 활동이다. C대학의 초급(2-1)의 교수요목을 보면 해당 단원은 3과고 주제는 ‘음식과 생활’이다. 기능을 살펴보면 전화로 음식 배달 주문하는 대화 듣기/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기 / 요리법 설명하기 / 요리법에 대한 글 읽고 쓰기로 기능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단원의 주제와 기능은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 항목과의 연관성은 음식이라는 것에만 연관성이 있고 한국의 명절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재에서 이러한 제시의 문제점은 위의 II장에서 자세하게 밝혔다.

교재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 밑에 번역을 넣었지만 번역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는 한국의 전통 문화 항목에 대한 번역 자체가 잘못 번역이 되면 외국인 학습자의 이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등급에 맞지 않은 용어와 텍스트의 길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텍스트를 보면 초급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어까지 곳곳에 등장한다. 번역에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이다. 활동 역시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닌 제시된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에 나오는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라리 두 번째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상을 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문화 항목을 이해하여 직접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활동일 것이다.

해당 교재의 교수요목을 보면 위의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는 ‘문화 알아보기’ 부분 속에 속해 있다. 해당 교재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교재의 구성과 교재 사용법’에서 ‘문화 알아보기’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과 문화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기 나라의 문화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했습니다.’라고 쓰여 있지만 위의 텍스트와 관련 사진 자료와 몇 가지의 활동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교재에서 목표점으로 세우고 있는 것에 도달하지 못 할 것이다. 이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단순히 텍스트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의 질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화의 이해의 차원이 아닌 텍스트에서 해당 질문과 관련된 답을 찾기에 급급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문화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제시하여 문화 비교를 할 수 있게 하였다면 더욱더 교재에서 세운 목표점에 가까워 졌을 것이다. 다음은 중급 한국어 교육용 교재에서 문화 항목 교육의 예이다.

2) 중급 교재의 ‘정보 문화’

① B대학 중급 4 한국어교재 (8과)에 제시된 문화 항목

- 0 대상: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 0 단원: 8과
- 0 주제: 생활과 경제
- 0 기능: 돈 모으는 방법 소개하기, 경제관련 글 읽고 비교하기, 신용카드의 장·단점 듣고 요점 파악하기, 광고의 특성 이해하고 광고 만들기
-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정보문화
 - 대분류-한국인의 생활
 - 중분류-일상생활
 - 소분류-경제활동
 - 문화 항목 내용-한국의 속담에 나타난 경제 의식

<한국의 속담에 나타난 경제 의식>

속담이란 예로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지혜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속담을 통해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경계를 대대손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물건을 살 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샀다가는 물건의 질이 나빠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갓사러 갔다가 망건 산다’라는 속담도 충동구매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으로 이들 두 속담은 비합리적인 소비에 대해 경계를 하는 속담입니다. 반면 ‘열 번 재고 가위질은 한 번 하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물건을 고를 때 여러 조건을 잘 살피고 고려한 후 최선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절제, 신중, 합리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물건을 고를 때 값이 같으면 좀 더 좋은 물건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들 두 속담은 소비를 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속담 속에는 후손에 대한 경계와 함께 경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제 원리가 담겨진 또 다른 예로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아무리 흔하고 많던 물건도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히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제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속담입니다. 또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속담으로는 ‘흉년의 떡도 많이 나면 싸다’, ‘가을 부채는 시세가 없다’ 등의 속담이 있습니다. 전자는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원리를, 후자는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속담입니다.

이 외에도 화폐의 유통 기능을 강조한 ‘돌고 도는 게 돈이다’라는 속담이나 많은 투자를 해야 이익을 낼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돈이 돈을 번다’라는 속담 등이 있습니다.

1. 여러분 나라에서도 경제의식이 들어 있는 속담이 있습니까? 그런 속담을 찾아 보십시오.

2. 왜 그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위에 제시한 텍스트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인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정보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텍스트다. 내용을 보면 속담을 통해 한국인의 경제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주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중급 단계 이후부터 학습하는 한국 문화 중에 행동 문화에 속한다. 속담을 통해 한국인의 경제의식을 파악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 속담의 의미 자체가 어렵고 문화가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은 속담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속담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의 경제 의식까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설명적 텍스트만을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의 경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텍스트 마지막 속담의 설명은 제시하지 않고 예로 넣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활동을 보면 외국인 학습자의 나라와 비교하는 활동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좋지 않은 활동이다. 차라리 텍스트에 제시한 속담 말고 한국의 경제의식을 잘 나타내주는 속담을 학습자들이 직접 찾아서 발표하는 활동을 넣는다면 문화의 적용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고급 한국어교육용 교재에서 문화 항목 교육의 예이다.

3) 고급 교재의 ‘행동 문화’

① A대학 고급 6 한국어교재 (6과)에 제시된 문화 항목

0 대상: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0 단원: 6과

0 주제: 민주화와 산업화

0 기능: 역사적 사건의 전개과정 이야기하기 / 변화 과정 설명하기 / 사건의

의의 설명하기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행동 문화

대분류-한국의 역사

중분류-시대별 역사

소분류-시대

문화 항목 내용-한국의 산업화

<그때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리운 시기는 언제일 것 같은가?

●다음은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시절에 대한 글이다. 잘 읽고 내용을 이해해 보자.

6, 70년대를 떠올리는 중년층 이상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묘한 그리움이 묻어 있다. 물도 쉽게 구 할 수 없는 달동네나 판자촌에서의 생활, 콩나물 시루 같은 만 원 버스를 타고 매일매일 치러야 했던 출근 전쟁, 자정이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어김없이 시작되는 야간 통금 시간, 길거리에서 느닷없이 이루어지는 두발·복장 단속. 이러한 6, 70년대를 보여주는 시대 상황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독재 정치로 자유가 억압되던 시절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빈곤과 억압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의 가난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무엇인가가 아니었다. 몸서리쳐지게 가난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자우가 억압된 상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모순적인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 속에 온 국민이 경제 발전을 위해 하나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유나 민주화는 나중에 미뤄 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어찌 되었든, 희망의 빈곤으로 대표되는 6, 70년대는 중년층의 어린 시절 추억과 뒤섞여 그리움의 시대로 그려지고 있다.

●여러분 나라의 6, 70년대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는가? 사람들은 그 시대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위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문화 항목 분류 중 행동 문화에 속하는 한국의 산업화와 관련된 텍스트로서 한국어 고급 학습자에게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이다. 내용은 한국의 어려웠던 시절인 1960~70년대의 생활상을 설명하고 있다. 텍스트에는 그때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많은 문화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텍스트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질문을 통한 도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질문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리운 시기는 언제일 것 같은가?’라는 질문이 등장한다. 이 질문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의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경우도 있고 대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특정한 세대를 언급하지 않아서 일 것이다. 만약 질문에 특정한 세대를 언급하였다면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한 도입 질문으로 더 적절하였을 것이다.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난 후 연습 활동 질문을 보면 그저 텍스트를 읽고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찾는 정도의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 시대를 떠올릴 수 있는 문화어도 설명하고 문화적인 내용도 설명한 후 진행하는 연습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해당 시대를 나타내는 문화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국인 학습자의 생각을 물어본다든지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고 직접 그 시절을 보고 소감을 이야기해 보는 활동이 더 적절할 것이고 외국인 학습자가 문화 항목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한국의 현대 소설 텍스트를 제재로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실제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2. 등급별 문화 항목의 교육 방안

1) 초급

① 『요람기』를 통한 성취 문화

먼저 제시할 문화 항목은 성취문화 중 한국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한복, 강강술래, 연날리기’란 문화 항목이다. 그 중에서 연날리기와 관련된 수업의 실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0 대상: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성취 문화

대분류-한국의 문화유산

중분류-문화재

소분류-무형문화재

문화 항목 내용-연날리기, 한복, 강강술래 등

가. 탐색을 위한 ‘이해’ 단계

본 단계에서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보고 적용단계에서 제시될 소설 텍스트 속의 상황을 미리 짐작해보는 단계이다. 제시된 그림 자료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 스스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게 그림 자료만을 제시한다. 이는 그림 자료에 대화문이나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어휘가 노출이 된다면 초급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바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 항목에 대한 탐색을 하는 단계이다. 그림이나 사진 자료는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그림 자료로 ‘연날리기’와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제시한다.

<이해 단계에서 제시할 사진 자료> - 연날리기

<출처-네이버 이미지>



사진 자료를 제시 후에는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 항목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문답 형식의 질문을 제시한다. 질문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이 쓰기보다는 말하기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구상하여 제시한다.

- 위 사진 속의 물건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 여러분 나라 말로는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 한국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질문을 통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나라에 위의 사진과 비슷한 물건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물건의 명칭이 한국어로 무엇일지 궁금해 할 것이다.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일차적 접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보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단문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고,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바로 피드백을 하기 보다는 학습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준다. 이러한 접근 과정을 거치면서 초급 외국인 학습자는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탐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단계에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탐색을 해야 다음 단계에서 소설 텍스트 속의 상황을 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급 외국인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나. 심화를 위한 ‘적용’ 단계

본 단계는 이해 단계에서 해당 문화 항목을 어느 정도 탐색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제시된 소설 텍스트에 적용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에 제시된 어휘와 표현(문화어)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이 초급 학습자임을 가만하여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텍스트를 제시한다. 재화의 효용성은 본 논문 III에서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에서 이미 밝혔다.

제시할 소설 텍스트의 경우 위의 선정 기준에 맞게 3~4문장의 해당 문화 항목이 가장 잘 드러난 간단한 소설 텍스트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어 초급 외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 텍스트 밑에 사진 자료를 제시한다. 다음은 적용 단계에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소설 텍스트와 사진 자료이다.

「연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가오리연, 문어연, 술개연, 방구연..... 방구연

에는 홍연과 상주연이 있었다. 홍연은 종이에 물을 들인 붉은 연이고, 상주연은 흰 종이 그대로 발라 만든 연이다.



연의 재미는 역시 연싸움에 있었다. 당사애다 아교를 먹여 유릿가루를 묻히는 것을 "사(砂)를 먹인다."라고 했다. 사가 잘 먹은 실에는 손을 베이기가 일쑤였다. 이렇게 사를 먹인 실을 열레가 두툼하게 감고 홍연을 높직이 바람을 태워 가지고 싸움에 나설 때에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 같은 기세였다.」

<오영수-『요람기』 중 '연날리기 부분'>

▷ 재화(retelling)한 소설 텍스트

「연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가오리연(shape of a ray kite)⁷⁷⁾, 문어연(shape of an octopus kite), 술개연(shape of a dog kite), 방구연(방패연 bangpai kite)..... 방구연(방패연 bangpai kite)에는 붉은 색 연과 하얀 색 연이 있었다. 홍연은 종이에 물을 들인 붉은 색 연이고, 상주연은 흰 종이에 그대로 만든 연이다.

연의 재미는 역시 연싸움에 있었다. 실애다 풀을 발라서 유릿가루를 묻히는 것을 "사(砂)를 먹인다."라고 했다. 사가 잘 먹은 실에는 손을 자주 다쳤다. 이렇게 사를 먹인 실을 열레(reel)에 두껍게 감고 홍연을 바람에 날려 가지고 연 싸움을 시작할 때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 같은 모습이였다.」

위 소설 텍스트와 사진 자료를 통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해 단계에서

77) 문화어의 경우 재화를 하게 되면 소설 텍스트가 해당 문화의 교육적 제재로써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번역으로 처리하였다.

탐색한 해당 문화 항목을 제시된 소설 텍스트에 연관 지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텍스트를 읽고 스스로 사진 자료와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또한 적용 단계에서는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해당 문화 항목을 이해 단계보다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소설 텍스트와 사진 자료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활동까지 제시한다. 관련된 활동은 초급 학습자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하고 쉬운 활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써 봅시다.

--

위 활동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모르는 어휘를 써 본다.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제시된 텍스트가 재화를 거친 텍스트라고 해도 모르는 어휘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이 쓴 어휘 중에 해당 문화와 관련된 문화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어휘 설명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 항목을 노출할 수 있다.

-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연을 그리고 설명을 해 봅시다.

	<hr/> <hr/> <hr/> <hr/> <hr/>
<p><친구가 만든 연에 대해 써 봅시다.></p> <hr/> <hr/> <hr/>	

위에 제시한 활동의 경우 직접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소설 텍스트에 잘 적용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다.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을 소설 텍스트와 관련된 활동에 직접 적용을 해 볼 수 있고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 상호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위 활동에서 ‘연’이라는 문화어를 자연스럽게 노출 시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다음 단계인 생산 단계를 위한 활동이기도하다.


다. 재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본 단계는 지금까지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단계와 적용단계를 거쳐 인지한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아 해당 문화 항목의 재생산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문화 항목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문화 항목은 무형문화재 중 ‘연날리기’다. 이와 관련된 무형문화재를 확장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제시한다. 다음에 제시한 것은 해당 문화 항목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이다.

- 한국에는 ‘연날리기’와 함께, 다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3~4명이 한조가 되어 문화재의 이름과 설명을 써 봅시다.

	<hr/> <hr/> <hr/> <hr/>
<p style="text-align: center;">< ></p>	
	<hr/> <hr/> <hr/> <hr/>
<p style="text-align: center;">< ></p>	

	<hr/> <hr/> <hr/>
<p style="text-align: center;">< ></p>	

위 활동에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연날리기’ 말고 다른 무형문화재에 대해 조별로 정보를 파악 한다. 보통 정보 파악하기 활동이라고 하면 한국어 중급 이상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하는 활동이지만 여기서 정보 파악하기 활동은 한국어 초급 외국인 학습자에 맞는 활동지를 따로 부여하여 인터넷, 잡지 등 여러 매체 자료를 이용하여 그룹 활동지를 제작하는 것이다. 교사는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활동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조사하여 파악한 정보를 발표 할 수 있게 활동지를 제시한다.

· 여러분이 선택한 문화재는 무엇입니까? 사진과 함께 설명도 써 봅시다.

<사진>

위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완전한 인지와 함께 한국의 중요 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화의 확장을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그룹을 나누어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만 살펴본다.

라. 명료성과 정확성 검증을 위한 ‘평가’ 단계

본 단계는 지식의 재확인 단계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 항목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단계이고 동시에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 - 단계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교사 피드백 결과

<학습자 자가 평가> - 학습자 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위의 평가 항목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단계별로 수행한 활동에서 자신이 문화 항목을 얼마나 인지를 하였는지 인지도를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평가를 진행하면서 문화 항목에 대한 재확인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경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단계별로 수행한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해당 문화 항목을 제대로 인지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② 『혼불』을 통한 정보 문화

다음은 초급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정보 문화에 대한 교육 방안의 예다.

0 대상: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정보 문화

대분류-한국사회

중분류-관혼상제

소분류-관례/혼례

문화 항목 내용-결혼문화

가. 탐색을 위한 ‘이해’ 단계

본 단계도 위의 성취 문화 교육 방안과 동일하게 초급 외국인 학습자에게 사진을 먼저 제시한다. 제시한 사진을 보고 학습자는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할 수 있고, 교사는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제대로 탐색할 수 있게 명확한 사진을 제시한다.



사진을 제시 후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질문을 같이 제시한다. 질문의 경우 초급 외국인 학습자임을 가만하여 단문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을 제시한다.

- 사진 속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위 질문 활동을 통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사진 속의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답변을 함으로써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라는 문화 항목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의 배경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심화를 위한 ‘적용’ 단계

위 성취 문화의 적용 단계와 동일하게 본 단계서 소설 텍스트를 초급 외국

인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초급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항목의 인지를 돕기 위해 소설 텍스트 속의 장면과 일치하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소설 텍스트의 장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시할 소설 텍스트의 경우 위 선정 기준에 맞게 제시하고 재화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제시한다.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하라는 말이 꼬리를 끌며 마당에 올리자, 신부의 양쪽에 서 있던 수모가 신부를 부축한다. 신부는 팔을 높이 올려 한삼으로 얼굴을 가리운다.」 「사모(모자)를 쓰고 자색 단령(관복)을 입은 신랑은 소년이었다. 자그마한 체구였고, 얼굴빛은 발그레 분홍물이 돌아, 귀밑에서 볼을 타고 턱을 돌아 목으로 흘러내리는 여린 선에 보송보송 복숭아털이 그대로 느껴진다.」

<최명희-『혼불』 중 '전통혼례 부분'>



▷ 재화(retelling)한 소설 텍스트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하라는 말이 마당에 올리자, 신부의 양쪽에 서서 신부를 도와주는 여자가 신부를 옆에서 도와준다. 신부는 팔을 높이 올려 한삼(**한복 밑에 있는 넓은 소매)⁷⁸⁾으로 얼굴을 안 보이게 하였다.」

「모자를 쓰고 자주색 옷을 입은 신랑은 소년이었다. 작은 몸이었고, 얼굴색은 발그레 분홍물이 돌아, 귀밑에서 볼을 타고 턱을 돌아 목으로 흘러내리는 여린 선에 보송보송(**숨털과 같이 작고 부드러운 것이 돌아 있는 모습) 복숭아털(**사람 얼굴에 있는 가는 털)이 그대로 느껴진다.」

위에 제시한 소설 텍스트는 최명희의 '혼불'이라는 작품이다. 소설 텍스트에서 전통혼례 중 '신랑과 신부'의 외양묘사와 관련된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초급 학습자에게는 문학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작품이지만, 소설 텍스트를 교육적 활용하여 해당 장면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여주고 초급 학

78) 초급 어휘 목록에 대체어가 없는 경우 의미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습자들에게 어휘(문화어)를 설명해주면 충분히 이해 가능할 것이다.

위에 제시한 소설 텍스트를 통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밑에 제시한 사진 자료와 함께 이해 단계에서 탐색한 문화 항목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사는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를 읽고 스스로 사진 자료와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또한 소설 텍스트와 관련된 질문을 함께 제시하여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움 없이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 위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써 보시다.

--

위 활동에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를 읽고 모르는 어휘를 써 본다.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제시된 텍스트가 재화를 거친 텍스트라고 해도 모르는 어휘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이 쓴 어휘 중에 해당 문화와 관련된 문화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어휘 설명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 항목을 노출할 수 있다.

다. 재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이해 단계와 적용 단계를 거쳐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인지한 초급 외국인 학습자는 생산 단계에서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아 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재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학습자들이 해당 단계를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잘 제시하여야 한다.

- 과거와 현재 결혼식에 대해 조사를 하고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시다.
(그룹(모둠) 활동으로 3~4명을 팀으로 정해준다.)

<과거>	<현재>

<무엇이 다릅니까?>

- 여러분의 나라의 결혼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봅시다.

<과거>	<현재>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 활동의 경우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바로 문화 항목의 재생산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 단계와 적용 단계에서 인지한 문화 항목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완벽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활동의 경우 본 단계에서 중점을 둔 문화 항목의 재생산과 관련된 활동이다.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두 번째 활동을 통해 자국의 결혼 문화와 한국의 결혼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 항목의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문화 항목의 확장이란 다양한 국적의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작성한 것에 대한 발표를 듣고 여러 나라의 결혼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 명료성과 정확성 검증을 위한 ‘평가’ 단계⁷⁹⁾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 - 단계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교사 피드백 결과

79) 평가 단계의 경우 모든 등급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학습자 자가 평가> - 학습자 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③ 『소나기』를 통한 행동 문화

다음은 초급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정보 문화에 대한 교육 방안의 예다.

0 대상: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행동 문화

대분류-한국사회

중분류-교통

소분류-한국의 지리와 지형

문화 항목 내용-계절에 따른 날씨

가. 탐색을 위한 ‘이해’ 단계

본 단계도 정보문화 교육 방안의 이해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사진을 제시한다. 제시한 사진을 보고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할 수 있고, 교사는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제대로 탐색할 수 있게 명확한 사진을 제시한다.

해당 문화 항목은 ‘한국의 지리와 지형’ 중 ‘계절에 따른 날씨’다.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계절을 명확히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제시한다. 이해 단계에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올바르게 탐색을 해야 다음 단계인 적용 단계로 수월하게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사진 자료를 보고 해당 문화 항목을 올바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관련 질문을 제시한다. 질문에서 해당 문화 항목이 노출 되지 않도록 간단한 질문을 제시한다.

· 사진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위 질문을 통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이 ‘계절’과 관련된 것임을 탐색할 것이다. ‘계절’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다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단계에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계절’이란 문화 항목을 인지할 수는 있어도 ‘계절에 따른 날씨’까지는 인지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심화를 위한 ‘적용’ 단계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해 단계에서 ‘계절’이라는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탐색하였을 것이다. 본 단계는 이해 단계에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탐색한 것을 제시된 소설 텍스트속의 상황에 적용 해 보는 단계이다. 초급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속의 상황을 제대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제시한다. 제시할 소설 텍스트 역시 위의 선정 기준에 맞게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 속의 장면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3~4문장의 짧고 간단한 소설 텍스트를 제시한다. 재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 둔다.

「저 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밭머

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대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하는 걸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댄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황순원-『소나기』 중 ‘계절(가을)과 관련된 부분’>

▷ 재화(retelling)한 소설 텍스트

「저 쪽 갈대밭 근처에 갈대꽃이 한 움큼(**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양) 움직였다. 소녀가 갈대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느린 걸음이었다. 보통과 날씨와 다르게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대꽃 위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대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다.

논 가운데 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가을에 벼를 수확하는 것)하는 근처를 지났다. 허수아비(scarecrow)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a straw rope)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집 근처에 있는 논의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scarecrow)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댄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낸다) 춤을 춘다.」

제시한 소설 텍스트를 통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함께 제시한 사진 자료와 소설 텍스트 속 상황과 연관 지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해 단계에서 제시하였던 사진 자료를 떠올리며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텍스트를 읽고 스스로 사진 자료와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제시된 소설 텍스트에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 속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어려운 어휘를 찾게 될 것이다.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

이 소설 텍스트 속에서 찾은 어휘 중에는 문화어도 포함 되어 있을 것이다. 교사는 문화어와 관련된 활동을 제시하여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써 봅시다.

--

위 활동에서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제시된 소설 텍스트 속에서 모르는 어휘를 찾아서 쓸 것이다.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쓴 어휘 중 문화어가 포함 되어 있는 것은 교사는 알 수 있지만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화어로 인식 하지 못 하고 일반 어휘로 인식을 할 것이다. 이때 교사는 문화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문화 항목을 노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위 글에서는 어떤 계절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붙이고 계절과 관련된 표현을 글에서 찾아 써 봅시다.

위 활동은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 속에 제시된 문화 항목을 잘 적용하였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 중 해당 문화 항목을 소설 텍스트 속의 장면에 잘 적용한 초급 외국인 학습자는 위의 활동을 잘 해결할 것이고,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교사의 도움이란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표현을 모두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초급 외국인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 속에서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징검다리의 역할만 해주는 것이다.

다. 재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이해 단계에서 사진 자료나 그림 자료로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하였고 적용 단계에서 소설 텍스트 속의 장면과 해당 문화 항목을 적용해 본 초급 외국인 학습자는 본 단계에서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 항목을 재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재생산이란 새로운 문화 항목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지식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여러분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왜 좋아합니까? 써 봅시다.

<p>좋아하는 계절 이름</p> <hr/>	<p>좋아하는 이유</p> <hr/> <hr/>
-------------------------	----------------------------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적용 단계를 수행하고 난 후 바로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아 생산 단계에서 문화 항목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급 외국인 학습자 자신이 이해 단계와 적용 단계에서 인지한 문화 항목에 대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인 ‘계절에 따른 날씨’를 완벽히 인지할 것이다.

· 여러분 나라와 한국에서는 사계절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는지 알고 있습니까? 친구들과 같이 조사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p><고향의 사계절></p>	<p>· 무엇을 합니까?</p> <p>봄 여름 가을 겨울</p> <p>· 무엇을 먹습니까?</p> <p>봄 여름 가을 겨울</p>
<p><한국의 사계절></p>	<p>· 무엇을 합니까?</p> <p>봄 여름 가을 겨울</p> <p>· 무엇을 먹습니까?</p> <p>봄 여름 가을 겨울</p>

위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완전한 인지와 함께 여러 나라의 계절 문화와 계절에 따른 음식 문화까지 문화 항목에 대한 확장을 할 수 있다. 위 활동이 일반적인 쓰기 활동으로 진행이 된다면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조금 난이도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하지만 활동지에 계절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오려 붙이고 그림을 그리는 등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구상을 한다면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 한국어교육 교실 현장에서도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기능별 활동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그룹을 나누어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만 살펴보고 따로 피드백은 진행하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진행하도록 징검다리의 역할만 한다.

라. 명료성과 정확성 검증을 위한 ‘평가’ 단계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 - 단계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교사 피드백 결과	

<학습자 자가 평가> - 학습자 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지금까지 초급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설 텍스트와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성취 문화, 정보 문화, 행동 문화를 이해 단계, 적용 단계, 생산 단계, 평가 단계로 나누어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화 교육 방안의 첫 단계인 이해 단계부터 소설 텍스트를 제시하지 않고 사진 자료나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가 있고 또한 다음 단계로의 수행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이해 단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단계를 적용하여 성취 문화, 정보 문화, 행동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겠다.

2) 중급

① 『서편제』를 통한 성취 문화

먼저 제시할 문화 항목은 성취문화 중 예술에 대한 내용이고 대상은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중급 외국인 학습자다.

0 대상: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 성취 문화

대분류-한국의 예술과 문학

중분류-예술

소분류-전통/현대음악

문화 항목 내용-판소리, 민요

가. 탐색을 위한 ‘이해’ 단계

본 단계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과 다르게 이해 단계부터 소설 텍스트를 제시하여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해 보는 단계다. 본 단계에서 제시할 소설 텍스트는 본 논문 III에서 밝힌 등급별 선정 기준에 맞게 3~4문단의 소설 텍스트를 제시하여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제시된 소설 텍스트를 읽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단계에서는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시키는 단계가 아닌 일방적인 제시 단계로써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제시된 어휘(문화어)와 표현을 보고 문화 항목을 탐색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인은 초저녁부터 목이 아픈 줄도 모르고 줄창 소리를 뽑아 대고, 사내는 그 여인의 소리로 하여 끊임없이 어떤 예감 같은 것을 견디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북장단을 잡고 있었다. 소리를 쉬지 않은 여인이나, 묵묵히 장단 가락만 잡고 있는 사내가 양쪽 이마에 힘든 땀방울이 솟고 있었다.

여인이 ‘춘향가’ 몇 대목을 뽑고 나자 사내는 아예 술상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제 편에서 먼저 북장단을 자청하고 나섰던 것이다.

“좋으네, 참으로 좋으네…… 자, 이 술로 목이나 좀 축이고 나서…….”

여인이 이윽고 다시 ‘수궁가’ 한 대목을 구성지게 뽑아 젖히고 났을 때였다.

여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다시 소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홍보가’ 가운데서 홍보가 매 품팔이를 떠나면서 늘어놓는 신세타령의 한 대목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인이 성큼 소리를 시작하자 사내도 다시 북통을 끌어안으며 뒤늦은 장단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청준-『서편제』 중 ‘판소리와 관련된 부분’>

▷ 재화(retelling)한 소설 텍스트

「여인은 초저녁부터 목이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소리를 뿜아 대고(**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 소리를 내다), 사내는 그 여인의 소리로 하여 끊임없이 어떤 예감 같은 것을 건디는 것과 같은 표정으로 복 단장을 하고 있었다. 소리를 쉬지 않은 여인이나, 조용히 장단 가락만 잡고 있는 사내가 양쪽 이마에 힘든 땀이 나고 있었다.

여인이 ‘춘향가’의 몇 부분을 하고 나자 사내는 아예 술상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제편에서 먼저 복장단을 자신이 하겠다고 하고 나섰던 것이다.

“좋으네, 참으로 좋으네…… 자, 이 술로 갈증을 풀고 나서…….”

여인이 조금 이따가 다시 ‘수궁가’ 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멋있게 뿜아 쫓히고 났을 때였다.

여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다시 소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홍보가’ 가운데서 홍보가 매 품팔이를 떠나면서 늘어놓는 신세타령의 한 대목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인이 성큼 소리를 시작하자 사내도 다시 복통을 끌어안으며 뒤늦은 장단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위에 제시한 소설 텍스트는 이청준의 소설 『서편제』 중 해당 문화 항목인 판소리와 관련된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제시된 소설 텍스트를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부터 찾을 것이다. 모르는 어휘를 찾은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그 의미 사전이나 교사의 설명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소설 텍스트 속 상황을 짐작해 보고 해당 문화 항목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만 보면 어려운 어휘와 표현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원문 이해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재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해단계를 진행한다.

- 위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를 찾아서 써 보세요.

이 질문을 통해 교사는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찾은 모르는 어휘를 지도할 수 있고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이 모르고 있는 어휘를 선택함과 동시

에 그 어휘가 문화어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위 글은 3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글을 다시 읽고 각 문단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위 질문을 통해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각 문단의 장면(상황)에 대해 각양각색의 답변할 수 있으며 교사는 그 중 가장 적절한 장면(상황)을 이야기한 중급 외국인 학습자의 답변을 인용하여 해당 문화 항목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심화를 위한 ‘적용’ 단계

본 단계는 중급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방안 중 가장 중점을 둔 단계로 전 단계인 이해단계에서 제시된 활동보다 좀 더 심화된 활동을 제시하여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 단계에서 탐색한 해당 문화 항목과 본 단계에서 제시된 활동을 적용하여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게 해당 문화 항목을 심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단계에서 교사는 이해 단계에서 제시한 소설 텍스트와 관련된 상황을 대화문이나 관련 시청각 자료(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좀 더 심화된 활동을 통해 이해 단계에서 자신이 탐색한 문화 항목과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들려준다.>

중급 외국인 학습자는 이해 단계에서 제시한 소설 텍스트 속에 ‘춘향가’라는 문화어가 등장하는데, 본 단계에서 ‘사랑가’를 듣고 ‘춘향가’라는 것이 판소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소설 텍스트 속의 어휘(문화어)와 적용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랑가’가 적혀 있는 활동지를 같이 나누어 준다. 활동지의 경우 어려운 용어를 풀이하여 제시한다.

활동지의 예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시금 텃텃(조금 시면서도 개운하지 않다) 개살구 작은 이도령 서는되(임신하는 데)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짭막뭉뚱하며) 지지루지허니(길쭉하게 생긴) 외(오이) 가지 당 참외(맛있는 참외)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매도 내 사랑아

중급 외국인 학습자에게 ‘사랑가’가 적힌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다시 한 번 ‘사랑가’를 들려준다. ‘사랑가’를 들려주고 난 후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판소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제시한다.

- ‘사랑가’를 듣고 여러분이 느낀 것을 자유롭게 써 쓰고 발표해 보세요.

HANSUNG UNIVERSITY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판소리 ‘사랑가’를 듣고 각자 다양한 의견을 발표할 것이다. 이 활동으로 해당 문화 항목을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학습자 자신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다음 영화를 감상해 봅시다.



위 활동을 통해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인지한 해당 문화 항목을 시청각 자료(영상매체)에 적용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영화를 감상하면서 동시에 영화의 주제가 해당 문화 항목인 ‘판소리’와 관련된 것을 알고 해당 문화 항목을 완벽히 인지할 것이다. 교사는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영화 감상을 잘 할 수 있게 사전에 간단한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 재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이해 단계에서 제시된 소설 텍스트를 통해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하고, 적용 단계에서는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심화된 활동으로 해당 문화 항목을 완벽히 인지하였다면 본 단계에서는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아 수행함으로써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문화 항목을 재생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 단계는 이해 단계와 적용 단계에서 중급 외국인 학습자가 인지한 문화 항목과 관련된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단계이다. 생산 단계에서 교사는 해당 문화 항목을 정확히 노출 시켜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아 재생산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해당 활동의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 다음을 들어 보시다.

기자: 오늘은 ‘판소리’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판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네, 안녕하십니까? 판소리 전문가 김만수입니다.

기자: ‘판소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음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하신 내용 중 소리꾼과 고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소리꾼과 고수가 무엇인가요?

전문가: 여기서 소리꾼이란 소리를 내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고수는 북을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리꾼은 가수, 고수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쉽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알 수 있는 판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 네, 글썄요. 판소리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판소리로 유명한 작품들은 춘향가, 흥보가, 적벽가, 심청가 등이 있습니다.

기자: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판소리의 역사에 대해 전문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겠습니다.

- 소리꾼과 고수는 무슨 뜻입니까?
- 판소리 작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 활동의 경우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기 전에 해당 문화 항목을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완벽히 인지할 수 있게 판소리와 관련된 인터뷰를 듣기 자료로 제작한 것이다. 듣기 후 활동으로 간단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 여러분은 판소리 말고 혹시 ‘민요’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리랑’이 바로 민요입니다. 다음 ‘아리랑’을 듣고 판소리와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민요 ‘아리랑’을 들려준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위 활동을 통해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완전한 인지와 함께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민요’까지 지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 단계에서 중점을 둔 문화 항목의 재생산과 관련된 활동인 것이다.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위 활동을 통해 해당 문화 항목인 ‘판소리’와 새로운 과제로 제시된 ‘민요’를 비교하여 문화 항목의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명료성과 정확성 검증을 위한 ‘평가’ 단계

평가단계에서는 각 단계별로 문화 항목을 이해한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로 이해단계, 적용단계, 생산단계를 거친 외국인 학습자들이 단계별로 제시된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인지한 문화 항목에 대한 명료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 - 단계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교사 피드백 결과

<학습자 자가 평가> - 학습자 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② 『운수 좋은 날』을 통한 정보 문화

다음은 중급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정보 문화에 대한 교육 방안의 예다.

0 대상: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정보 문화

대분류-한국인의 생활

중분류-일상생활

소분류-경제활동

문화 항목 내용-홍정과 덩

가. 탐색을 위한 ‘이해’ 단계

본 단계 역시 위 성취 문화 교육 방안의 이해 단계와 동일하게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장면이 내재 되어 있는 소설 텍스트를 중급 외국인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仁川) 차가 열한 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두 점이던가?"

라고 중얼거린다.

"일 원 오십 전만 줍지요."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 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
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래었다.

"일 원 오십 전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이수(里數)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 리나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 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현진건-『운수 좋은 날』 중 ‘홍정과 관련된 부분’>

▷ 재화(retelling)한 소설 텍스트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걱정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仁川) 차가 열한 시에 있고, 그 다음에는 다음 날 새벽 두 시던가?"라고 혼자 말을 하고 있었다.

"일 원 오십 전만 줍지요."(**옛날 돈의 단위)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갑자기 김 첨지의 입에서 나왔다. 제 입으로 말하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일 원 오십 전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이수(里數)(**옛날 거리의 단위)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6Km는 넘는답니다."

위의 소설 텍스트는 ‘현진건-운수 좋은 날’의 원문 중의 ‘홍정’과 관련된 일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위 글을 읽고 밑줄 친 문장과 관련된 상황을 짐작해 보고 해당 문화 항목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설 텍스트만 보면 어려운 어휘와 표현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원문 이해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재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해 단계를 진행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화 항목을 스스로 탐색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학습자는 장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문화 항목을 탐색한다.

· 위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를 찾아서 써 보세요.

이 질문을 통해 교사는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어휘를 지도할 수 있고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이 모르고 있는 어휘를 선택함과 동시에 그 어휘가 문화어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설 텍스트에 해당 문화 항목인 ‘홍정’과 관련된 대화를 밑줄을 통해 제시를 하여 그와 관련된 활동을 이해 단계에 제시하여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

· 위 글에서 밑줄 친 대화를 보고 어떠한 상황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 질문을 통해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각양각색의 장면(상황)에 대해 대답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할 것이다. 교사는 그 중 가장 적절한 장면(상황)을 이야기한 중급 외국인 학습자의 대답을 인용하여 해당 문화 항목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심화를 위한 ‘적용’ 단계

본 단계는 전 단계인 이해단계에서 탐색한 해당 문화 항목을 심화된 활동을 통해 적용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단계에서 교사는 이해단계에서 제시한 소설 텍스트와 관련된 상황을 대화문이나 관련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외국인 학습자들은 좀 더 심화된 활동을 통해 이해단계에서 자신이 탐색한 문화 항목과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시된 대화문은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한 것이다.

· 다음은 한국의 전통 시장인 재래시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잘 들어 보세요.

손님: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아주머니: 이렇게 하면 다 해서 3만 5천 원이야.

손님: 죄송한데요. 좀 깎아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아주머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는데?

손님: 제가 지금 3만 2천 원밖에 없습니다.

아주머니: 그러면 3만 2천 원만 주고 가지고 가.

손님: 혹시 저기 있는 과일 하나만 더 주실 수는 없어요?

아주머니: 내가 ‘덤’은 주지 못하지 대신 ‘에누리’ 해서 돈을 받았잖아.

손님: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위 대화문을 통해 교사는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자세한 노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상황을 이해하여 이해 단계에서 제시된 소설 텍스트에서 탐색한 문화 항목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위 대화문을 같은 반 친구와 함께 역할을 나누어 읽어 보세요.
-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여러분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는지도 이야기 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감정을 표현하여 낭독을 함으로써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의 낭독을 듣고 해당 문화 항목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통해 이해 단계에서 중급 외국인 학습자 자신이 탐색한 문화 항목과 적용단계에서 인지한 문화 항목의 차이를 구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사의 피드백이 적절하게 필요하다. 이해 단계와 적용 단계에서의 차이가 없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을 명확하게 이해한 것이다.

다. 재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생산 단계에서는 적용 단계를 거친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 속에 내재 되어 있는 해당 문화 항목과 그와 관련된 지식을 정교화 하여 새로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문화 항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단계는 해당 문화 항목의 재생산 단계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새로운 활동을 부여함으로써 이해 단계와 적용 단계에서 중급 외국인 학습자가 탐색하고 인지한 문화 항목과 관련된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단계이다. 생산 단계에서 교사는 해당 문화 항목을 정확히 노출 시켜 외국인 학습자들이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아 재생산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오늘 학습한 한국 문화는 ‘홍정과 덤’입니다. 아래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상황에 맞는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완성한 대화문으로 역할을 나누어 상황을 연출해 보세요.

- ◎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사려고 합니다. 옷 가게 주인과 손님이 홍정을 하고 있습니다.
- ◎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가게에 계시는 주인아주머니께서 물건을 더 주려고 합니다.
- * 교사는 2~3개의 상황을 학습자에게 부여하는데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부여한다.

위 활동을 통해 교사는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활동에서도 역시 교사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여기서 교사의 피드백은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상황을 연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다.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대화문을 작성하고 상황을 연출해 봄으로써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재생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생산 단계에서는 해당 문화 항목과 관계가 있는 새로운 문화 항목을 추가로 제시하여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하고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지식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해당 문화 항목 ‘홍정과 덤’과 관계가 있는 ‘에누리’라는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다.

「여러분은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덤’과 ‘에누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집 근처의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가 즐비해 있어서 ‘덤’과 ‘에누리’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시장에는 아직도 ‘덤’과 ‘에누리’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덤’과 ‘에누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덤’이란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더 주는 것’이고, ‘에누리’라는 말은 ‘깎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텍스트를 읽고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과 관계가 있는 문화 항목을 인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덤과 에누리’라는 문화 항목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 명료성과 정확성 검증을 위한 ‘평가’ 단계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 - 단계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교사 피드백 결과

<학습자 자가 평가> - 학습자 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③ 『역마』를 통한 행동 문화

다음은 중급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행동 문화에 대한 교육 방안의 예다.

0 대상: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 행동 문화

대분류-한국인의 가치관

중분류-사고방식

소분류-민간신앙

문화 항목 내용-사주보기, 굿하기

가. 탐색을 위한 ‘이해’ 단계

본 단계는 ‘성취, 정보 문화’의 이해 단계와 동일하게 소설 텍스트를 먼저 제시하여 해당 문화 항목인 ‘민간신앙’을 외국인 학습자들이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단계에서는 해당 문화 항목의 직접적인 제시보다는 ‘민간신앙’과 관련된 장면이 제시된 소설 텍스트를 제시하여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활동을 제시한다. 다음은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민간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소설 텍스트이다.

「이러한 어머니보다도 차라리, 열 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중질을 시켰으니, 이제 역마살(驛馬煞)도 거진(거의) 다 풀려 갈 것이라고 은근히 마음을 느꾸시는 편이던 할머니는, 성기가 세 살 났을 때 보인 그의 사주에 시천역(時天驛)이 들었다 하여 한때는 얼마나 낙담을 했던 것인지 모른다. 하동 산다는 그 키가 나지막한 명주 치마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혹시 갑자을축을 잘못 짚지나 았았나 하여, 큰절(쌍계사를 가리킴)에 있는 어느 노장에게도 가서 물어 보고 지리산 속에서 도를 닦아 나온다면 어떤 키 큰 영감에게도 다시 물어 봤지만 시천역엔 조금도 요동이 없었다.

“천성 제 애비 팔자를 따라 갈려는 게지.”

<김동리- 『역마』 중 ‘사주와 관련된 부분’>

*참고→ 위 소설에서 ‘성기’라는 남자 주인공에게 역마살이 들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마살은 쉽게 말하자면 떠돌이로 살아가야 하는 타고난 팔자, 운명입니다.



▷ 재화(retelling)한 소설 텍스트

「이러한 어머니보다도 차라리, 열 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스님이 하는 일을 시켰으니, 이제 역마살(驛馬煞)(**항상 바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액운)도 거의 다 풀려 갈 것이라고 은근히 마음을 놓고 있던 할머니는, 성기가 세 살 났을 때 보인 그의 사주(**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시천역(時天驛)(**역마살과 같은 액운)이 들었다 하여 한때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른다. 하동 산다는 그 키가 작은 명주 치마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혹시 갑자을축(**태어난 연도)을 잘못 짚지나 았았나 하여, 큰절(쌍계사를 가리킴)에 있는 어느 늙은이에게도 가서 물어 보고 지리산 속에서 도를 닦아 나온다면 어떤 키 큰 영감에게도 다시 물어 봤지만 시천역(時天驛)(**역

마살과 같은 액운)엔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천성 제 아버지 팔자(**사람 평생의 운수)를 따라 갈려는 것이지.”」

이해단계에서 제시한 소설 텍스트는 ‘김동리-역마’라는 소설 중 ‘사주’와 관련된 장면이 잘 묘사된 부분이다. 소설 텍스트 밑에 제시한 그림 자료의 경우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속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 할 경우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설 텍스트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소설 텍스트 속에 ‘역마살’, ‘시천역’, ‘팔자’ 등 해당 문화 항목인 ‘민간신앙’과 관련된 단어가 등장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위 단어를 스스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화 항목과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 후 소설 텍스트 속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봄으로써 문화 항목에 근접해 갈 수 있다.

· 위 글에서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알아봅시다.

- ▶ 역마살
- ▶ 사주
- ▶ 시천역
- ▶ 갑자을축
- ▶ 팔자

나. 심화를 위한 ‘적용’ 단계

본 단계에서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해 단계보다 좀 더 심화된 활동을 통해 이해 단계에서 탐색한 문화 항목을 적용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민간신앙’이 난해한 문화 항목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난해한 문화 항목에 대해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다가가기 위해 적용단계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신문 기사를 제시한다. 신문 시사의 내용 역시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제시하여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바르게 인지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 단계인 생산 단계에서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 항목의 재생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다.

· 다음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읽어 봅시다.

<춘천명소, 융하다고 소문난 춘천 ‘사주점집카페 터’ 젊은 세대 발걸음 끊이지 않아>

과거 사주는 미신이나 무당, 철쟁이들이 하는 엉터리 사기라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사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와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한 사주 카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차를 마시며 자신의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 놓는 경우가 많다. 그 중 춘천의 사주카페 '사주카페 터'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점을 볼 수 있으며, 사주 또한 융해 춘천 융한 점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이곳은 20~30대 젊은 세대에겐 인기 만점이라고 한다.

상담자의 성격과 현재 시기에 대한 설명, 마음속의 고민과 갈등을 잘 읽어내고 따뜻한 위로와 미래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 마음속으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주카페 터’를 통해 자신의 대한 정보, 지나온 삶의 공감, 앞으로 삶에 대한 조언을 얻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주는 물론 궁합, 운세 등 자신의 다양한 인생 상담을 원한다면 춘천 사주카페 '사주카페 터'를 방문해보자.

<ACROFAN 뉴스 2015. 9. 9>

- ▶ 위 기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 ▶ 밑줄 친 단어와 표현에 대해 알아보시다.
- ▶ 여러분은 ‘사주, 궁합, 운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활동을 통해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인 ‘민간신앙’이라는 전통 문화와 한국 젊은이들의 새로운 여가 문화로 등장한 ‘사주카페’라는 현대 문화를 비교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해 단계에서 난해했던 ‘민간신앙’이란 문화 항목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문 기사 밑에 제시한 활동을 통해 신문 기사의 내용적인 이해와 동시에 이해 단계에서 제시한 소설 텍스트까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신문 기사의 역시 이해 단계에서 제시한 소설 텍스트와 동일하게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어휘(문화어)의 밑줄을 그어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의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 재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이해 단계, 적용 단계를 거친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인 한국의 전통 문화 ‘민간신앙’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였을 것이다. 본 단계

에서는 해당 문화 항목이 ‘민간신앙’이라는 것을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밝히고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여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 항목까지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문화는 한국의 ‘민간신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주팔자를 믿어 왔습니다. 사주팔자란 사람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잘 따져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주를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이 토정비결을 보는 것도 모두 사주를 풀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타로’라는 것과 ‘점집’이란 곳입니다.」



위에 제시한 텍스트는 해당 문화 항목인 ‘민간신앙’과 관련된 문화 항목을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확장할 수 있도록 제시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문화 항목의 확장이란 ‘타로’ 또는 ‘점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여 해당 문화 항목의 완벽한 인지와 함께 관련 문화 항목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한다.

이루고 싶은 일이나 바라고 있는 일(돈, 학업, 연애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예) 내년엔 대학교에 입학할 하고 싶은데 잘 될 수 있을까요?</div> <div> 1. 2. 3. 4. 5. </div>

위 활동을 통해 중급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해 보지 못 했던 것을 제시된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해보면서 해당 문화 항목인 ‘민강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것(사주, 운명, 타로, 점 등) 까지 알게 될 것이다.

라. 명료성과 정확성 검증을 위한 ‘평가’ 단계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 - 단계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교사 피드백 결과

<학습자 자가 평가> - 학습자 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3) 고급

① 『수난이대』를 통한 성취 문화

먼저 제시할 문화 항목은 성취문화 중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 대상은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고급 외국인 학습자다.

0 대상: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성취 문화

대분류-한국의 역사

중분류-시대별 역사

소분류-시대

문화 항목 내용-한국 전쟁

가. 탐색을 위한 ‘이해’ 단계

본 단계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 항목 분류 중 성취 문화에 속하는 ‘한국전쟁’이라는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하는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 항목을 교육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단계는 생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해 단계에서는 생산 단계에서 제시된 활동을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충분히 생각할 시간과 탐색할 시간을 준다.



· 위 사진을 보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위 사진 자료는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소설 텍스트를 제시하기 전에 고급 외국인 학습자가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해당 문화 항목인 ‘한국 전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 전쟁을 나가는 군인의 모습, 두 번째 사진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가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사진의 경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은 전쟁 후 이산가족 상봉의 사진이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고

급 외국인 학습자라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사진 자료와 관련된 질문을 보고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사진을 보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

위 활동은 이해단계 두 번째 활동으로 첫 번째 활동에서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탐색을 마친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이 사진 속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진을 배열하게 된다. 이 활동으로 다시 한 번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접근을 하게 된다. 교사는 사진의 시간 순서에 따라 학습자들이 잘 배열을 했는지 보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배열한 것을 상황 설명과 함께 발표를 시킨다.

나. 심화를 위한 ‘적용’ 단계

이해 단계에서 해당 문화 항목의 탐색을 마친 고급 외국인 학습자는 본 단계에서 자신이 탐색한 문화 항목에 대해 좀 더 심화된 활동을 통해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단계에서 한국의 현대 단편

소설 ‘수난 이대’ 중 한국 전쟁과 관련된 상황이 잘 드러난 부분을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전쟁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게 관련 소설 텍스트를 제시한다.

<장면 1>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장면 2>

“아부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기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오래지는(노랗게 변하다) 것을 어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뿜 도는 것이었다.

“에라이 이놈아”

“진수야”

“예”

“니 우짜다가(어떻게 하다가) 그래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됐심니꼬(전쟁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심더(수류탄의 작은 조각에 맞았습니다).”

“수류탄 쪼가리(작은 조각)에?”

“예”

“음…….”

“얼른(빨리) 낫지 않고 막 썩어들어 가기 땀(때문에)에 군의관(군 병원의 의사)이 찔라 버립디더(잘라 버렸습니다). 병원에서에.”」

위 소설 텍스트는 하근찬의 ‘수난 이대’에 나오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장면을 제시한 것이다. 소설 텍스트 속에는 해당 문화 항목인 한국 전쟁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의 피해 때문에 다친 아들 진수가 등장한다. 소설 텍스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읽고 ‘왜? 진수가 다쳤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해당 문화 항목인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외국인 학습자의 머릿속에 각인 될 것이다.

- 위 글을 읽고 모르는 어휘를 찾아 쓰고 의미를 알아보세요.

- 같은 반 친구와 짝이 되어 글 속의 대화를 주고받아 보세요.

해당 소설 텍스트에는 문화어도 등장하지만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활동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는 모르는 어휘를 쓰면서 문화어임을 파악할 수 있고, 사투리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모르고 있는 어휘와 사투리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다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활동의 경우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심화 활동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 속의 상황에 대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문화 항목을 적용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활동이다. 외국인 학습자는 같은 반 친구와 같이 소설 속의 상황을 생각하며 대화를 구성하고 주고받을 것이며,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활동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켜본다.

- 다음 영화 포스터를 보고 어떠한 내용의 영화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위 소설 텍스트 속의 상황을 이해하여 해당 문화 항목을 적용해 본 학습자들은 위 활동을 통해 해당 문화 항목을 영상매체에 적용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항목을 교수할 때 매체를 활용한 것은 위의 선행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해당 문화 항목의 실제성을 외국인 학습자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위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을 매체에 적용하여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를 할 것이다. 교사는 해당 문화 항목을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잘 적용하여 사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해

당 영화의 포스터와 간단한 예고편만을 제시한다.

다. 재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본 단계는 이해, 적용 단계를 거친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확실히 인지하여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재생산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문화 항목을 노출 시켜 외국인 학습자가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아 재생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등급별 한국 문화 교육 중 고급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오늘 여러분은 ‘한국 전쟁’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 자료, 소설 속 상황, 영화에서의 상황까지 ‘한국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벌써 6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국 군인이 되어 북한 군인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지금은 시대는 2016년입니다.

<hr/> <hr/> <hr/> <hr/> <hr/> <hr/>

위 활동은 편지 쓰기 활동이다. 편지 쓰기 활동은 고급 외국인 학습자에게 조금은 쉬운 활동이지만 편지를 쓰는 대상이 ‘북한군’이라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되어 인지한 것들을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될 것이고 ‘북한군’의 마음까지 고려하면서 편지를 쓰게 될 것이다.

라. 명료성과 정확성 검증을 위한 ‘평가’ 단계

본 단계는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각 단계를 거쳐 단계별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생산했던 것에 대해 재확인을 하는 단계이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동시에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 - 단계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교사 피드백 결과

<학습자 자가 평가> - 학습자 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② 『코끼리』를 통한 정보 문화

다음은 고급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정보 문화에 대한 교육 방안의 예다.

0 대상: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정보 문화

대분류-한국 사회

중분류-다문화 사회

소분류-다문화 현상

문화 항목 내용-다문화, 국제결혼 등

가. 탐색을 위한 ‘이해’ 단계

본 단계는 위 ‘성취 문화’ 교육 방안과 다르게 이해 단계에서 바로 소셜 텍

스트를 제시한다. 해당 문화 항목을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제대로 탐색을 할 수 있게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상황이 잘 묘사된 소설 텍스트 한 부분을 제시한다. 다음 제시된 소설은 김재영의 단편 소설 - ‘코끼리’ 중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의 소설 텍스트를 제시한 것이다.

·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

「깜빡 잠들었던 걸까? 눈을 뜨니 방안이 어둑어둑하다. 눈을 비비고 밖으로 나간다. 오늘도 비재 아저씨는 감나무 밑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술이라면 한잔도 못 마시는 아저씨 얼굴이 이상스레 붉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수돗가는 사람들로 변잡하다. 쪼그리고 앉아 감자를 깎는 미얀마 아저씨 뿌라의 발등 위로 누군가 살뜨물을 하얗게 흘려보내고, 요란하게 똑딱거리는 도마 위에선 양파와 피망과 호박이 다져진다. 꼬챙이에 꿰인 양고기가 팬 위에서 지지직 소리를 내며 노린내를 풍긴다. 발목에서 찰랑대던 어둠이 머리끝까지 차오르자, 감나무 가지에 걸린 백열등도 노랗게 빛을 발한다. 러시아 아가씨 마리아는 양동이에 덥힌 물을 세숫대야에 부어 금발의 긴 머리를 행구고, 어린 토애는 저녁 짓는 엄마 등에 업혀 오랜만에 방긋방긋 웃는다. 온갖 나라 말과 온갖 음식냄새가 뒤섞인 마당은 벌, 나비가 웅웅대는 야생화 꽃밭처럼 향기롭고 소란하다.」

<김재영-『코끼리』 중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부분’>

· 위 글을 읽고 모르는 어휘와 등장하는 사람들의 국적을 써 보세요.

위 활동을 통해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제시된 소설 텍스트 속의 상황을 통해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해당 문화 항목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심화를 위한 ‘적용’ 단계

해당 문화 항목은 ‘다문화 사회’이다. 본 단계에서는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 단계에서 탐색한 해당 문화 항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

- 다음 영화 포스터를 보고 무슨 내용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 영화를 보고 이해 단계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문화 항목과 일치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고 세편의 영화 중 한편의 줄거리와 감상문을 써 보세요.

위에 제시한 활동의 경우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 단계에서 탐색한 문화 항목을 영상 매체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영화들은 모두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의 내용과 이해 단계에서 탐색한 문화 항목과의 관련성이 높아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영화를 보고 해당 문화 항목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해 단계에서 탐색한 문화 항목을 본 단계에서 완벽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재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이해 단계와 적용 단계까지 거쳐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한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생산 단계에서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아 해당 문화 항목인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까지 확장하여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늘 배운 문화 항목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그 내용을 쓰고 발표해 보세요.



<그래프 내용>

위 활동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통해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학습한 해당 문화 항목과 관계가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문화 항목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 다음 영상은 요즘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비정상회담’이라는 TV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들의 한국 사회 현상에 대해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다문화 사회’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봅시다.

<p><주제: 한국인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안건-한국 사회가 아직 다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비정상회담 2015년 8월 24일 <60회>’)</p>	
지금도 괜찮은 편이다.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두 번째 활동은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주제로 직접 토론을 진행해 보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많은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외국인 학습자끼리 토론을 통해 자신이 인지한 것을 스스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 명료성과 정확성 검증을 위한 ‘평가’ 단계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 - 단계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교사 피드백 결과

<학습자 자가 평가> - 학습자 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③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통한 행동 문화

다음은 고급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행동 문화에 대한 교육 방안의 예다.

0 대상: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0 한국 문화 항목: 유형-행동 문화

대분류-한국 사회

중분류-사회

소분류-사회문제

문화 항목 내용-빈부격차, 도농 격차, 등

가. 탐색을 위한 ‘이해’ 단계

본 단계는 위 ‘정보 문화’의 교육 방안과 동일하게 이해 단계부터 소설 텍스트를 제시하여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해당 문화 항목이 잘 드러난 소설 텍스트 속의 장면을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 항목을 탐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한다.

·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

<장면 1>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장면 2>

「그의 집은 부자였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작은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에게도 말했었다. 그는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었다. 밤에 아파트로 돌아오면 집으로 전화를 하고는 했다.

(중략)

그가 거실에 앉아 일을 하는 동안 가정부는 음식을 차려 놓고 그가 식탁 앞에 앉기를 기다렸다. 그는 어머니가 보내 준 가정부였다. 그는 그 가정부에게 별도의 돈을 주었다. 집식구들에게 나에 관한 이를 보고하면 안 된다는 조치

였다. 가정부에는 내가 온 다음부터 잠을 나가서 잤다. 나는 처음 약속대로 ‘안 돼요.’라는 말을 그에게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과 생활하고 있었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중 ‘빈부격차와 관련된 부분’>

위 활동을 통해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 속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해당 문화 항목인 ‘사회문제’ 중 ‘빈부격차’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텍스트에서 <장면 1>과 <장면 2>를 제시한 이유는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빈부격차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반대되는 장면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위 활동 중 모르는 어휘를 찾아보는 활동의 경우 소설 텍스트 속에 ‘빈부격차’를 실감할 수 있는 어휘들이 곳곳에 들어 있어 학습자들이 어휘만 살펴보아도 ‘빈부격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심화를 위한 ‘적용’ 단계

해당 문화 항목은 한국의 사회 문제 중 ‘빈부격차’이다. 본 단계에서는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 단계에서 탐색한 해당 문화 항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 그림 자료의 경우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쉽게 적용을 해 볼 수 있게 접근하기 쉬운 만화 컷을 해당 그림 자료로 제시한다.



본 단계에서 제시한 활동의 그림 자료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 중 ‘빈부격차’를 쉽게 표현한 것이다. 이해 단계에서 제시한 소

설 텍스트 속 상황을 통해 ‘빈부격차’에 대해 어느 정도 탐색을 한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위 그림 자료를 보고 소설 속의 상황과 실제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빈부격차’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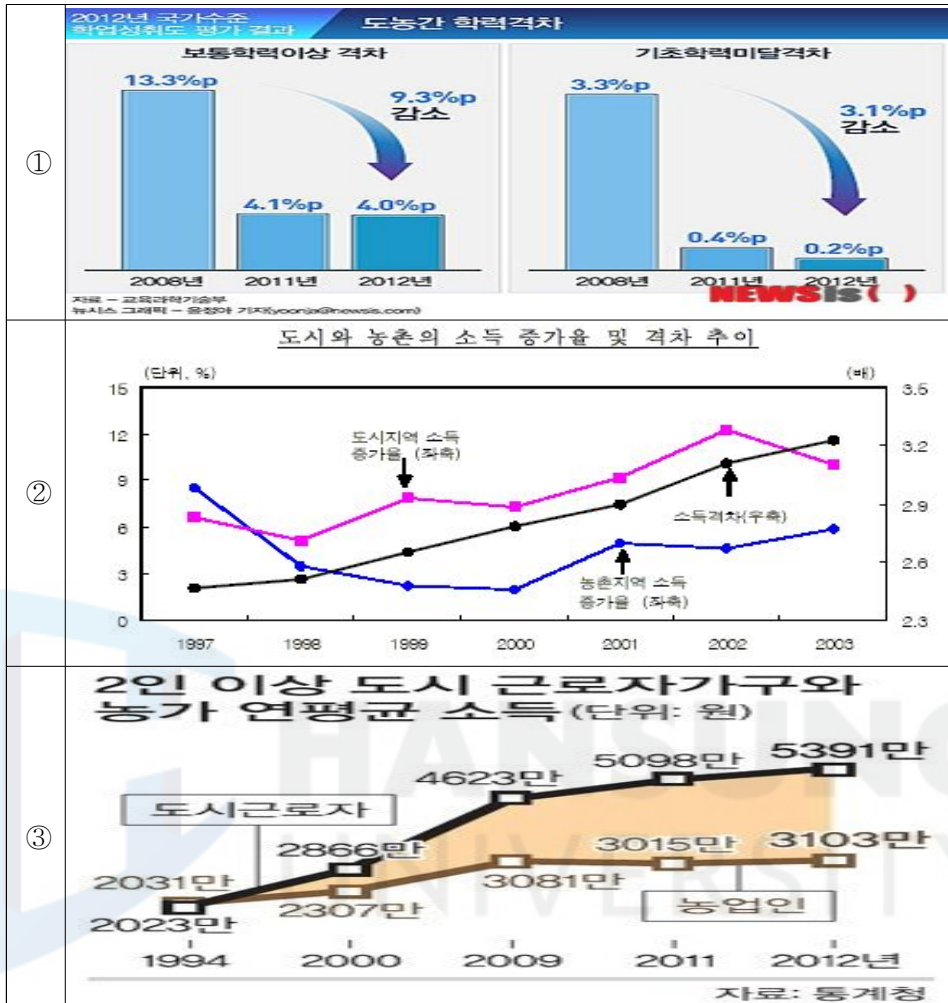
<주제: 빈부격차는 해결(극복)할 수 있다>	
찬성	반대

적용 단계 두 번째 활동으로 제시한 토론의 경우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첫 번째 활동을 통해 인지한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활동이다. 토론 활동을 통해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적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해당 문화 항목을 완벽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재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본 단계는 위에 제시한 성취, 정보 문화의 생산 단계와 동일하게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아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재생산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여러분이 오늘 학습한 문화 항목은 한국의 ‘사회문제’ 중 ‘빈부격차’입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빈부격차’ 말고도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여 발표해 보세요.



위 활동과 같은 유형은 한국어능력시험 쓰기에도 출제가 된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고급 외국인 학습자라면 충분히 위 활동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화 항목인 한국의 ‘사회문제’ 중 ‘빈부격차’를 인지하고 위 활동을 통해 ‘도농격차’까지 문화 항목에 대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급 외국인 학습자들의 문화 항목에 대한 확장이 본 단계에서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명료성과 정확성 검증을 위한 ‘평가’ 단계

본 단계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각 단계를 거쳐 단계별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생산했던 것에 대해 재확인을 하는 단계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동시에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역시 외국인 학습자들이 단계별로 진행한 활동을 통해 단계별 문화 항목 인지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 - 단계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교사 피드백 결과

<학습자 자가 평가> - 학습자 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

이해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적용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생산단계에서 평가	1.....2.....3.....4.....5.....6.....7.....8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선정한 문화 교육의 목표에 맞게 문화 항목을 선정하여 한국의 현대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문화 항목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해당 텍스트에서 겹으로 드러나 있는 문화 항목에 대해서만 수업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화 항목을 확인 하는 차원에서 끝내지 말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스스로 찾아내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생산을 하여 스스로 평가까지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한국어교육에서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문이다. 한국어교육 흐름이 문법 중심의 교육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게 되면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교육의 중요성까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를 교육할 때 문학 작품 중 소설 텍스트를 제재로 활용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텍스트 자체에 드러나 있는 문화 항목을 외국인 학습자에 그대로 노출시켜 문화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상황이 제시된 소설 텍스트와 의사소통 중심의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이해단계, 해당 문화 항목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적용단계,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단계, 마지막으로 해당 단계마다 외국인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평가단계로 단계를 위계화 시키고 각 단계마다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제시하였다.

위의 문화교육 방안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해, 적용, 생산, 평가의 각 단계에 제시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하여 의사소통 상황이나 담화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이자 목적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기존의 연구사 중 문화의 개념을 논의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Beacco(2000)에서 제시한 여러 문화의 개념 중 ‘문화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적 텍스트(문학 텍스트를 포함하여)를 통해 아이디어의 교류를 중시하고,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며, 또한 실제 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로 문화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문화의 개념 설정 후 본 논문에서의 문화교육 목표를 선정하였는데, 선정한 문화 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모든 등급에 적용이 되는 공통적인 목표고 다른 하나는 각 등급별 세부 목표로 두 가지 목표를 선정하였다.

공통적인 목표의 내용으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

면서 의사소통 상황과 담화 상황에서 문화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웠다. 등급별 세부 목표의 내용으로는 초급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문화 충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중급에서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직접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고급에서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 비교를 넘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선정 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문화 항목에 대한 선정을 하였는데, 문화 항목의 선정은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를 참고하여 문화의 유형 분류를 성취문화, 행동문화, 정보문화 세 가지로 나누고 각 급당 성취문화, 정보 문화, 행동 문화에 해당 하는 세부 문화 항목을 선정하여 한국의 현대 소설 텍스트를 제재로 활용한 해당 문화 항목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에는 고전소설부터 현대 소설까지 수많은 소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외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연구한 문학 텍스트 선정기준과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선정 기준은 문화교육의 목표와 동일하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모든 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다른 하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등급별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통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짧지만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는 텍스트’ 두 번째 ‘문화 교육의 제재가 되는 텍스트’, 세 번째 ‘문화 항목의 배경 지식이 되는 텍스트’, 네 번째 ‘문화 항목의 공유 텍스트’ 다섯 번째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한 텍스트’ 여섯 번째 ‘외국인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텍스트’로 여섯 가지의 텍스트 공통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등급별 소설 텍스트 선정기준의 내용으로는 초급에서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고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3~4 문장 이내의 텍스트’, 중급에서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문화어가 제시된 1~2 문단 이내의 텍스트’, 고급에서 ‘문화 교육으로 가치가 있으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화어가 제시된 1~2 단락 이내의 텍스트’로 한국 문화 교육 시 제재로 활용할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위의 선정 기준에 따라 각 등급에서 문화교육을 위한 소설 텍스트로 초급에서는 <오영수-『요람기』(연날리기), 황순원-『소나기』(계절에 따른 날씨), 최명희-『혼불』(전통혼례)>, 중급에서는 <이청준-『서편제』(판소리), 김동

리- 『역마』 (사주), 현진건- 『운수 좋은 날』 (흥정과 덩)>, 고급에서는 <하근찬- 『수난이대』 (한국 전쟁),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빈부 격차), 김재영- 『코끼리』 (다문화 사회)>라는 소설 작품에서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소설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소설이라는 문학 작품은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과 유익함 그리고 재미까지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교육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이러한 작품들을 문화교육에서 활용한다면 그 효용성은 더욱더 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화교육 방안은 일반목적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를 교육할 때 소설 텍스트를 제재로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위계화 시킨 단계를 통해 스스로 해당 문화를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방대한 문화 항목에 대해 일부 문화 항목을 선정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과 교육의 실제 부분에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의 반응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연구가 질적, 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한국의 문화 항목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2011), 김중섭 외, 국립국어원.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1-5, 건국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보문고.

서강대학교 언어교육원, 서강한국어 1A-B, 2A-B, 3A-B, 4A-B, 5A-B,
서강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1-4,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한국어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한국어 1-1, 1-2, 2-1, 2-2, 3-1, 3-2, 4,
5, 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최명희, 『혼불』, 매안출판사.

김재영, 『코끼리』, 실천문학사.

신달자, 박덕규 외, 『100년 동안의 한국대표 단편소설 1, 2』, 지식마당.

2. 연구논저

국내문헌

강승혜 외(2010), 『한국문화교육론』, 형성출판사.

강현석 외 역(2005), 『신 교육목표분류학의 설계』, 아카데미프레스.

곽지영 외(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문환(1999), 『문화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민현식 외(2005),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박금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박이정.

- 박영순(2006),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_____(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 _____(2008),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한국 문화』, 현암사.
- 이병기(2012), 『정보활용교육론』, 조은글터, 서울
- 임경순(2003), 『문학의 해석과 문학교육』, 역락.
- _____(2009),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최연희 외(2006), 『영어 읽기 교육론 원리와 적용』, 한국문화사.
- 최준식(2003),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 한상복(1990),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출판부.
- 한재영 외(2010), 『한국어 어휘 교육』, 태학사.
-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Anderson, L. W. et al, 강현석 외 역(2015),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Bloom 교육목표 분류학의 개정』, 아카데미 프레스.
- Barry Tomalin, 임병빈 역(2006), 『문화의 이해로 가르치는 영어』, E*PUBLIC.
- Easthope, Antony, 임상훈 역(1994),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학사.
- H. Douglas Brown 저 박주경 외 역(2007), 『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 Pearson Education.
- J. Collie & S. Slater, Stephen, 조일제 역(1997), 『영어교사를 위한 영문학 작품 지도법』, 한국문화사.
- Patrick R. Moran, 정동빈 외 역(2004), 『Teaching Culture, (문화 교육)』, 경문사.
- Rene Wellk & Austin Warren, 김병길 역(1988),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 Robert J. Marzano, John S. Kendall, 강현석 외 역(2012), 『새로운 교육목표 분류학』, 원미사.
- 강승혜(2012), 「한국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주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강현화(2006)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 조사-문화 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강현화 외(2011), 「한국 문화 교육 항목 선정에 관한 기초 연구 - 선행연구, 교재, 기관 현황 조사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외국어로서

-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권성미(2013), 「한국어 교재 대화 텍스트의 문화 항목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권오경(2006),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어문론총 제4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 권오현(2003),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한국의 학교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대행(2001),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4집, 서울대학교 사범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 김동환(2008), 「공유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한 방법」, 국어교육학 연구 제31집, 국어교육학회.
- _____(2009), 「서사 모티프의 문화 간 이야기화 양상과 한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 _____(2010), 「한국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읽기 텍스트 선정 전략 연구-문화교육을 위한 현대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9집, 국어교육학회.
- 김명권(201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소설 텍스트 재구성 방안 연구-초급, 중급을 위한 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0호, 영주어문학회.
- 김수진(2009),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구언어문화교육 연구-맥락 활성화에 기반한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수현(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문화 교육에 관한 일고찰-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김순자(2009), 「한국어교육에서 소설 텍스트 교육 연구」, 부산외국어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 한글 10, 한글 학회.
- 김정자(2014),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인수(2007),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에대한 대안적 접근의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섭(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

- 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 김지혜(2014),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과정 연구 -다중 텍스트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63, 한국어학회.
- 김진호(20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시문학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김소월의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진희(2013) 「Marzano의 신 교유분류학을 적용한 문법 영역의 수업목표 진술 및 평가 문항의 설계」,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7집 2호.
- 김해옥(2004), 「문학 작품을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방법」, 워크숍자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_____ (2005), 「문학 작품의 어휘를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법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 김혜영(2008),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화 교육 내용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혜영(2007),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화교육 내용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2), 「한국어교육에서 수준별 소설 텍스트 선정을 위한 연구 : 텍스트 위계화를 위한 변인에 대한 고찰」,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27.
- 나정선(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류덕제(1995), 「소설텍스트의 문화교육 방법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4), 「(한)국어 문화 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박영미(2014), 「한국어 문화 분리 교재의 내용 분석」, 다문화와 평화, 성경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 박영순(1989), 「제2언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 5, 이중언어학회.
- _____ (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 박청(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 교육 연구 방안: 메밀꽃 필 무렵을

-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춘연(2010), 「중국 내 한국 문화 교육과정 설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혜정(2008), 「한국어 교재의 문화항목 연구-초급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재원 외(2014),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사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배현숙(200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 성기철(2001),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2004), 「언어와 문화의 접촉 : 언어 문화」,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신영지(2012), 「한국어 문학교육을 통한 문화적응 가능성의 모색-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신윤경(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문학 텍스트 선정기준과 교수 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미영(2005),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수-이청준의 단편 소설 <눈길>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2008), 「한국어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정신문화연구 31, 한국학중앙연구원.
- 양민애(2008), 「한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이문화(異文化)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이중언어학 38, 이중언어학회.
- 오문천(2012), 「통합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학습 활동 분석」, Journal of Korean Culture,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 우한용(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효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 _____(2014), 「문학교육의 문화론적 관점에 대하여」, 교육논총 34, 경인교

- 육대학교 교육연구원.
- 우혜경(2012),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다문화 학습자의 한국어교육」, 한국
고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현정(2015), 「문화 지식 분류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 윤여탁(2002), 「한국어교육에서 현대 문학 정진 연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_____(2004),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연구방법 연구-미주지역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4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_____(2013),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
학 10,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윤영(1999), 「외국인을 위한 소설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_____(2008),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수·학습 방안 연구-소설<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9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
어문화학회.
- _____(2005),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모형 설계」,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병기(2010), 「교육목표분류학에 의한 정보활용과정모형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1권 제2호
- 이석주(2002), 「한국어 문화의 내용별, 단계별 목록 작성 시고」, 이중언어학, 이
중언어학회.
- 이윤재(2003),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영어교육」,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이재석(2007),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에 대하여」, 청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임경순(2006), 「문화중심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중
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 장경은(2001), 「한국어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화 내용과 교수 방법」, 전남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소원(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연계」, 한국언어문화학, 19집.
- 장정숙(2010), 「한국어교육을 위한 현대 단편소설 선정 연구」, 동덕여자대

- 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조수진(2010),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선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향록(1998), 「한국어 고급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4), 「한국 언어 문화와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05),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교육 제16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11), 「한국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점점 모색-한국언어문화교육론의 내용체계 구축 방안」,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 정연숙(2012), 「문학 텍스트를 이용한 한국어교육의 양상」, 국어교과교육연구.
- 진은하(200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로서의 문학교육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성옥(2010), 「요구분석을 통한 한국어·문화 교육 통합 프로그램 설계 방안 연구-비정규 비영리 한국어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주열(2008), 「한국 문화 교육 접근 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 제4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최정순(2004),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의 등가적 통합」, 언어와 문화 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최정환(2004),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내용 및 체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옥순(2012), 「문학 작품의 재귀 번역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서연(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분류 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
- _____ (2007), 「한국어교육학의 문학 연구 방향」, 한국어교육 제18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_____(2008), 「외국인을 위한 문화 교육의 실제」,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비교문화 연구소 가을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국외문헌

Brooks. N. H.(1975), *The Analysis of Language and Familiar Cultures. in R. C, Lafayette. The Culture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incolnwood: National Textbook Company.

Beacco J. C.(2000), *Les dimensions culturelle des enseignements de langue, col. F, Paris*, Hachette.

Louise Daman.(1987), *Culture learning. 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Learning Classroom*.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I. C. Fountas & G. S. Pinnell(2001), *Guiding Readers and Writers*, Heinemann.

Wilga M. Rivers.(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elye, H. Ned.(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II*: National Textbook Company.

Thomas K. Adeyanju(1978), *Teaching Literature and Human Value In ESL* : Object and Select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32.

Collie J. and Slater S.(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 록]

[부록 1 국제통용 한국어표준모형 2단계 문화 항목 분류]

유형	문화 항목
성취문화	88올림픽, TV드라마, TV프로그램, 가요, 건축물, 겨울연가, 경복궁, 고려청자, 공연 문화, 과학기술, 광고, 금속활자, 남대문, 노래, 대동여지도, 대중가요, 도자기, 동요, 동화, 드라마, 만화, 무용, 문학작품, 문화유산, 문화재, 미술관, 민요, 민화, 발명품, 불교 예술, 불교 유적, 불국사, 난타, 서예, 박물관, 석굴암, 시조, 옛날이야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일편단심, 연날리기, 해인사 장경판전, 종요,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사물놀이, 탈춤, 부채춤, 판소리, 민요, 전통혼례, 농악, 문화재로 지정된 도자기, 사찰, 탑, 공예품, 예술품, K-POP, 난다, B-BOY, 점프, 비빔밥,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사(조선후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 대한민국 정부수립), 화폐 속 인물, 역사적 위인, 한국의 대통령, 스포츠 스타, 한류 연예인, 식민지배, 한국전쟁, 남북분단, 민주화, 경제발전, 전래동화, 고전소설, 현대소설, 아리랑(각 지역의 아리랑의 특징), 전래동요, 동요, 전통미술, 현대미술, 건국신화, 설화, 민담
행동문화	격언, 고사성어, 빈부격차, 노동격차, 지역차, 지역감정, 환경문제, 친일/반일 감정, 친미/반미 감정, 대선, 지역색, 뇌물, 공천, 정당 문화, 주요 정당, 한국의 경제성장, 물가 안정정책, 고용정책, 대외정책, IMF, 자유무역협정(FTA), 유신헌법, 군사정권, 인권의식,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촛불시위, 고개 숙이고 인사하기, 악수하기, 빈말표현, 친족호칭(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누나, 언니, 형, 오빠, 남동생, 여동생), 사회적 호칭(OO 씨, 선후배 호칭), 상차림(음식을 놓는 위치),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한국의 혼한 성씨, 별명, 호칭의 확대현상(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호칭을 사용하는 것: 언니, 오빠, 이모 등), 언어예절(존댓말과 반말), 비언어적 행위(사람을 부를 때의 손동작, 답답할 때 가슴을 치는 동작 등), 특별한 말 먹는 음식(생일-미역국, 합격/이사-떡, 결혼-잔치국수), 식사예절(어른이 먼저 수저 들기, 먼저 자리 뜨지 않기, 식사할 때 소리 내지 않고 먹기), 음주예절(고개 돌리고 마시기, 술 권하기, 술 따르기), 봄-벚꽃놀이, 가을-단풍놀이, 교통수단 이용하기(버스 타는 곳, 버스이용 시 요금 지불 방법과 할인), 교통예절(노약자석에

	<p>앉지 앉기, 자리 양보하기, 앉은 사람이 서 있는 사람 가방 받아주기), 계절에 따른 날씨, 친가친척관계, 외가친척관계, 친족호칭, 사물에 비유한 표현, 방문 예절, 동아리, 소개팅,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대학축제, 회식문화, 뒤풀이 문화, 직장 야유회와 체육대회, 직장내 예절, 웰빙 현상, 다이어트, 건강식품, 통신언어, 인터넷에서의 연락망, 통신예절, 신조어, 유행어, 속어, 줄임말, 통신 언어,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인기 있는 운동, 응원, 금기해동, 기피숫자4, 선호숫자 3/7, 속담, 여러 가지 색채어, 관용표현, 비유표현</p>
정보문화	<p>장의 종류, 김치의 종류, 떡의 종류, 전통음료의 종류와 전통주, 각 지역의 유명음식, 채테크, 자린고비, 기부, 정(情), 한(恨), 신명, 민간요법, 보약, 침, 한의원, 목욕(대중탕), 미의 기준의 변화, 연애, 입시, 과외, 기러기 아빠, 고3병, 조기유학, 전통 놀이, 다문화, 국제결혼, 여성결혼이민자, 한민족, 외국인노동자, 쓰리게 종량제, 자동차요일제, 신분증명제도, 출산 장려정책, 인터넷 중독, 자살, 청년실업, 이혼율 급등, 고령화, 저출산, 싱글맘, 가족형태 변화,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 가부장적 사고방식, 맞벌이부부, 남성의 가사참여, 육아분담, 남성의 군복무의 의무, 직업관의 변화, 세대차이, 학연과 지연, 혈연, 계, 이웃사촌, ‘우리’의 사용, 주요종교, 각 종교의 신도분포, 대표 지역과 축제,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선거, 대통령의 임기, 정부조직, 38선, 비무장지대(DMZ), 햇볕 정책, 통일, 남북교류, 세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찜질방,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대보름, 단오, 삼복, 동지, 상견례, 결혼준비과정, 전통혼례식과 현대결혼식, 축의금, 어울리는 옷차림, 장례방법, 충수지리, 장례절차, 부조, 제사상 차리기, 제사 지내는 순서, 대학 입학시험, 학군, 외국, 특목고, 조기교육, 대안교육, 평생교육, 사주, 고사, 굿, 부적, 무당, 점쟁이, 토정비결, 해몽, 궁합, 띠, 풍수지리, 손 없는 날, 국가, 국기, 무궁화, 한글, 아리랑, 재래시장, 흥정과 덤, 지불방법, 조기축구회, 등산모임, 인터넷의 여러 가지 동호회, 가족형태, 음식배달, 컵서비스, 경제발전의 원동력, 한국의 위치 및 지리적 특징, 서울, 부산, 경주, 제주도 등에 대한 소개, 행정 구역, 국경일, 전통의상, 한국의 주거형태, 전월세, 하숙/자취, 온돌생활, 좌식생활, 계절음식,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야시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 공공기관 이용, 경조사, 6-3-3-4 학제, 학기 시작 시기, 정규교육과정의 진학 나이, 의무교육제도, 버스 종류, 버스 전용차선, 지하철노선, 환승, 교통카드, 성인식, 결혼문화, 결혼정보회사,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설, 추석,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한</p>

	<p>국 과학발전의 변천사, 반도체, 정보통신산업, 주입식교육, 대학 진학 중심교육, 사교육문제, 교권추락, 체벌금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출산장려 정책, 한국 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밥, 김치, 찌개류, 국류 등), 식기의 종류(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등),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용도 및 사용법(숟가락은 밥과 국을 먹을 때 사용, 젓가락은 반찬을 먹을 때 사용), 한글 창제 원리,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성과 이름), 화폐의 종류-지폐(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원, 수표), 동전(오백 원, 오십 원, 십 원), 사계절과 날씨</p>
--	---



[부록 2 국제통용 한국어표준모형 2단계 등급별 문화의 범주]

<1급>

유형	교수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인사	·고개 숙이고 인사하기 ·악수하기 ·빈말표현(어디 가세요?, 밥 먹었어요?)
			이름과 호칭	·친족호칭(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누나, 형, 오빠, 남동생, 여동생) ·사회적 호칭(OO 씨, 선후배 호칭)
		일상 생활	식생활	·상차림(음식을 놓는 위치)
	한국 사회	교통	교통 수단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식생활	·한국 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밥, 김치, 찌개류, 국류 등) ·식기의 종류(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등)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용도 및 사용법(숟가락은 밥과 국을 먹을 때 사용, 젓가락은 반찬을 먹을 때 사용)
		언어 생활	한글과 한국어	·한글 창제 원리
			이름과 호칭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성과 이름)
	한국 사회	경제	경제 제도	·화폐의 종류-지폐(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원, 수표), 동전(오백 원, 오십 원, 십 원)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사계절과 날씨

<2급>

유형	교수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유적지(승례문,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무형 문화재	·한복, 강강술래, 연날리기 등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 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생활	이름과 호칭	·한국의 호한 성씨, 별명 ·호칭의 확대현상(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호칭을 사용하는 것: 언니, 오빠 이모 등)
			한글과 한국어	·언어예절(존댓말과 반말)
			몸짓 언어	·비언어적 행위(사람을 부를 때의 손동작, 답답할 때 가슴을 치는 동작 등)
		일상생활	식생활	·특별한 날 먹는 음식(생일-미역국, 합격/이사-떡, 결혼-잔치국수) ·식사예절(어른 먼저 수저 들기, 먼저 자리 뜨지 않기, 식사할 때 소리 내지 않고 먹기) ·음주예절(고개 돌리고 마시기, 술 권하기, 술 따르기)
			계절활동	·봄-벚꽃놀이, 가을-단풍놀이
	한국 사회	교통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하기(버스 타는 곳, 버스이용 시 요금 지불 방법과 할인)
			교통체계	·교통예절(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앉은 사람이 서있는 사람 가방 받아주기)
		지리	한국의 지리와 지형	·계절에 따른 날씨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의생활	·전통의상(한복, 고무신, 짚신)
			주생활	·한국의 주거형태(한옥,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기숙사 등) ·전/월세, 하숙/자취 ·온돌생활, 좌식생활
			식생활	·계절 음식(삼계탕, 팔빙수, 냉면, 팔죽)
			경제활동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야시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공동체생활	가정생활	·공공기관이용(은행, 우체국, 동사무소 등) ·경조사(돌, 환갑 등)
	한국 사회	교육	교육제도	·6-3-3-4 학제, 학기 시작 시기, 정규교육과정의 진학 나이, 의무교육제도
		교통	교통체계	·버스 종류, 버스 전용차선, 지하철 노선 ·환승, 교통카드
		관혼제	관례혼례	·성인식, 결혼문화(상견례, 결혼식, 결혼준비, 축의금 등), 결혼정보회사 등
			장례제례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등
		세시풍속	명절	·설(세뱃돈, 설빔, 차례, 성묘, 떡국, 만두) ·추석(달맞이, 차례, 성묘, 송편)
	외국인 한국 생활	사회생활	공공기관 이용	·출입국 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등

<3급>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무형 문화재	·전통혼례, 농악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음악	·사물놀이, 탈춤, 부채춤, 판소리, 민요
			전통/현대공연	·탈춤, 부채춤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이름과 호칭	·친가친척관계, 외가친척관계 ·친족호칭(친가와 외가의 가족호칭)
			한글과 한국어	·사물에 비유한 표현(긍정적 표현: 마음이 바다처럼 넓다, 천사 같다, 개미처럼 일하다 등 부정적 표현: 호박처럼 생겼다, 곰같이 우둔하다, 돼지같이 먹다 등)
		공동체 생활	가정 생활	·방문예절(집들이 선물)
			학교 생활	·동아리, 소개팅,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대학 축제
			직장 생활	·회식문화, 뒤편이 문화, 직장 야유회와 체육대회, 직장 내 예절 등(약속하기, 직책 부르기 등)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건강	·웰빙 현상, 다이어트, 건강식품
	한국 사회	통신	과학기술의 발전	·통신언어(문자 보내기, 이모티콘 사용하기) ·인터넷에서의 연락망(소셜네트워크-SNS) ·통신예절(댓글 문화, 인터넷 예절, 인터넷 실명제)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경제 활동	·재래시장(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경동시장, 가락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등) ·홍정과 덤
		여가 생활	친목 모임/동호회	·조기축구회, 등산모임, 인터넷의 여러 가지 동호회
		공동체 생활	가정 생활	·가족형태(대가족, 핵가족/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덩크족 등)
	한국인의 가치관	사고 방식	빨리 빨리 행동	·음식 배달, 퀵 서비스 ·경제발전의 원동력(인터넷, 건설, 정보통신의 발달)
	한국 사회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한국의 위치 및 지리적 특징
			대표지역과 축제	·서울, 부산, 경주, 제주도 등에 대한 소개(위치, 기후, 지역적 특징) ·행정구역(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도, 8도)
		사회	공휴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 개천절 등)

<4급>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성취	한국의 문화 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된 도자기, 사찰, 탑, 공예품, 예술품 등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음악	·K-POP
			전통/현대공연	·난타, B-BOY, 점프, 비밥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한글과 한국어	·신조어, 유행어, 속어, 줄임말, 통신언어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여가 생활	스포츠	·인기 있는 운동(축구, 프로야구, 농구 등), 응원(붉은 악마) 등
	한국인의 가치관	사고 방식	민간 신앙	·금기행동(다리떨기, 한숨 쉬기, 턱 괴기, 윗사람에게 말대꾸하기,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 문지방 밟기, 시험 전 미역국 먹기 등) ·기피 숫자 4, 선호 숫자 3, 7
정보	한국인의 생활	여가 생활	친목 모임/동호회	·찜질방,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한국 사회	세시 풍속	주요 절기	·대보름: 부럼 깨물기, 단오: 창포에 머리 감기, 그네 뛰기, 삼복: 개장국/복죽 먹기, 동지: 팔죽 먹기 등
		관혼 상제	관례/혼례	·상견례, 결혼준비과정 ·전통혼례식과 현대결혼식, 축의금, 어울리는 옷차림
			장례/제례	·장례방법(매장, 화장, 수목장), 풍수지리, 장례절차, 부조, 어울리는 옷차림 ·제사상 차리기(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과 상차림과 방법), 제사 지내는 순서, 어울리는 옷차림
		교육	교육 제도	·대학 입학시험, 학군 ·외고, 특목고
			교육열	·조기교육, 대안교육, 평생교육(낮은 문맹률, 높은 대학진학률) 등
	한국인의 가치관	사고 방식	민간 신앙	·사주, 고사, 굿, 부적, 무당, 점쟁이, 토정 비결, 해몽, 궁합, 띠, 풍수지리, 손 없는 날
	한국의 문화 유산	상징물	한국의 상징	·국가(애국가), 국기(태극기), 무궁화, 한글, 아리랑

<5급>

유형	교수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사(조선후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 대한민국 정부수립)
		역사적 인물	유명 인물	·화폐 속 인물, 역사적 위인 ·한국의 대통령, 스포츠 스타, 한류 연예인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한글과 한국어	·속담 ·여러 가지 색채어(예:파랗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푸르스름하다 등)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식생활	·장의 종류(강장, 된장, 청국장, 고추장) ·김치의 종류(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오이김치, 보쌈김치, 동치미, 백김치 등) ·떡의 종류(백설기, 인절미, 송편, 가래떡, 쫄떡, 절편 등) ·전통음료의 종류(식혜, 수정과, 매실차, 국화차 등)와 전통주 ·각 지역의 유명 음식
			경제 활동	·재테크, 자린고비, 기부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정서	·정(情), 한(恨), 신명
			건강	·민간요법, 보약, 침, 한의원, 목욕(대중탕) 등
	한국 사회	관혼 상제 교육	가치관의 변화	·미(美)의 기준의 변화 등
			관례/혼례	·연애(미팅, 맞선, 중매, 결혼정보회사)
	한국의 문화 유산	문화재	교육열	·입시, 과외, 기러기 아빠, 고3병, 조기유학
			유형 문화재	·전통놀이(강강술래, 널뛰기, 윷놀이, 닭싸움, 제기차기, 공기놀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얼음땡 등)

<6급>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식민지배, 한국전쟁, 남북분단, 민주화, 경제발전
	한국의 예술과 문학	문학	문학 작품	·전래동화(권선징악의 동화-콩쥐와 팥쥐, 흥부와 놀부 등) ·시대를 반영한 고전시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아리랑(각 지역 아리랑의 특징) ·전래동요(까치, 두껍아 두껍아 등) ·동요(고향의 봄, 엄마야 누나야, 웅달샘 등)
		예술	전통/현대음악	·전통미술(동양화: 김홍도, 신윤복 작품 등) ·현대미술(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한글과 한국어	·관용표현, 비유표현
정보	한국 사회	다문화 사회	다문화 현상	·다문화, 국제결혼, 여성결혼이민자, 한민족 등
		사회	사회 제도	·쓰레기 종량제, 자동차 요일제, 신분증명제도, 출산 장려정책 등
			사회 문제	·인터넷 중독, 자살, 청년실업, 이혼률 급등 ·고령화, 저출산, 싱글맘, 가족형태 변화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성역할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 가부장적 사고방식 ·맞벌이 부부, 남성의 가사참여, 육아분담 ·남성의 군복무의 의무
			가치관의 변화	·직업관의 변화(선호기업, 평생직장, 직업선택기준) ·세대차이
			가족 주의	·학연과 지연, 혈연, 계, 이웃사촌 ·‘우리’의 사용(우리나라, 우리집)
		사고 방식	종교	·주요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 종교의 신도분포
	한국 사회	지리	대표 지역과 축제	·강릉의 단오제, 경주의 신라문화제, 남원의 춘향제, 여주의 도자기축제, 보령의 머드 축제, 태백산의 해돋이축제 등
		정치	정치 제도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선거(직접선거), 대통령의 임기 ·정부조직(대통령-국무총리-장관, 국회, 의원)
			남북 관계	·38선, 비무장지대(DMZ), 햇볕 정책, 통일, 남북교류(남북회담,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경제	경제 제도	·세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회	복지 정책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7급>

		교수내용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예술과 문학	문학	문학 작품	·건국신화, 설화, 전설, 민담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한글과 한국어	·격언, 고사성어
	한국 사회	사회	사회 문제	·빈부 격차, 도농 격차, 지역차, 지역감정, 환경문제 등
		정치	국제 관계	·친일/반일 감정, 친미/반미 감정
			정치 제도	·대선, 지역색, 뇌물, 공천, 정당 문화, 주용 정당
		경제	경제 정책	·한국의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정책, 고용정책 ·대외정책, IMF,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	·유신헌법, 군사정권, 인권의식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촛불시위
	정보	한국 사회	통신	과학의 발전
교육			교육 문제	·주입식교육, 대학 진학 중심교육, 사교육 문제 ·교권추락, 체벌금지
사회			복지 정책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출산장려 정책

[부록 3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을 위한 문학텍스트 선정-소설]⁸⁰⁾

제목과 작가	주제 및 내용	수업 활용성
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금지된 사랑을 주제로 한 텍스트. 나이가 어린 학습자들의 흥미를 맞춰줄 수 있으며, 사회적 금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언어용법 말하기
숨 쉬는 영정 (구인환)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사의 비극은 이산가족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다. 오랜 염원 끝에 가족을 찾았지만 영정으로 밖에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살펴본다.	말하기 문화
역마 (김동리)	아버지의 역마살로 인한 인연으로 이모를 사랑하게 된 주인공. 결국 자신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라 받아들이며 떠돌게 된다. 한국인의 독특한 전통 정서인 역마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이야기한다.	듣기 문화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1960년대의 우울한 사회적 정서를 잘 그리고 있는 텍스트. 가까이 다가가기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인간관계가 세 사람의 하룻밤 이야기를 통해 그려지고 있다. 1960년대의 사회적 정서를 알아본다.	언어용법 말하기 문화
동백꽃 (김유정)	소작인 아들의 마음을 잡고 싶은 마름집 딸과 잘못 보일까 두려워하는 소작인 아들의 밀고 당기는 애정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인류 공통의 사랑이라는 테마와 1930년대의 농촌이라는 배경을 함께 알아볼 수 있다.	언어용법 말하기 문화
엄마의 말뚝 (박완서)	한국 전쟁이라는 시기를 한 어머니의 자식 사랑과 교육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작가의 자서전적인 글이며, 한국 전쟁을 한 가족사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	언어용법 말하기
황혼 (박완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영원한 갈등 구조. 몸은 늙어도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살고 싶은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문젯거리로 생각하는 며느리의 현대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말하기 문화

80) 위 논문 신윤경(2008) 재인용.

오렌지 맛 오렌지 (성석제)	성석제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폰트 같은 텍스트. 어딘가 있을 법한 인물을 출판사라는 공간을 통해 코믹하게 그리고 있다. ‘오렌지 맛 오렌지’라는 제목을 곱씹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용법 말하기
원미동 시인 (양귀자)	‘사랑 손님과 어머니’처럼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세계를 그린 텍스트. 불의에 눈감고, 돈을 쫓는 어른들의 모습이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다.	언어용법 문화
두 파산 (염상섭)	학교 앞 작은 문방구의 이권을 차지하고자 친구 관계도 저버리는 상태까지 가제 된 현실. 경제적인 파산 뿐 아니라 정신적 파산까지 ‘두 파산’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물질 앞에서 나약해진 인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쓰기 말하기
소음공해 (오정희)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항의를 하러 올라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여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에 부끄러워한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현대 생활에 대해 토론해 본다.	쓰기 말하기
장마 (윤홍길)	외삼촌은 국군으로 친삼촌은 빨치산으로 한 집안에서 두 개의 사상으로 갈리는 갈등을 두 할머니의 통해 그리고 있다.	언어용법 말하기 문화
바람을 파는 소년 (이준연)	대나무 부채를 장에 팔러 할아버지랑 같이 나선 남수는 할아버지의 부채가 나일론 부채에 밀리는 것이 속상하다. 그러나 대나무 부채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 것인지 깨닫고 큰 소리로 외치며 부채를 팔기 시작한다.	듣기 말하기
눈길 (이청준)	극에 달한 경제적인 빈곤함으로 집을 잃고 떠돌아야 되는 가족들의 이야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차 태워 보내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심정과, 부모에 대한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부모의 깊은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말하기 문화
서편제 (이청준)	깊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인생의 한이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아버지와 그에 의해 눈이 멀고 진정한 소리꾼으로 거듭나는 딸의 이야기. 영화와 더불어 판소리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각자 나라와 비교해 본다.	듣기 문화

돌다리 (이태준)	서울에 병원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팔고 이사하자는 아들의 권유를 거부하는 아버지. 땅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현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말하기 문화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평생 단 한 번의 인연을 삶의 희망으로 안고 살아가는 장돌뱅이의 삶. 장터에서 만난 동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설렌다. 장터의 상세한 묘사와 메밀밭의 아름다운 묘사가 뛰어나다. 표현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언어용법 말하기 듣기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어린 딸을 데리고 홀로 사는 과부와 그 집에 하숙하게 된 아저씨와의 은밀한 사랑이야기. 어린 딸의 눈으로 그려지는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다. 1930년대의 사람 형태와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설 전개 특징을 살펴본다.	언어용법 쓰기 말하기 문화
동행 (전상국)	눈이 내리는 산길에서 우연히 동행을 하게 된 두 사람. 여러 사연을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 한 사람은 쫓기는 범인이고 다른 사람은 그를 쫓는 형사였다. 결국 형사는 범인이 아버지 무덤에서 생을 마감할 것을 예상하고 그냥 보내주고 만다.	쓰기 말하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1970년대의 노동현장과 개발에 감추어진 철거민들에 대한 이야기. 현대 사회의 그늘을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 각자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	말하기 문화
치숙 (채만식)	풍자의 작가 채만식.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아저씨와 그 아저씨를 극진히 보살피는 본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일제 시대 여러 삶의 형태를 엿볼 수 있으며, 어떤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본다.	언어용법 문화

흐르는 북 (최일남)	평생 한량처럼 북을 치며 살아온 할아버지와 1980년대 걱정 of 시대를 보내는 손자의 묘한 공통점. 그리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아버지의 모습. 1980년대의 시대상을 과거와 함께 연결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 시대를 그리는 다른 텍스트들처럼 1980년대의 모습을 살펴본다.	말하기 문화
수난 이대 (하근찬)	아버지는 일제 징용에 끌려가 한쪽 팔을 잃고, 아들은 한국 전쟁에 나가 한쪽 다리를 잃는다. 기막힌 현실에 절망했던 아버지는 남은 한쪽 팔과 다리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용기를 다시 북돋는다. ‘수난 이대’의 의미와 영문도 모르고 역사에 희생되는 일반인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언어용법 말하기 문화
할머니의 죽음 (현진건)	할머니의 위독함을 알리는 소식에 온 가족이 모여 임종을 기다린다. 그 과정에 진정한 효자, 효부가 누구이며 무엇이 진정한 할머니를 위하는 것인지에 대해 가족들끼리 갈등이 벌어진다. 한국의 ‘효’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말하기 문화
아우를 위하여 (황석영)	군대에 간 동생에게 형이 쓰는 편지 형식의 글. 자신의 학창시절 폭력에 굴하지 않고 결국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가 밝히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학교 폭력과 정의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비슷하다.	말하기 듣기 문화
별 (황순원)	돌아가신 어머니와 누이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소년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누이에 대한 애증을 갖고 성장한다. 결국 누이도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끝까지 누이가 엄마를 닮지 않았다고 우기며 눈물을 흘린다. 어린 시절 누구나 갖게 되는 가족에 대한 애증, 복잡한 심리적 상태 등이 잘 묘사되어 있다.	쓰기 문화
소나기 (황순원)	시골로 전학 온 서울 소녀와 순수한 시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산으로 강으로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지병을 앓고 있던	쓰기 듣기 문화

	소녀는 죽음을 맞는다. 성장통을 지독하게 앓게 된 소년의 이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영상 매체를 함께 이용해 볼 수 있다.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전쟁터에서 낙오된 세 사람. 부상당한 주 대위를 두고 현 중위는 떠나지만 결국 시체로 발견된다. 김 일등병은 끝까지 주 대위와 함께 하는데 마지막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가를 발견한다. 극한 상황에서 살고자하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인간애가 잘 나타나 있다.	쓰기 말하기



HANSUNG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Korean Culture Education through Novel Tex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Jung, Won-Ki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is a paper studies the Korea Culture and education measures for foreign learners of general purpose for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Meanwhile, the Korea Culture for Foreign Learners of general-purpose tools or training is intended to improve language education for 'communication skills' has been made on its continuation. However, the general objectives of the foreign student also has a variety of old and different learning objectives and Korean.

Given that this culture to foreign learners in South Korea as a general-purpose education do not focus only on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needs to be set up by cultural and educational objectives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learners.

In this paper, we will study the Korea Culture and Education Plan based cultural and educational discrimination in general, progress in the current Korean educational. The setting for cultural and educational goals for your Korean rating of saying discrimination is a general purpose foreign learners by applying the steps (understanding, application, production, eval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et objectives by utilizing the Korea Contemporary novels with sanctions for cultural education to education and culture.

When educational materials are being used in the current Korean cultural education is largely into two types, it will be divided into cultural educational materials and textbooks Korean educational integration. For cultural training materials category of culture without being systematic, and most of it is this interpretation of the cultural items presented subjectively, Korean case of educational integration textbook name of "culture" that is presented in the syllabus for each textbook of each institution It is presented differently, and also most things are presented without cultural topics, functions and relevance of that section.

Is that this sacrifice is foreign learners may end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text itself only related to cultural activities in order to perform a function other than that indicated whether the culture when learning the culture.

In this paper, we will present a general purpose foreign learners understanding, application, production, story text itself so that you can recognize the cultural items that culture is well exposed through a phase of evaluation and communication center of various activities accordingly. This is to be able to use correctly in situations and communicative discourse situation, general purpose foreign learners to recognize the cultural correctly.

In this paper for the Educational Program of the above presented Beacco (2000)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er and focused on "cultural concept" of various cultural concepts that apply in all categories of foreign students with cultural and educational objectives accordingly 'common goal "and foreign students' grades were divided into two targets.

For a selection of cultural items in this paper, it refers to the international accepted standard model Step 2 to accomplish Korean culture, behavioral culture, information cultu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culture and cultural topics selected for the details accordingly.

In addition, it provides a novel text selection criteria researchers use criteria related to the existing literary texts as reference material culture items selected by education. Selection criteria were also presented in the same way as two goals of cultural education, was established one

common rating criteria and detailed selection criteria that can be used in every class. In each class to meet the above criteria were selected text used as a novel sanction of cultural education.

In this paper, it was to apply the steps to education and culture to the general purpose foreign students presented a plan to take advantage of the novel text as a sanction of cultural education, which can be said that the existing cultural education plan is significant in that it puts the difference , and it will be able to be the basis for cultural and educational study of Korean learners to reflect a variety of factors, cultural and educational Korea was seeking to link research and educational literature Korea will be able to have another significance in the point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of sanctions, step-by-step training (understanding, application, production, evaluation), a novel texts, educational value, retelling)